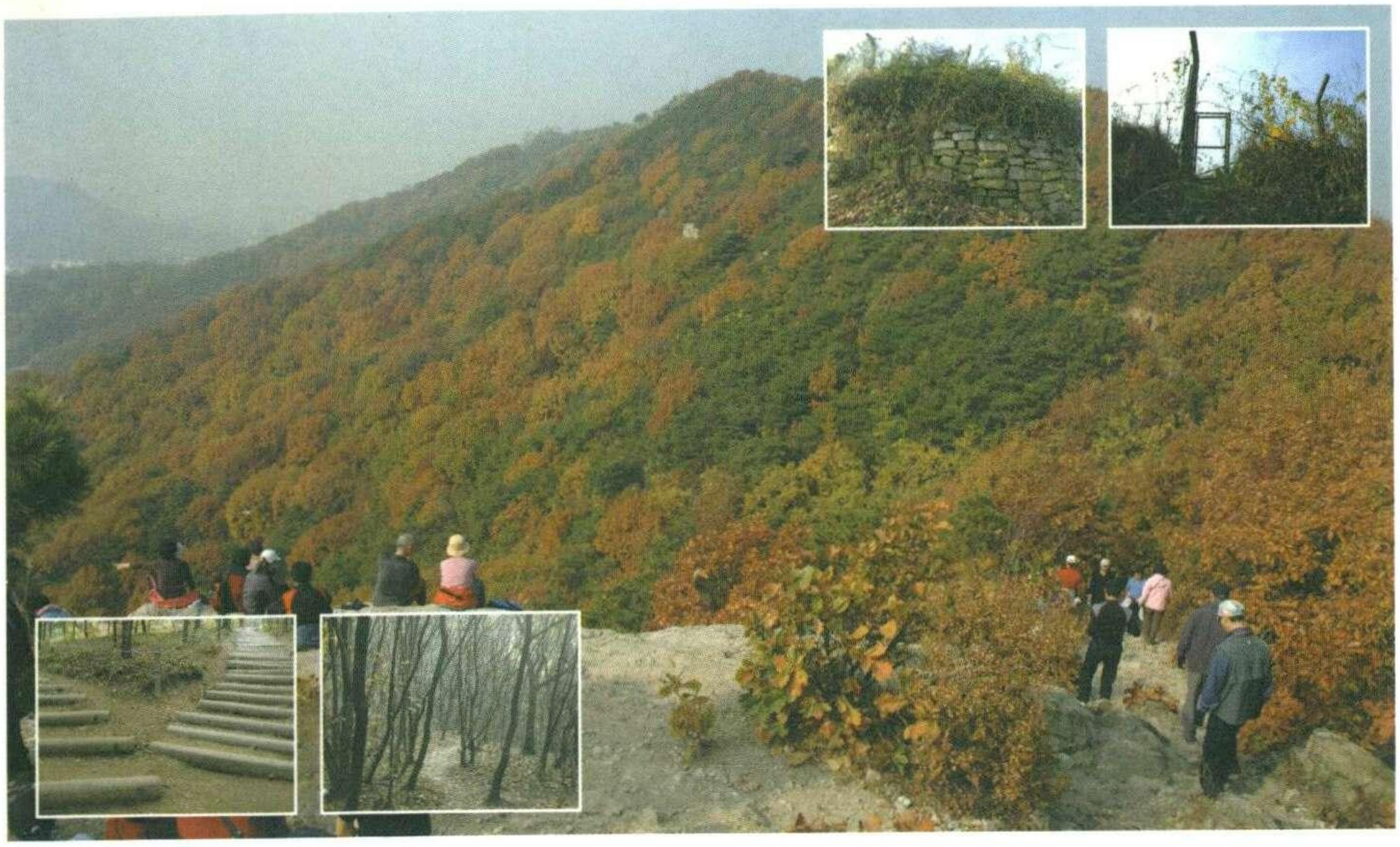


文鶴山

문학산 속으로 걸어가기

| 학산문화총서 편집위원회 |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文鶴山

문학산 속으로 걸어가기

| 학산문화총서 편집위원회 |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 발간사 |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다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들은 희망을 버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왔던 것이지요. 남구학산문화원도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한 나름의 보람과 결실들도 맛보았습니다. 이제 새해를 열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디뎌야 하겠지요.

그럴 즈음에 또 하나의 결실로 총서가 나온다니,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발검을을 향한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문학산을 주제로 정한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주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있듯이 문학산은 인천의 뿌리이자 인천문화의 본산입니다. 그 일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물 유적들이 새롭게 발굴될 때마다 우리는 문학산이 지닌 무게감과 함께 인천인의 역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문학산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어 가야 할 정신의 그릇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롯이 글에 담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낸 연구자를 비롯한 남구학산문화원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문학산을 아끼고 가꾸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문학산의 정상에서 맑은 해를 바라보듯 새해에도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2005년 12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박 우 섭

contents

발간사 ····· 박우섭 3

사진으로 보는 문학산 ····· 김영경 7

지금의 문학산은…

문학산과 옛 이야기 ····· 김희주 49

인천의 지형환경 특성과 문학산의 도시지리적 기능 ····· 이영민 59

문학산의 귀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운동의 의의 ····· 이희환 75

추억 속의 문학산

배꼽산 ····· 김윤식 97

역사 속의 문학산

인천의 중심,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 ····· 김상열 109

문학산 일대 땅이름

언어학적으로 풀어본 문학산 일대 땅이름 ····· 최재용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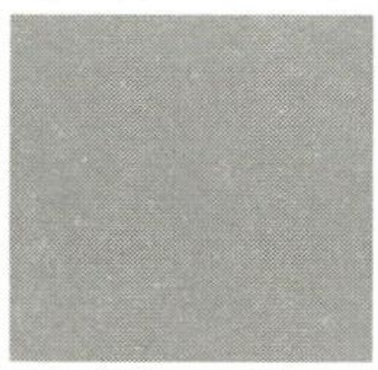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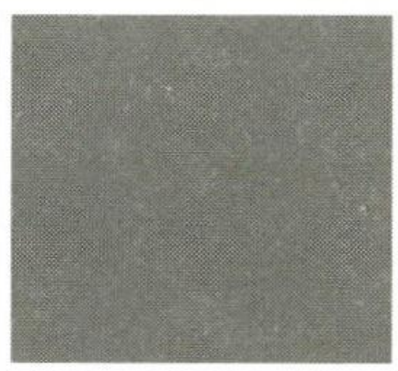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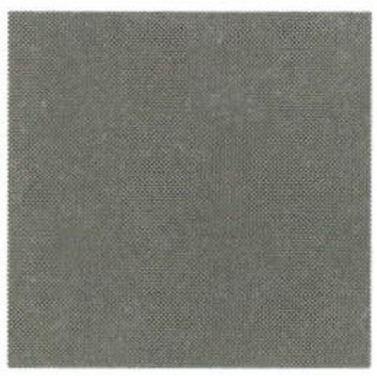
대담

문학산과 남구, 향후 문학산은… ····· 최원식 · 박우섭 · 김창수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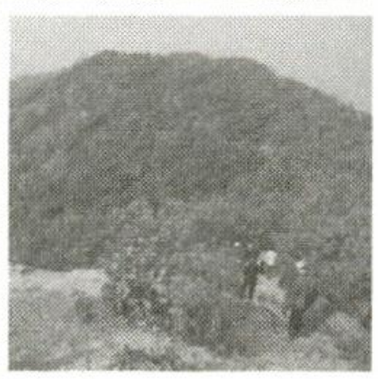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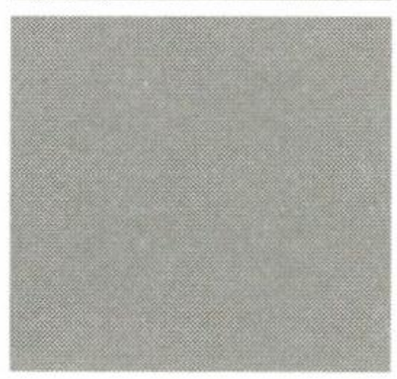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文鶴山

김영경 (사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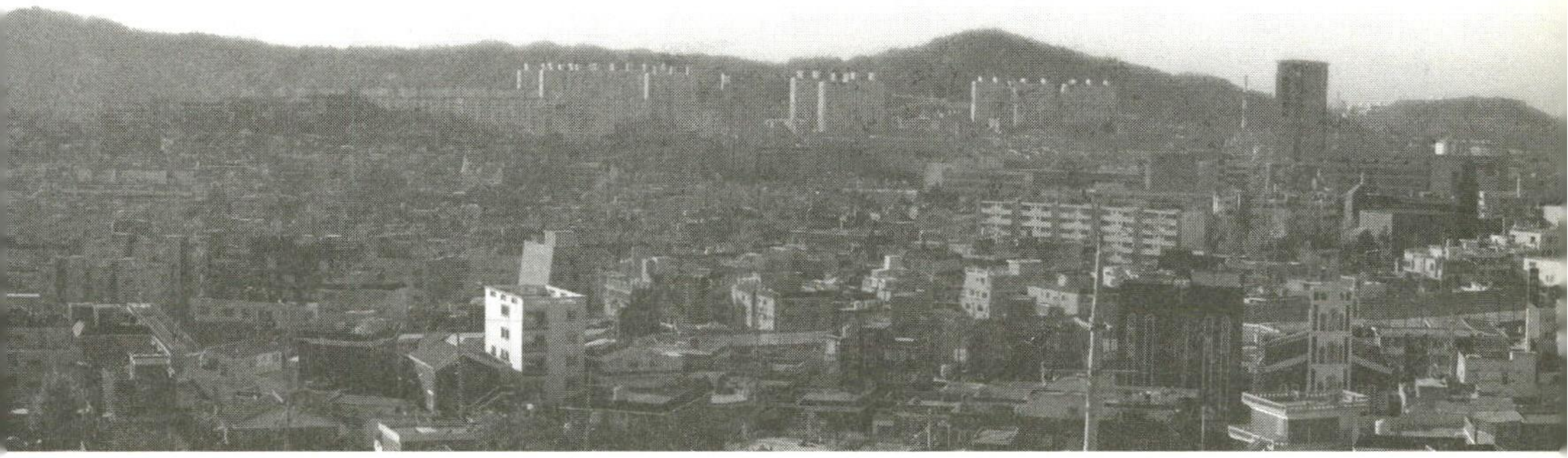
문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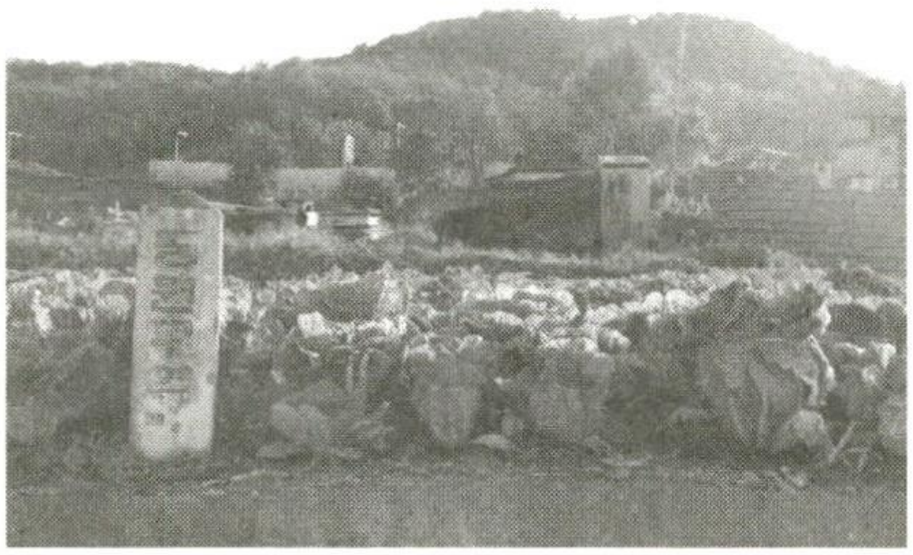
높은 곳에 오르거나, 빌딩 숲을 비껴나면 능선이 보인다.

인천을 동서로 길게 지나는 산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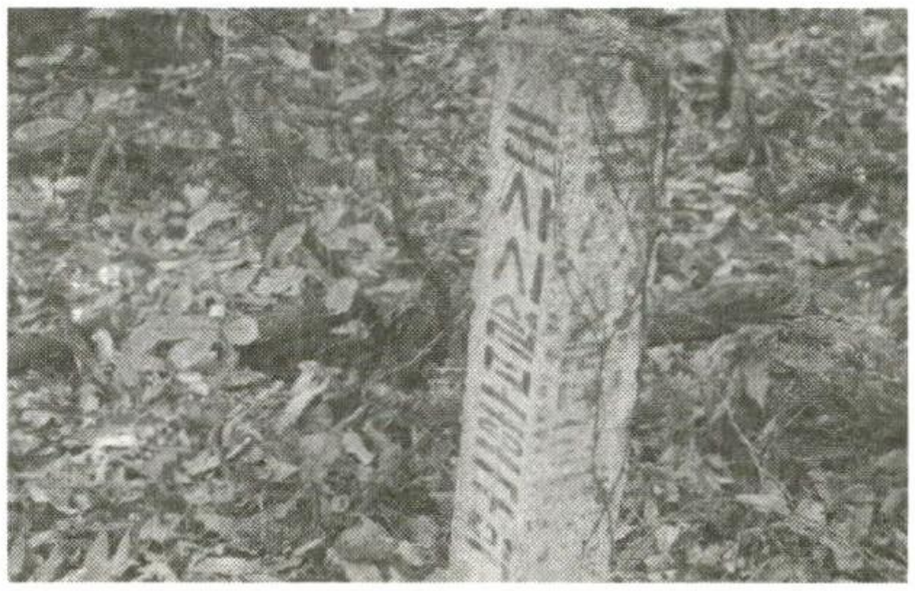
이 산은 공원구역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도 경계지워진다.



수봉산에서 본 문학산 전경



문학동에서 올려다 본 문학산



산을 오르는 길에서 본 군사시설보호구역표지

가로막힌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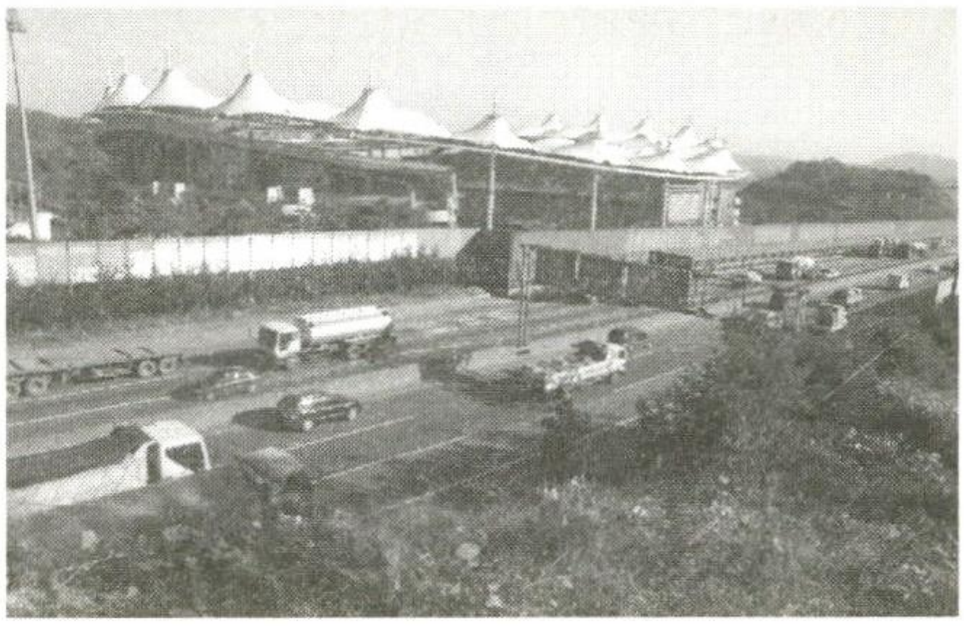


문학경기장에서 올려다 본 문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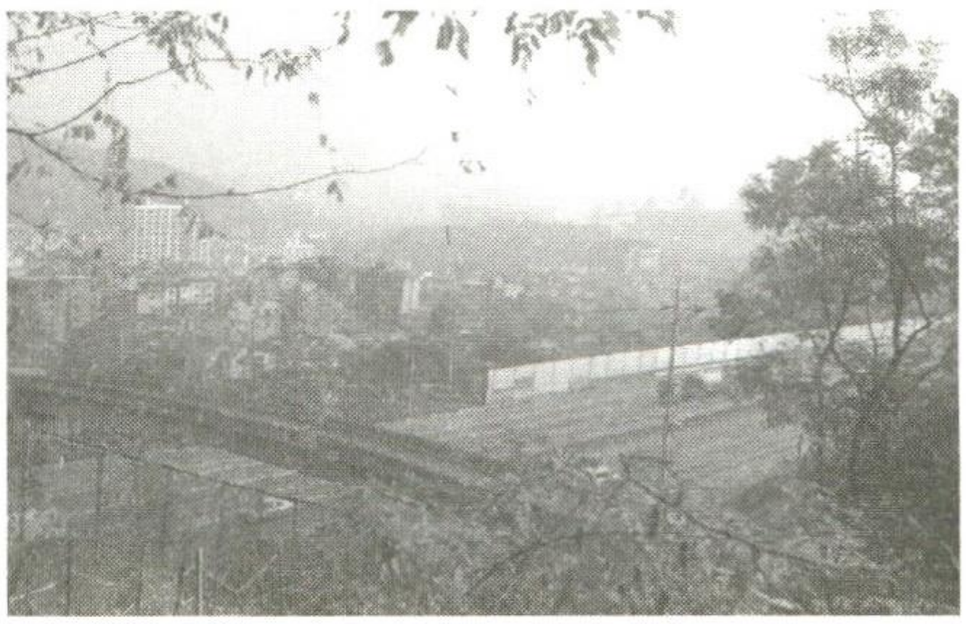
문학산에 오르는 길은 편치않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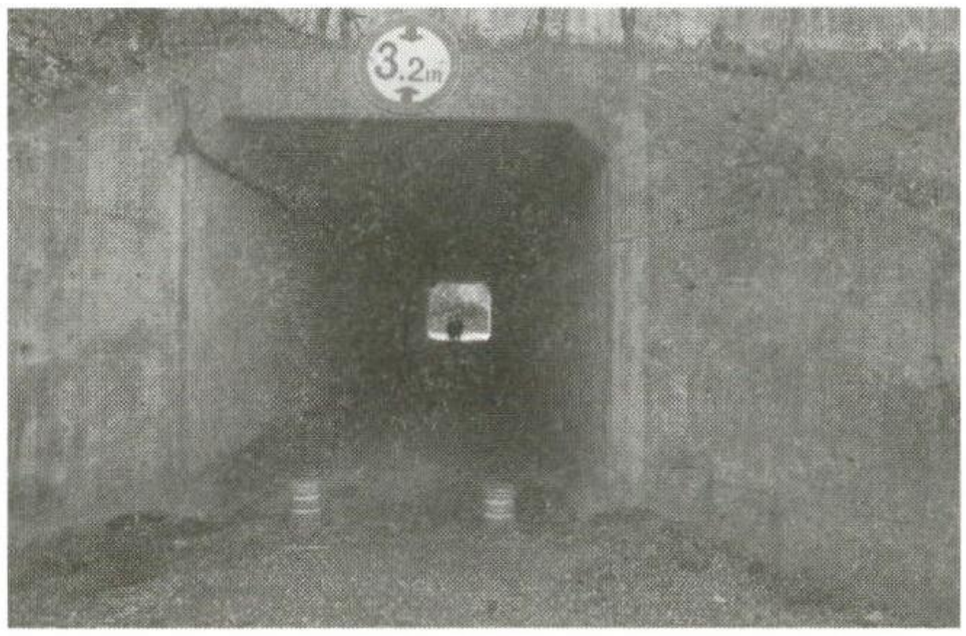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길이 다른 길을 끊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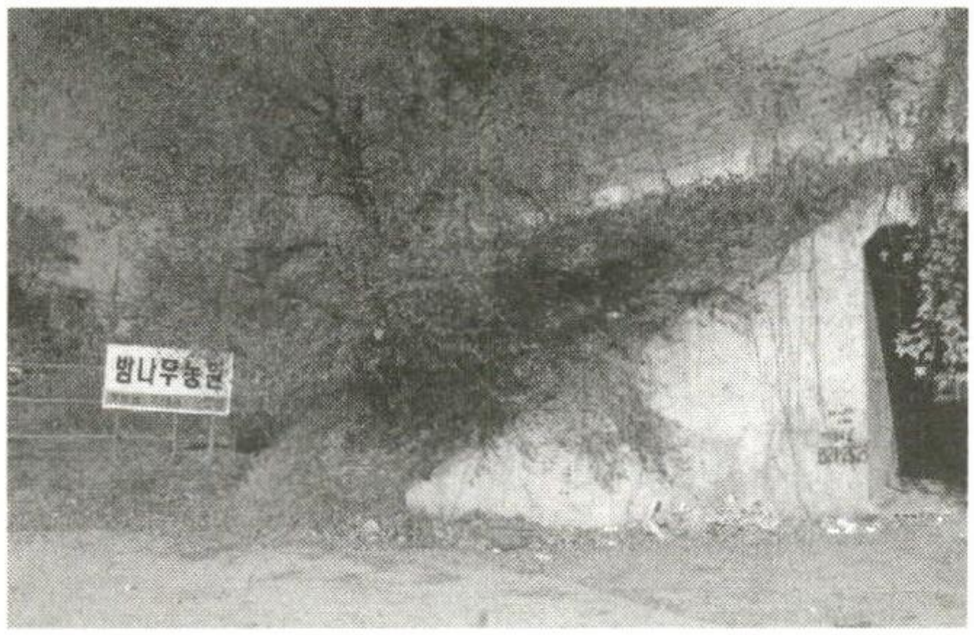
산에 오르는 길에 내려다 본 문학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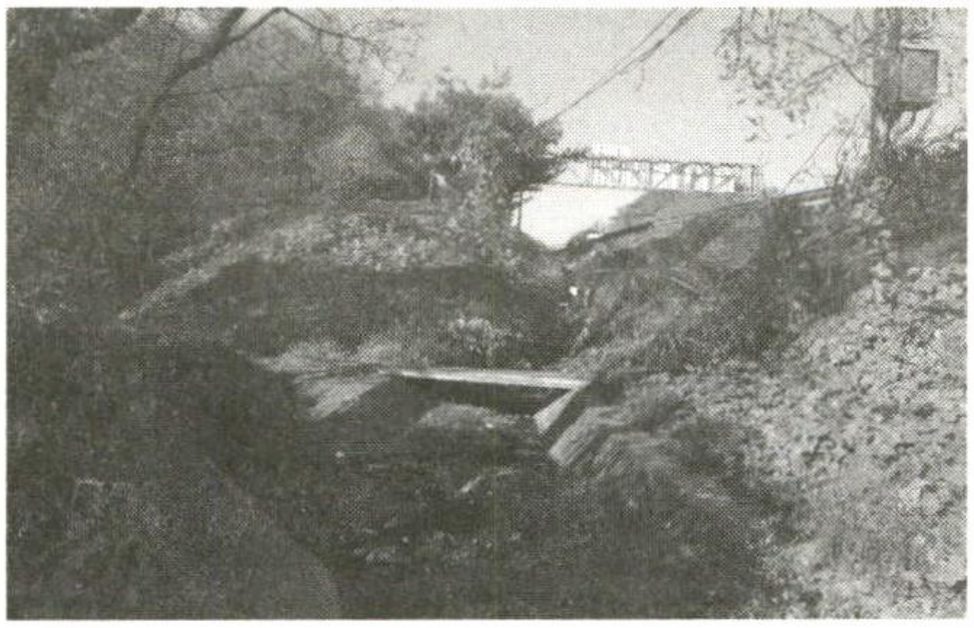
산에 오르는 길에 내려다 본 문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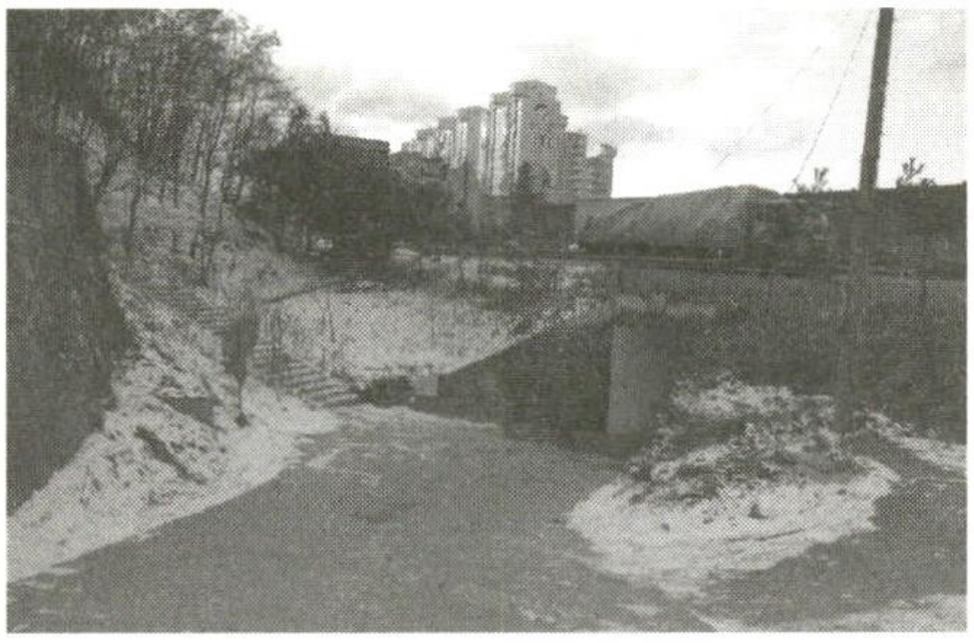
문학동에서 문학산 올라가는 길



선학동에서 문학산 올라가는 길



선학동에서 문학산 올라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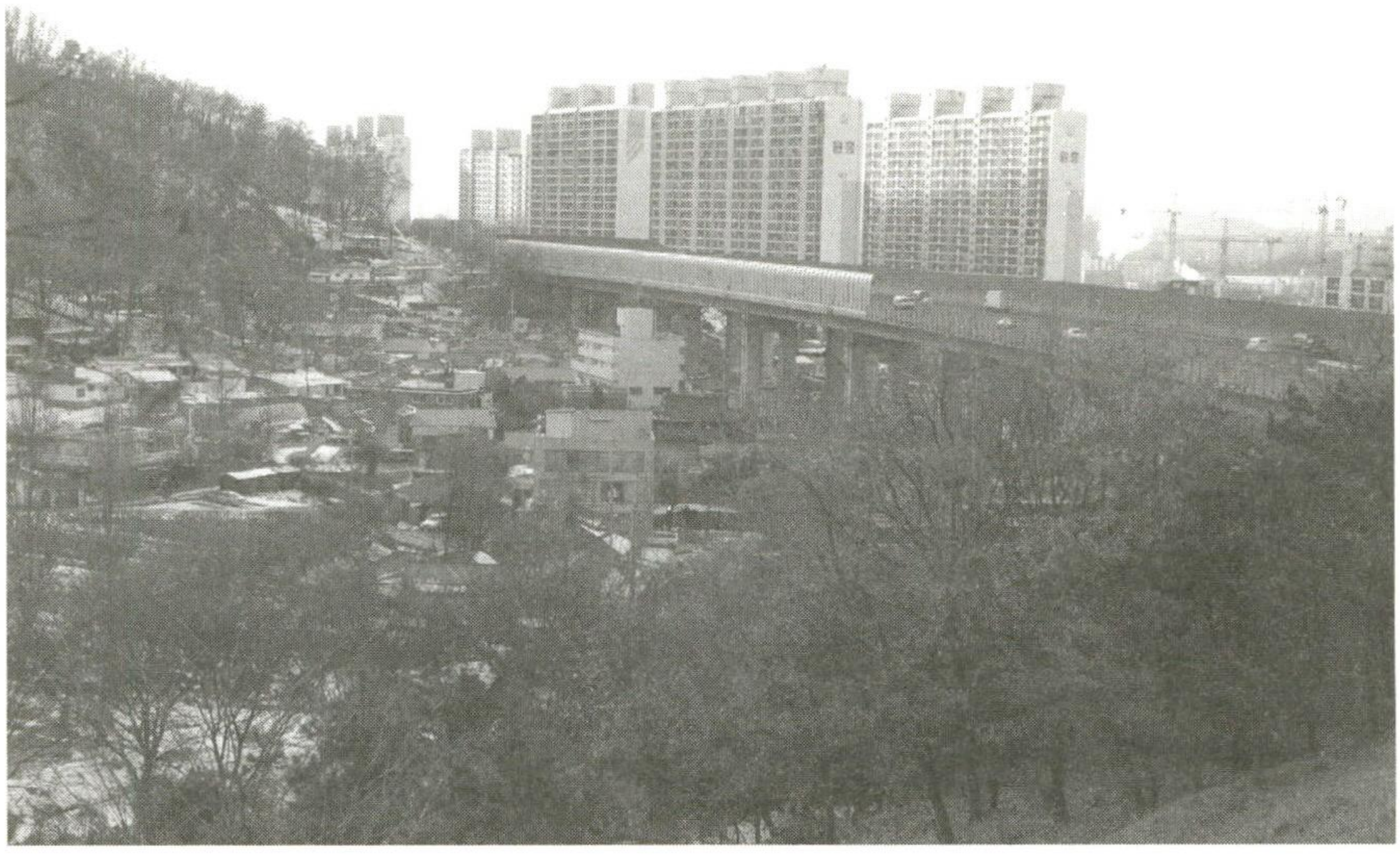


문학산에서 학익동 내려가는 길

산에 오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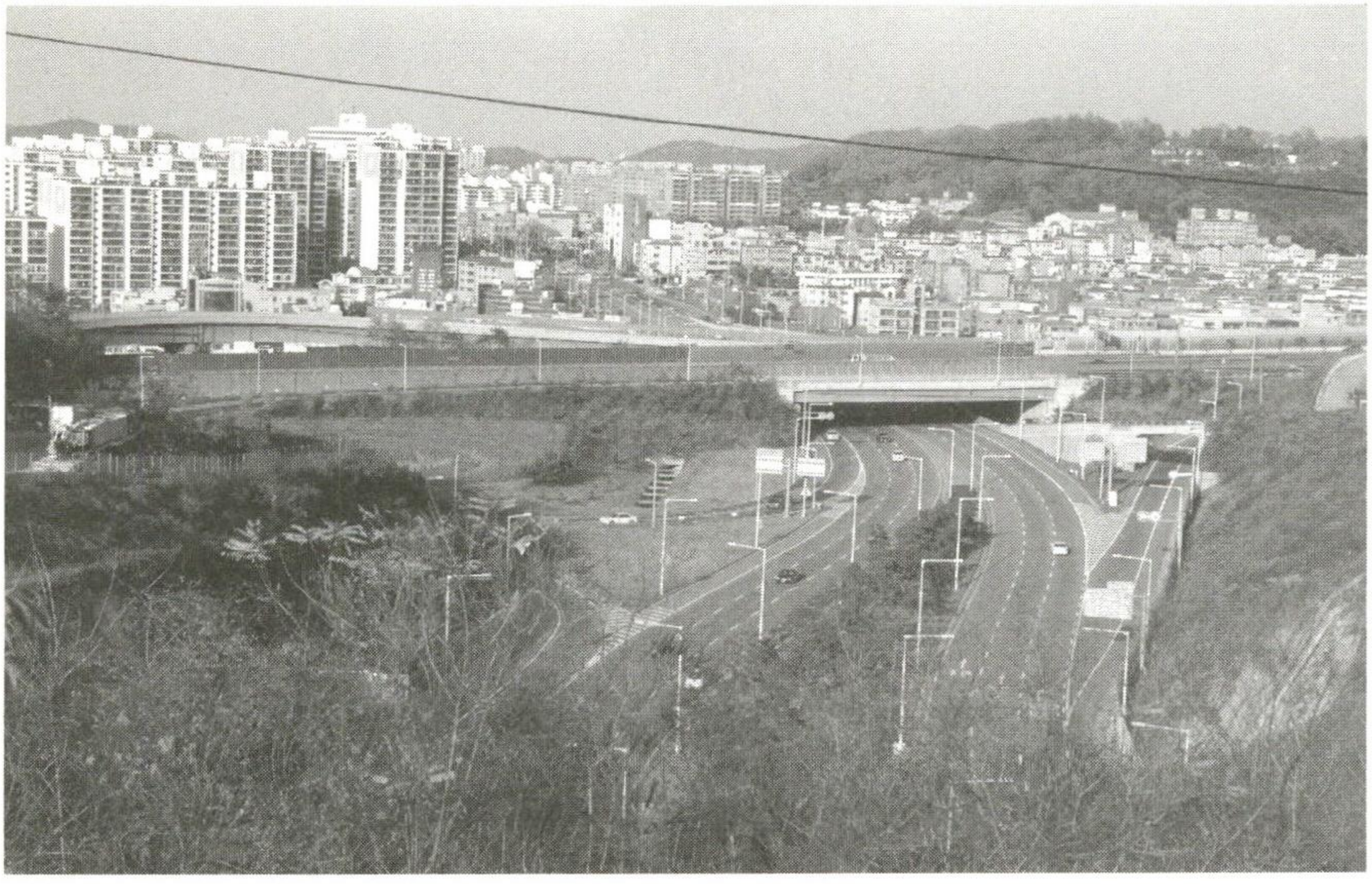
굴다리로 도로 밑을 기거나

육교로 도로 위를 날아야 한다.



학익배수지에서 내려다본 학익동

사모지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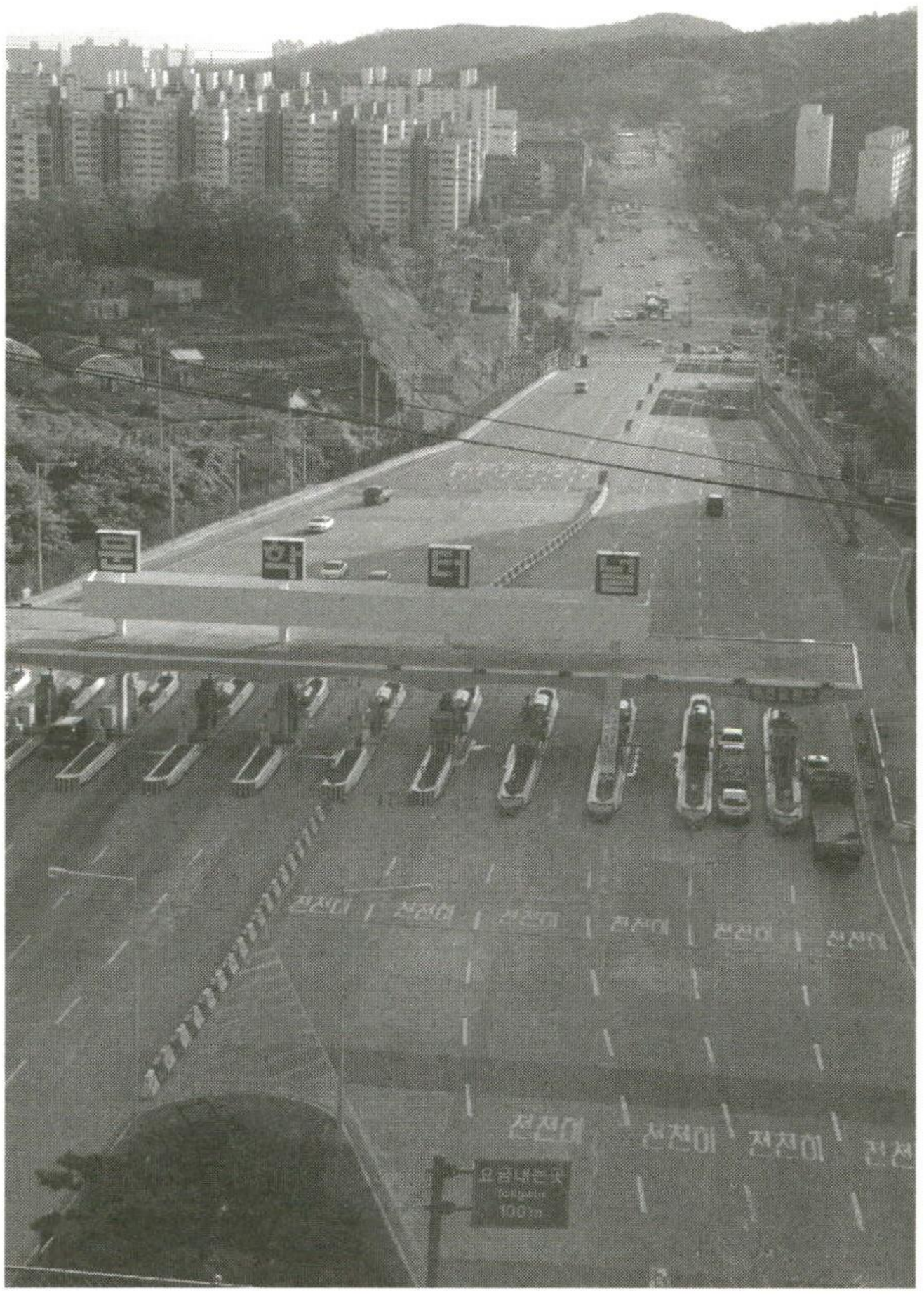
사모지고개길에서 내려다 본 남구

박달재 아래엔 박달재터널이 뚫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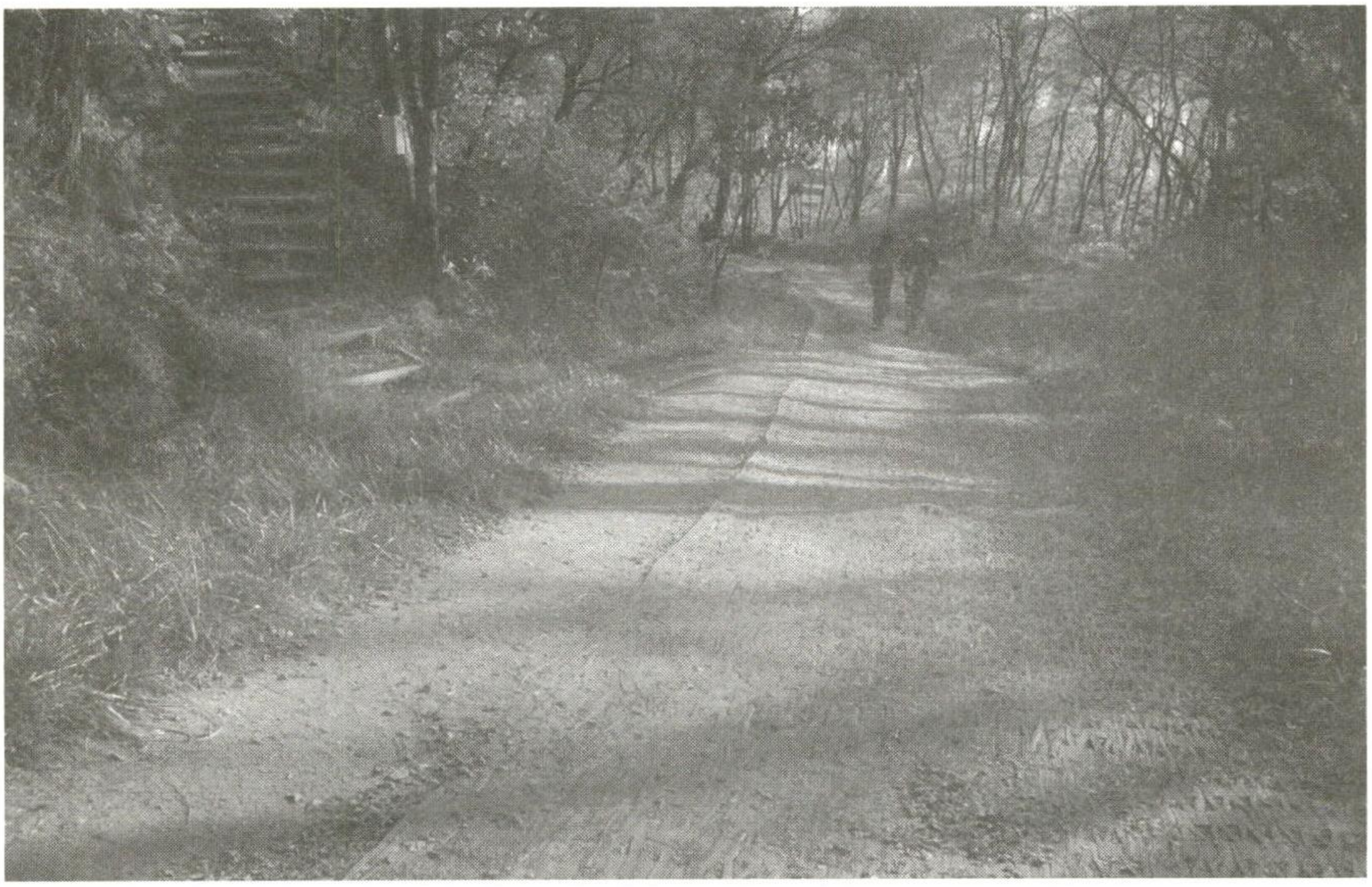
사모지고개 아래엔 문학터널이 뚫렸다.

고개를 넘나들던 길은

이제 자동차가 통과하는 터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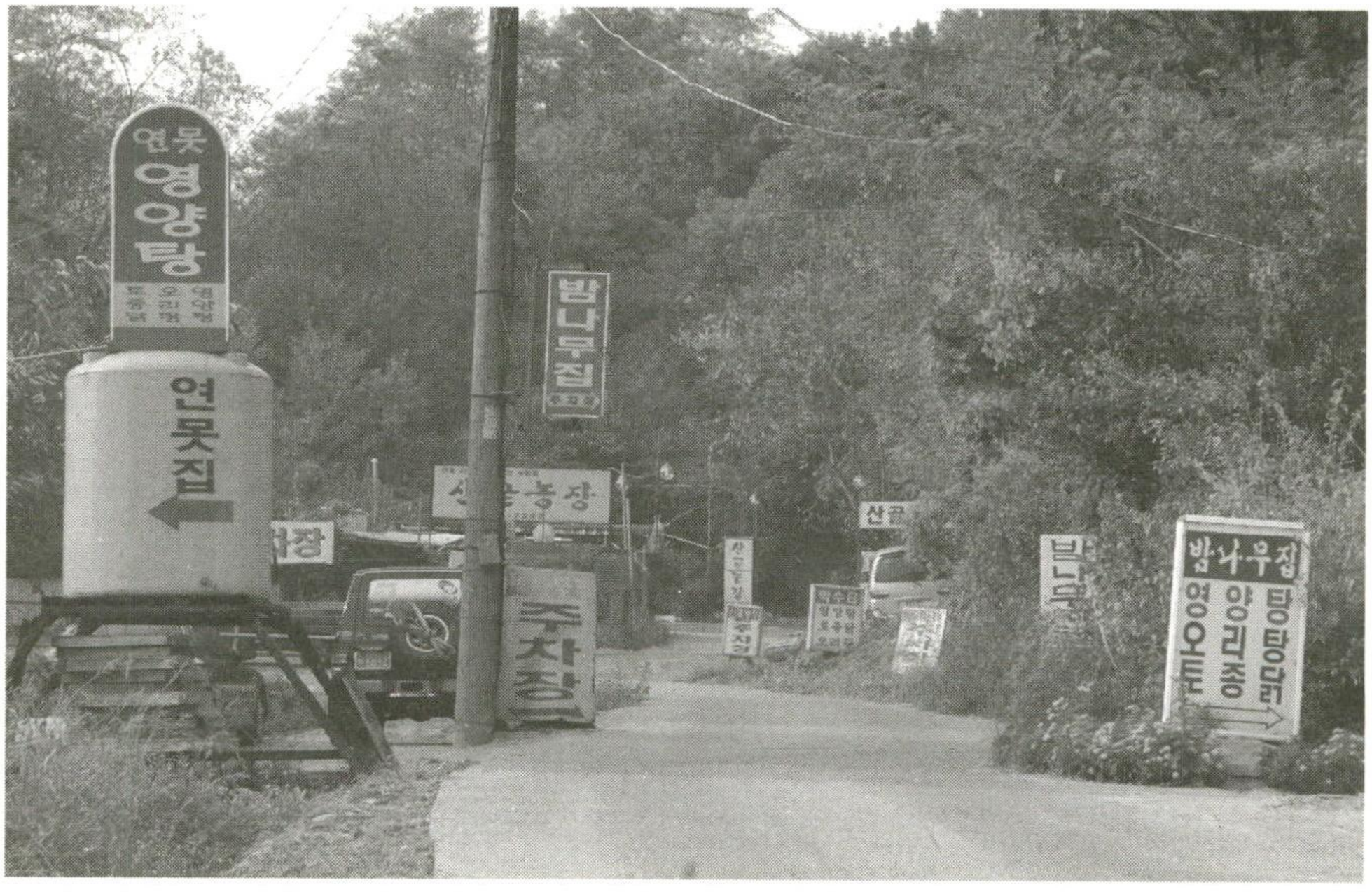
사모지고개길에서 내려다 본 연수구



연수구에서 사모지고개 오르는 길

사모지고개는 문학산과 연경산 사이에 있다.

이 고개를 넘으면 문학산을 금방 넘을 수 있다.



남구에서 사모지고개 오르는 길



사모지고개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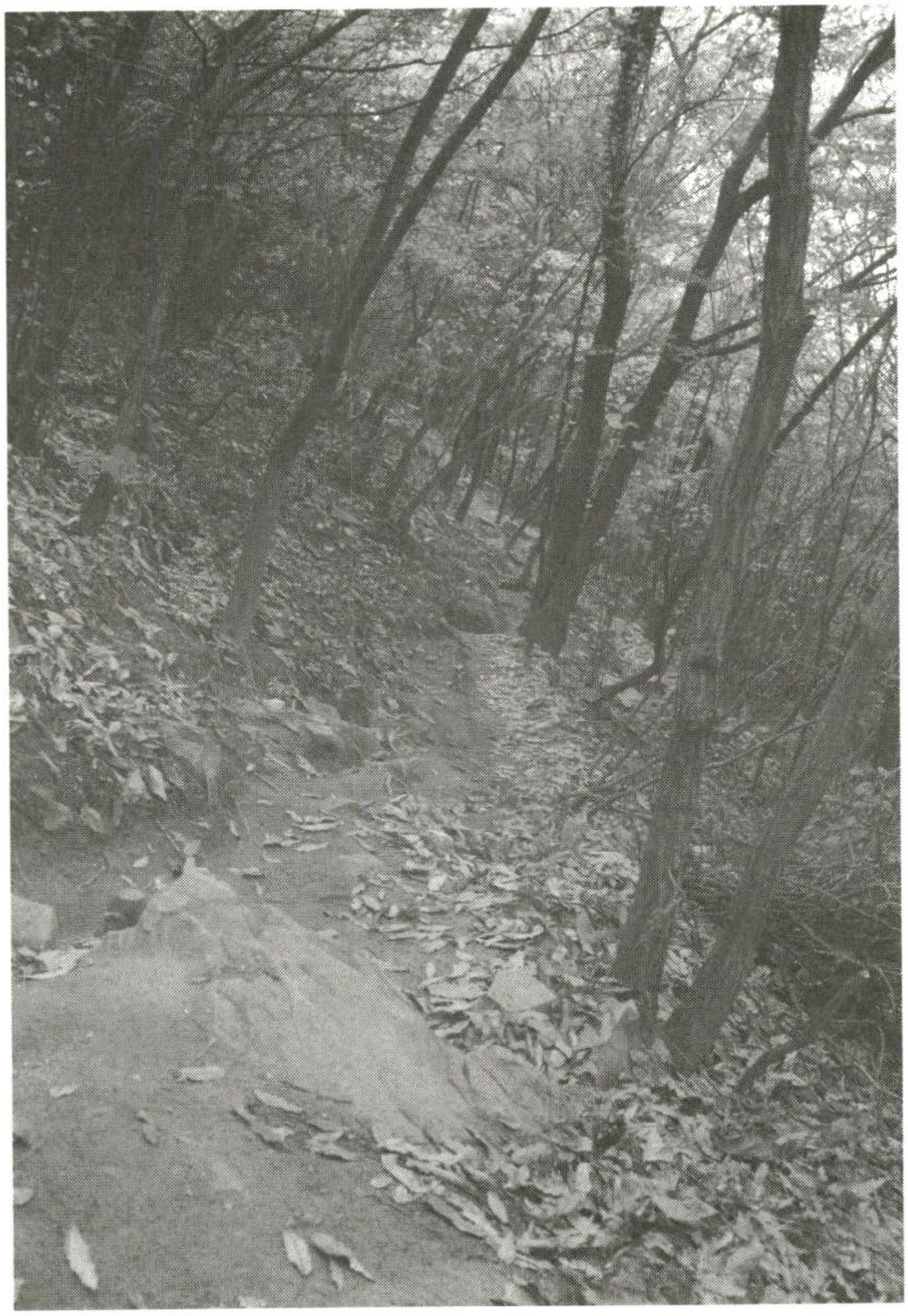
고개마루에 있는 안내판과 광고판과 경고문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인 것 같아 씁쓸하다.



사모지고개마루에 선 안내문

문학산성



사모지고개에서 문학산 쪽으로 가는 등산로

사모지고개에서 문학산 쪽으로 가는 길은 능선을 타고 가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간다.

몸뚱이도 자꾸 기운다.

기운 몸이 꼿꼿해질 때면 어느새 문학산 정상은 지나치고 만다.



등산로 주변 철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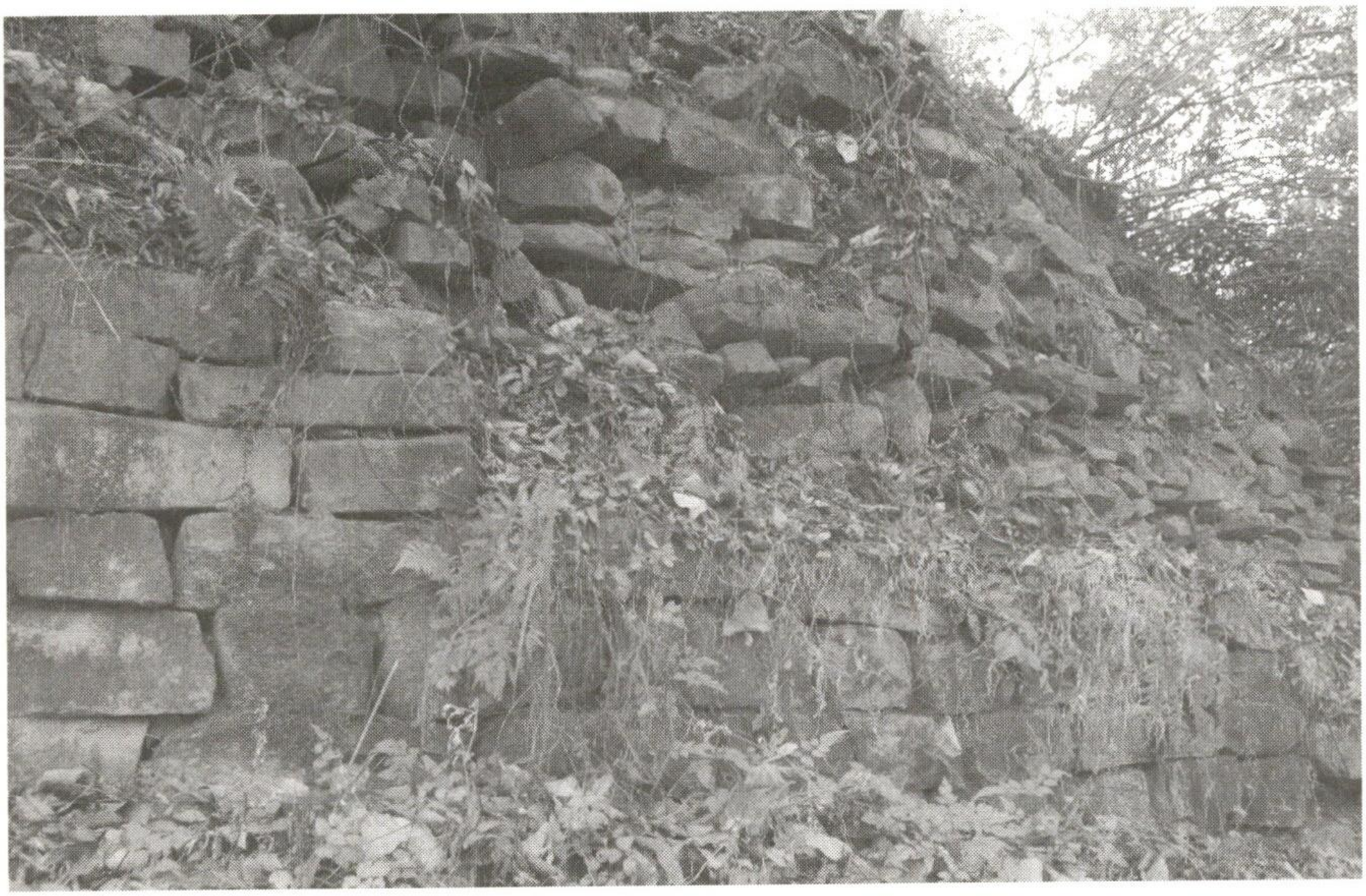


길도 나지 않은 가파른 북쪽사면을 올라 문학산성을 만났다.

가파른 경사보다도 나를 괴롭혔던건 웅웅거리는 자동차소리.



문학산성



문학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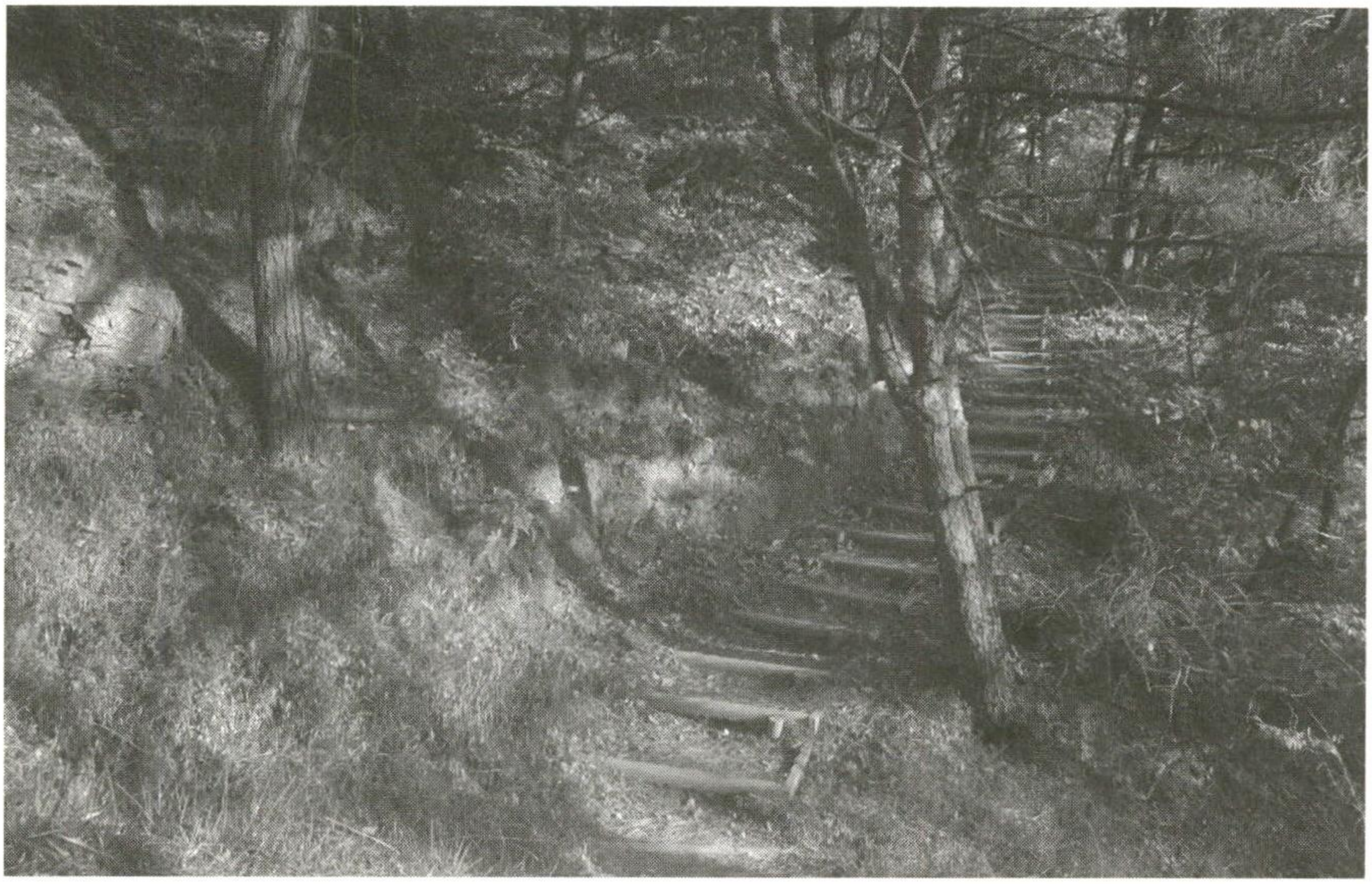
허물어져 제 구조를 드러내는 성벽,

문학산성이 21세기에 지키고 있는 것은 군사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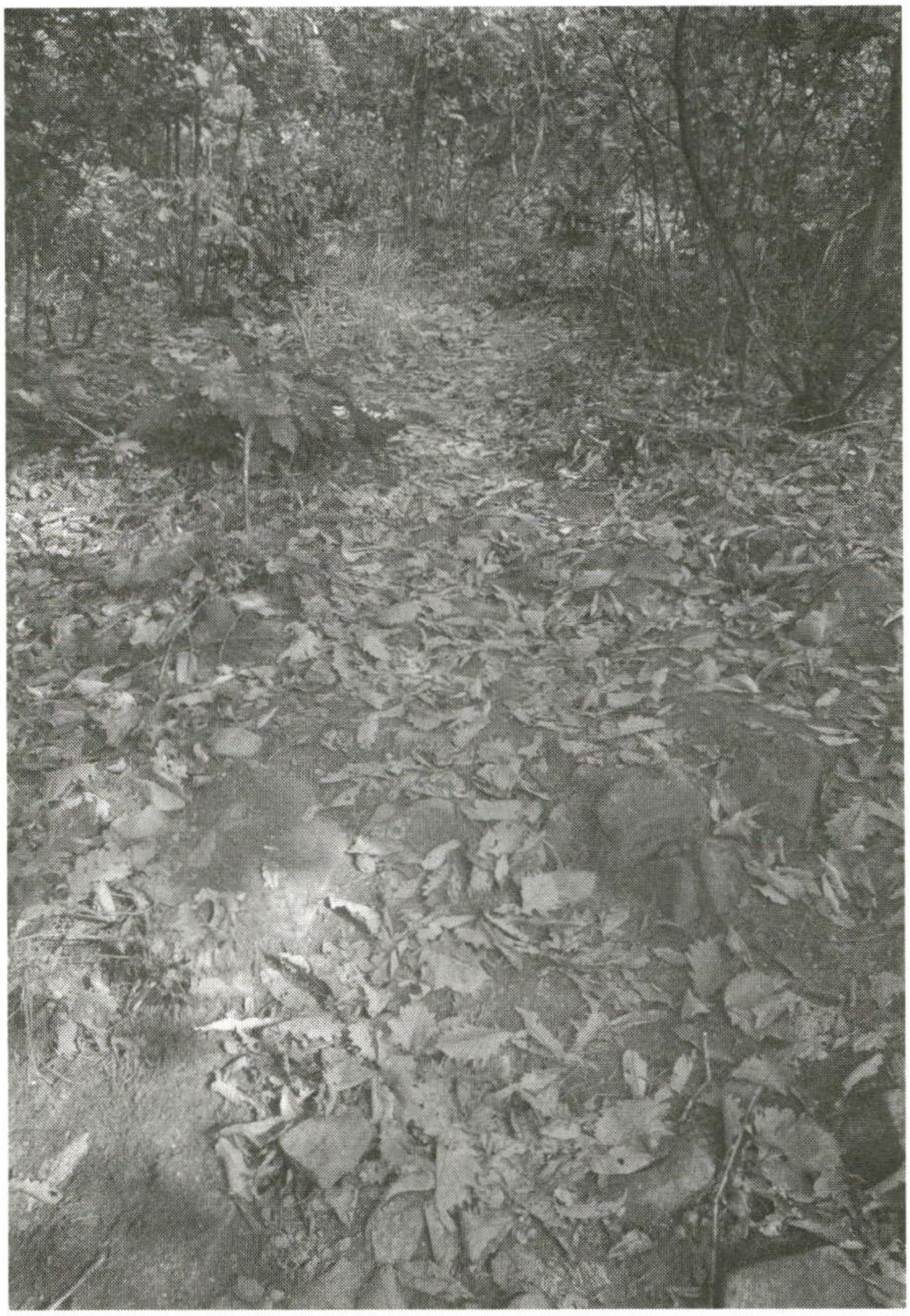


산성 위로 보이는 철망

문학산 오르는 길



문학산 오르는 길



문학산 오르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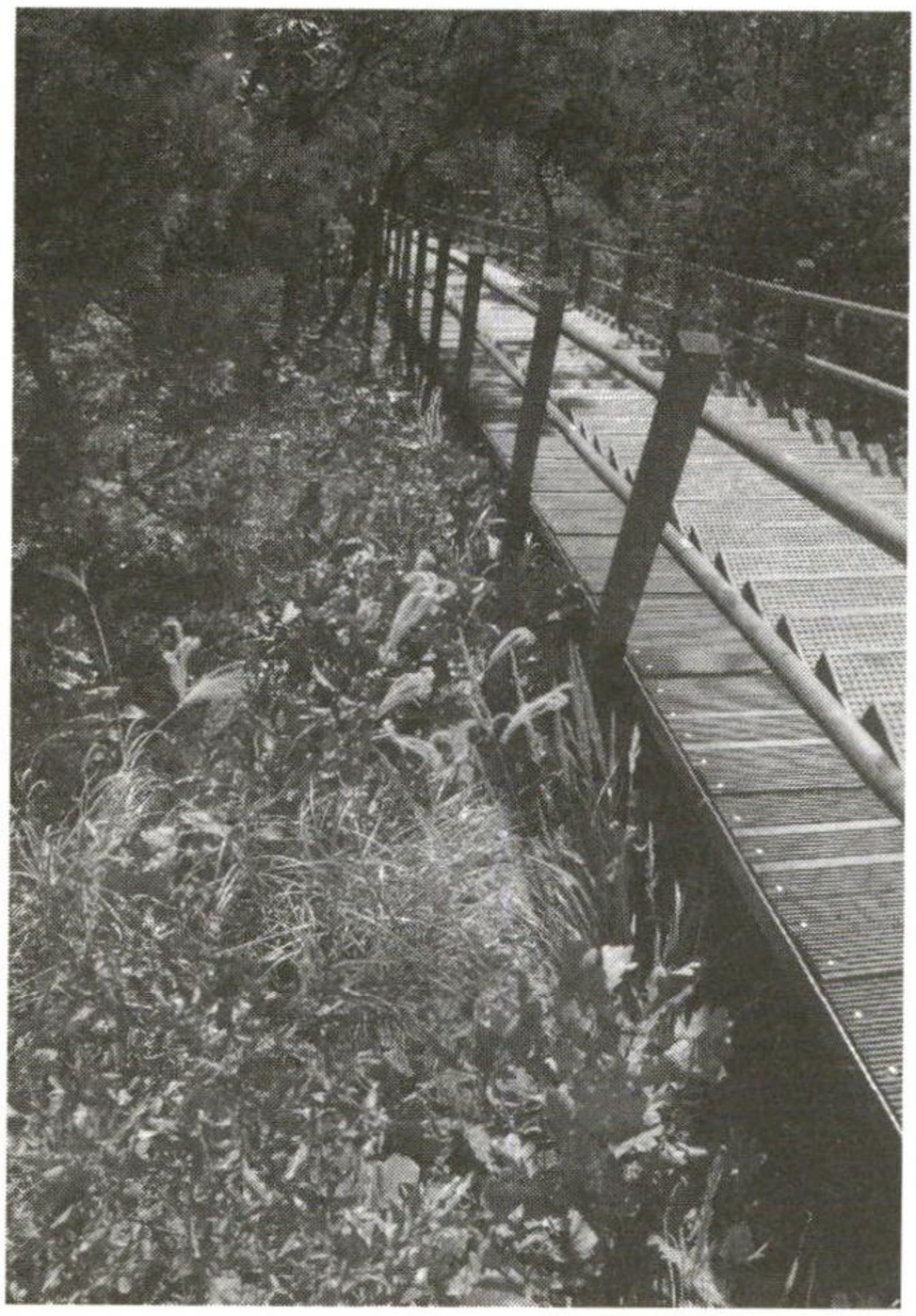
문학산 오르는 길

산길은 충분히 아름답지만, 도시근교의 산은 사람들을 끝내 당해내지 못한다.

등산로는 계속 넓어지고, 나무뿌리가 계단노릇을 하기 일쑤



의자가 설치된 봉우리



등산로에 설치된 구름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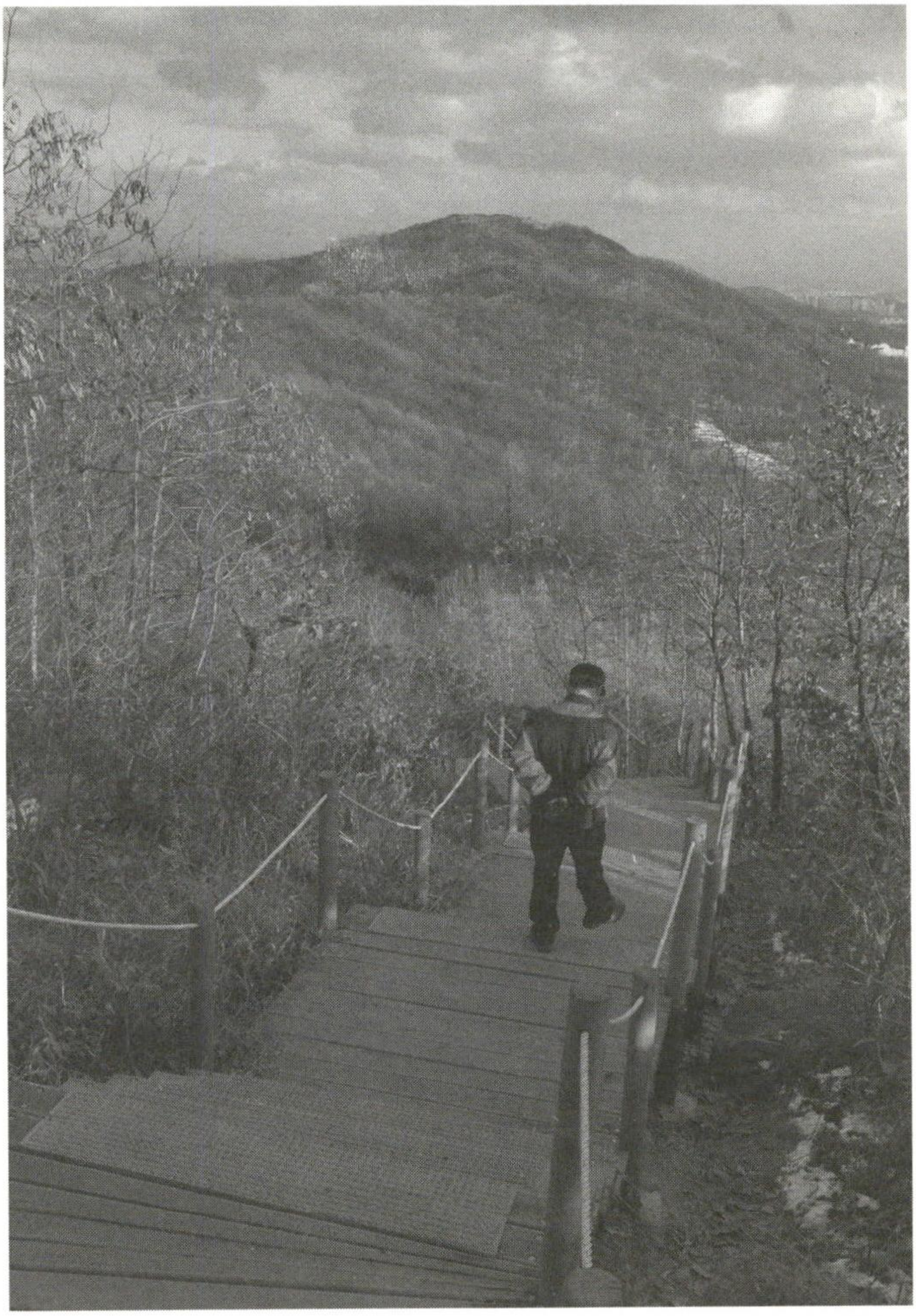


등산로에 설치된 울타리와 목조계단

산이 더 망가지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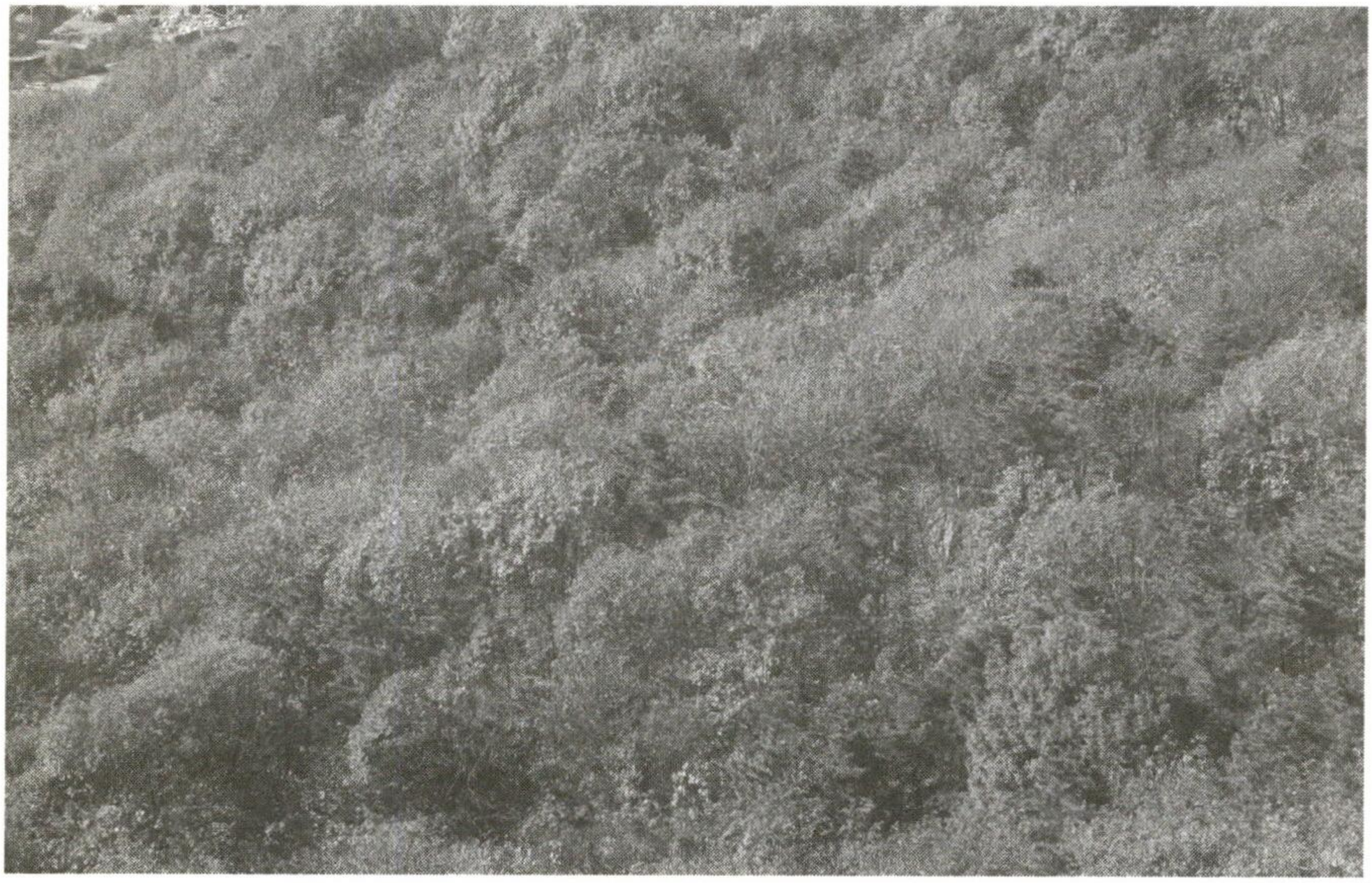
등산로를 정비해 놓았다.

산을 즐기는 것과 아끼는 것 사이의 화해



노적산에서 본 문학산

숲, 산줄기



문학산 남쪽 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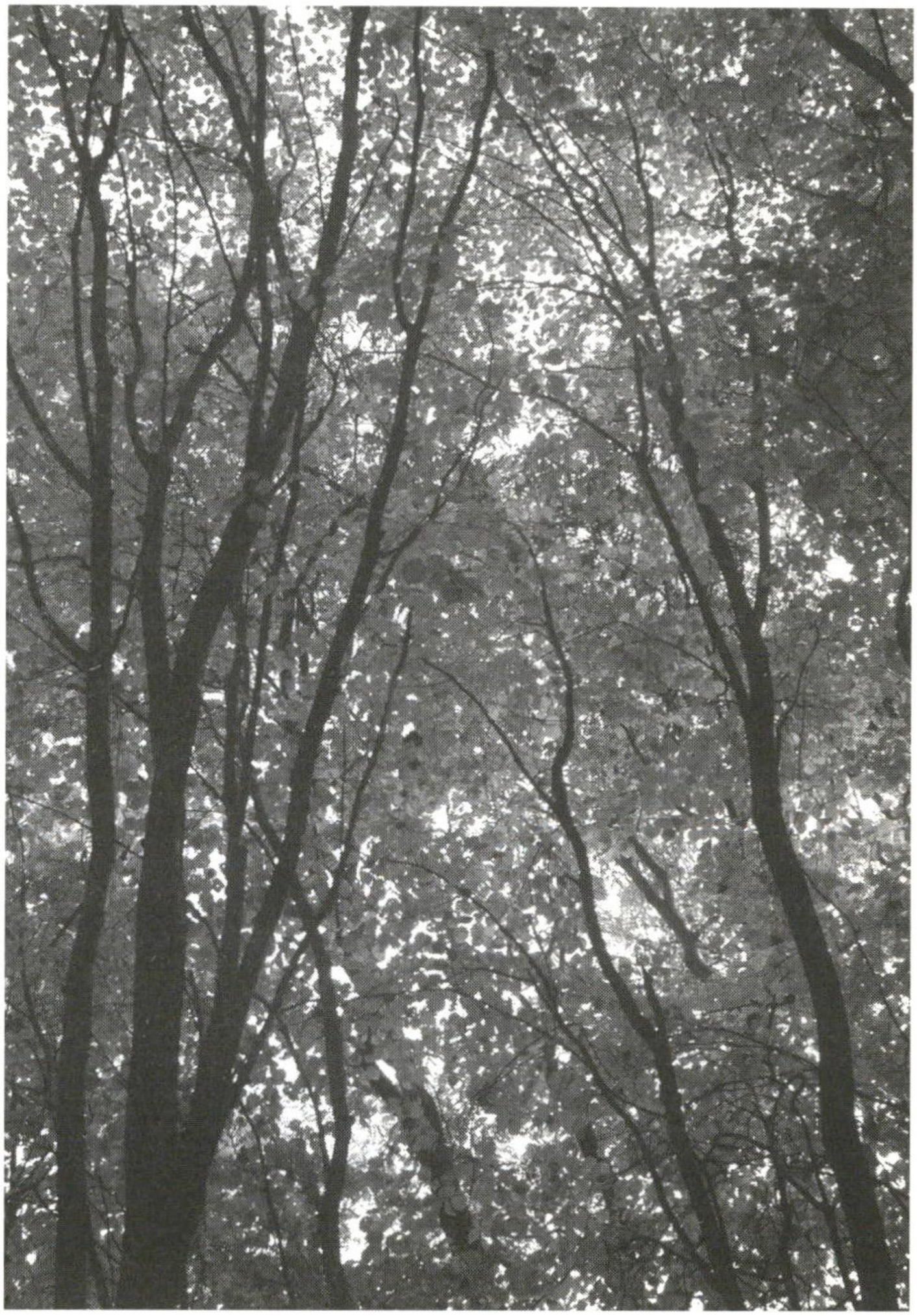
산은 그가 품고 있는 숲과 자신의 형세만으로도 넉넉함을 준다



문학산에서 만난 나무 군락



문학산에서 만난 나무 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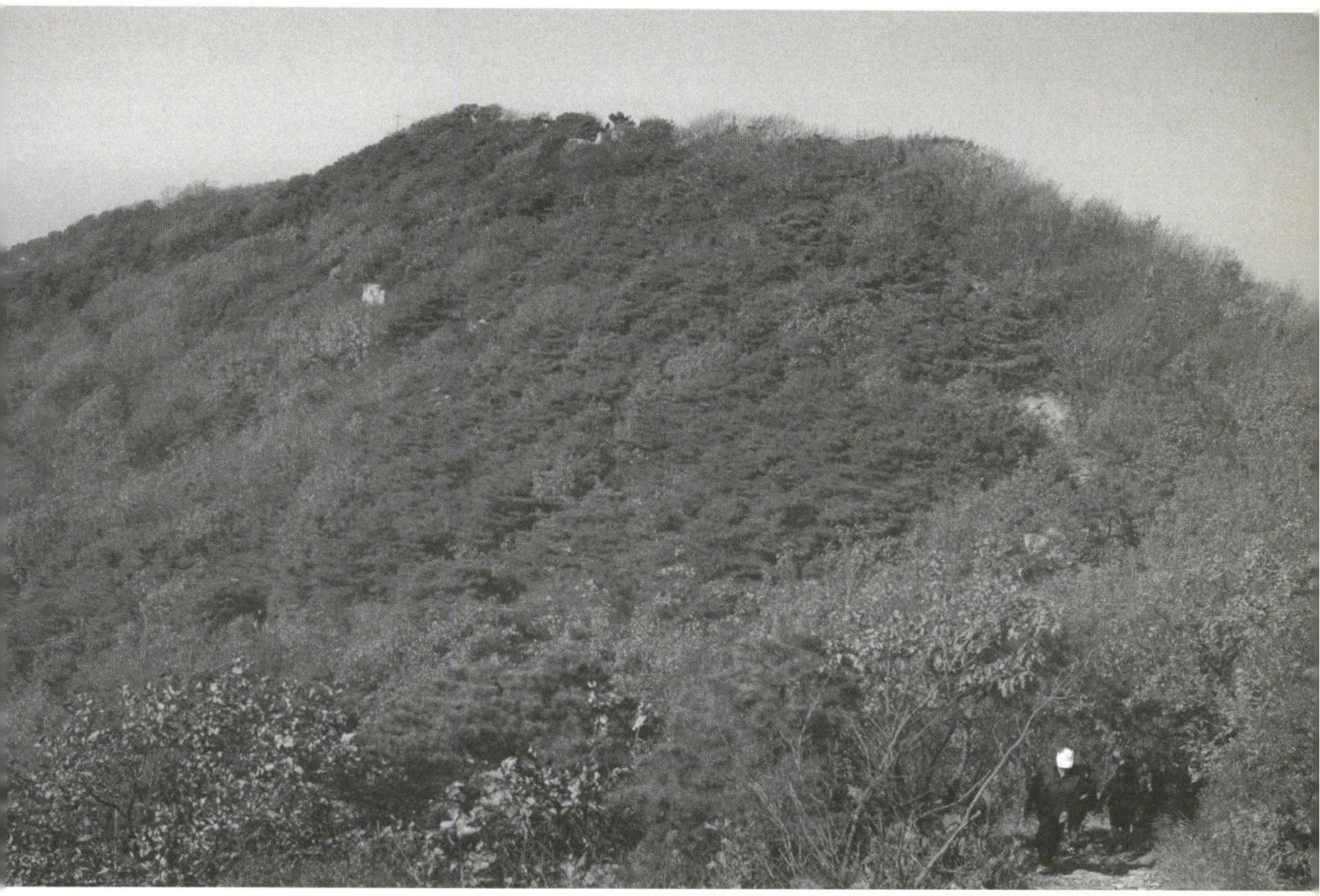
문학산에서 만난 나무 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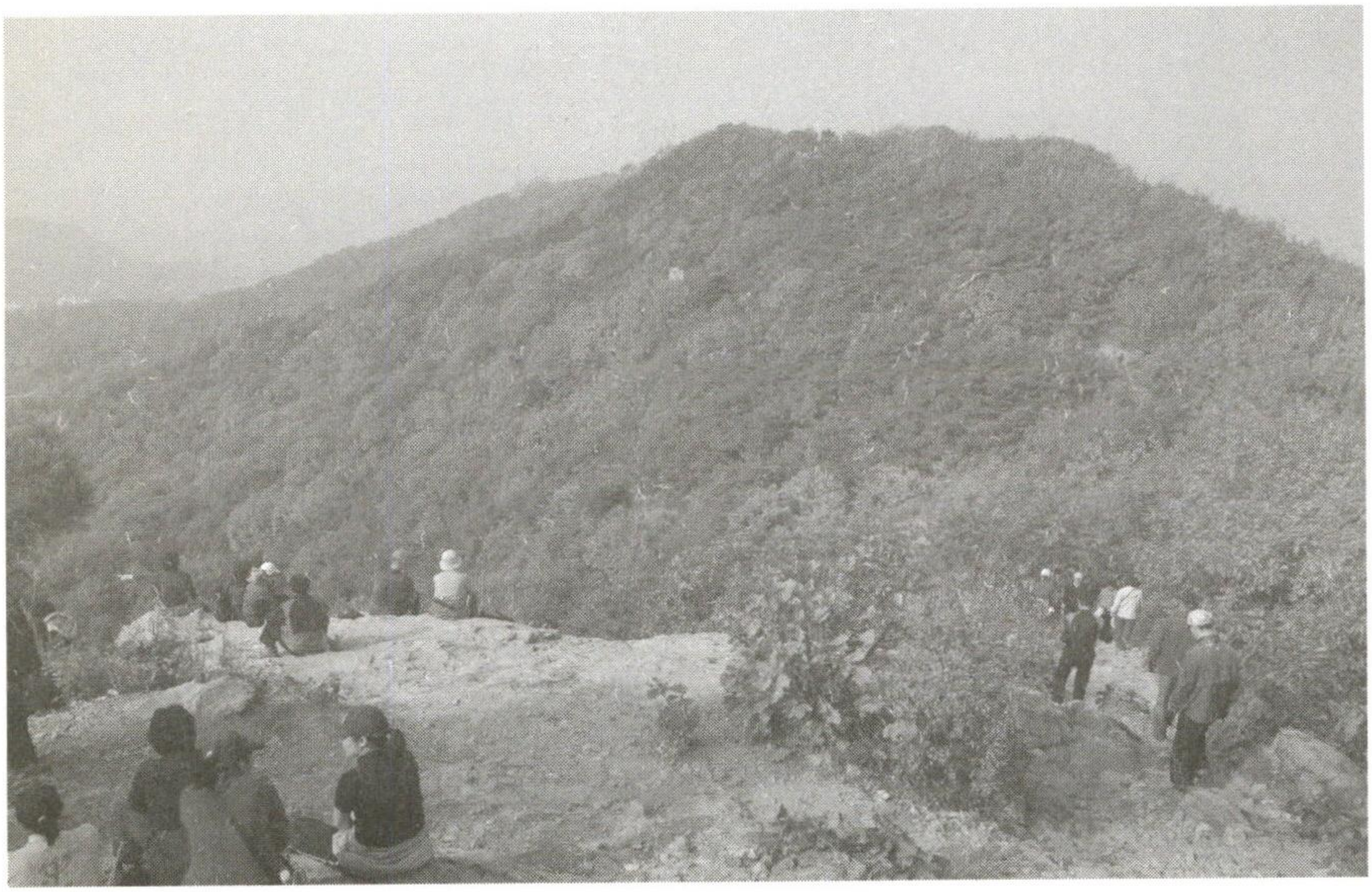
문학산 쪽에서 바라본 수리산과 문학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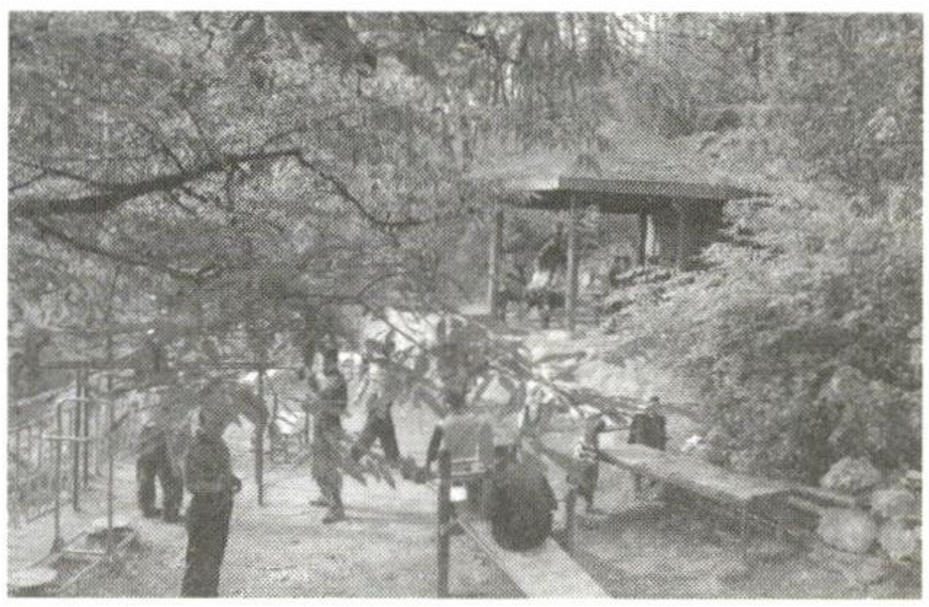


수리봉 쪽에서 바라본 문학산과 청량산

문학산과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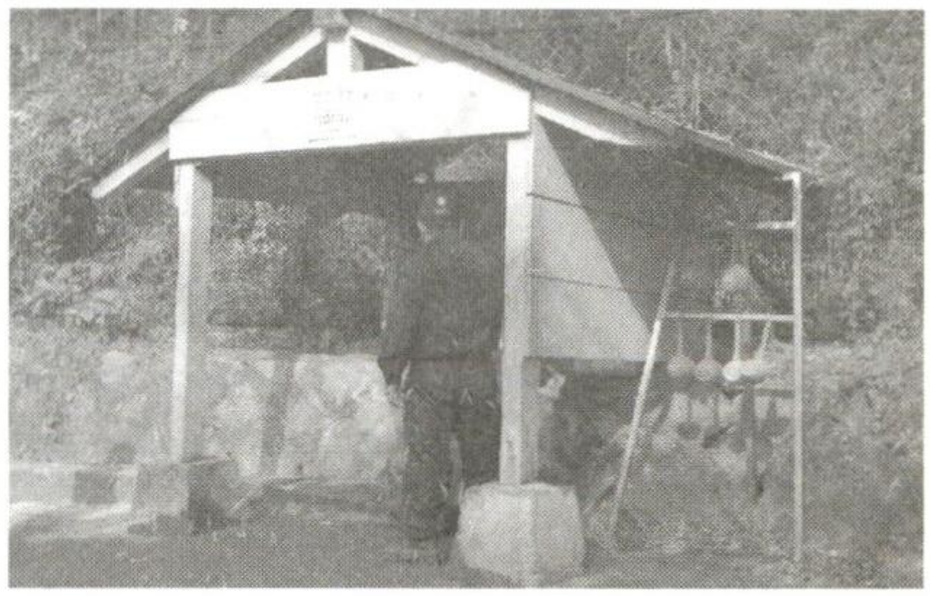
산을 찾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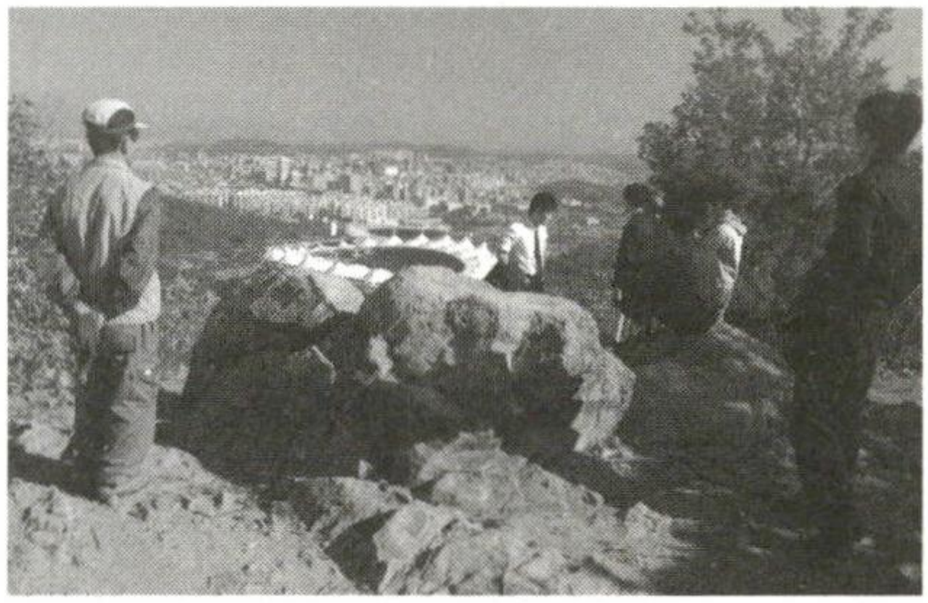
연경산에 조성된 체육공원

많은 사람들이 문학산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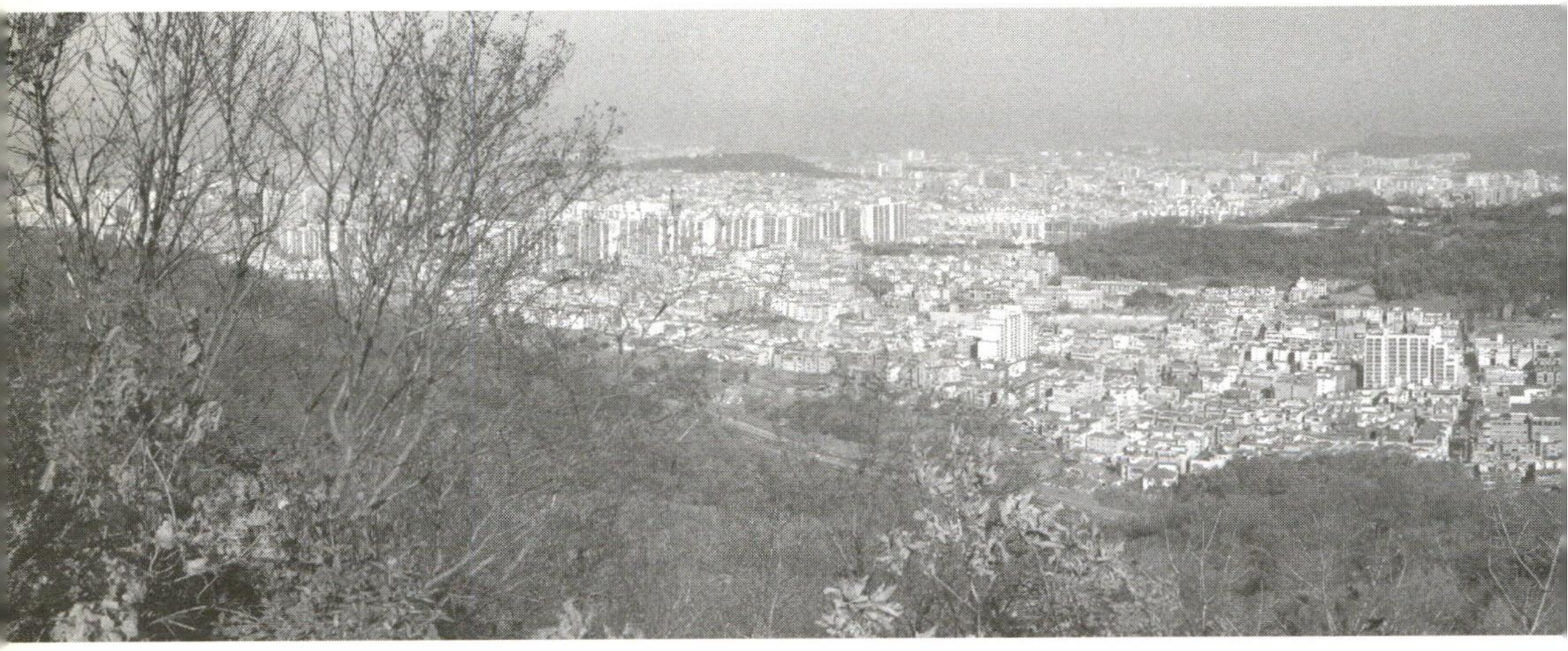
산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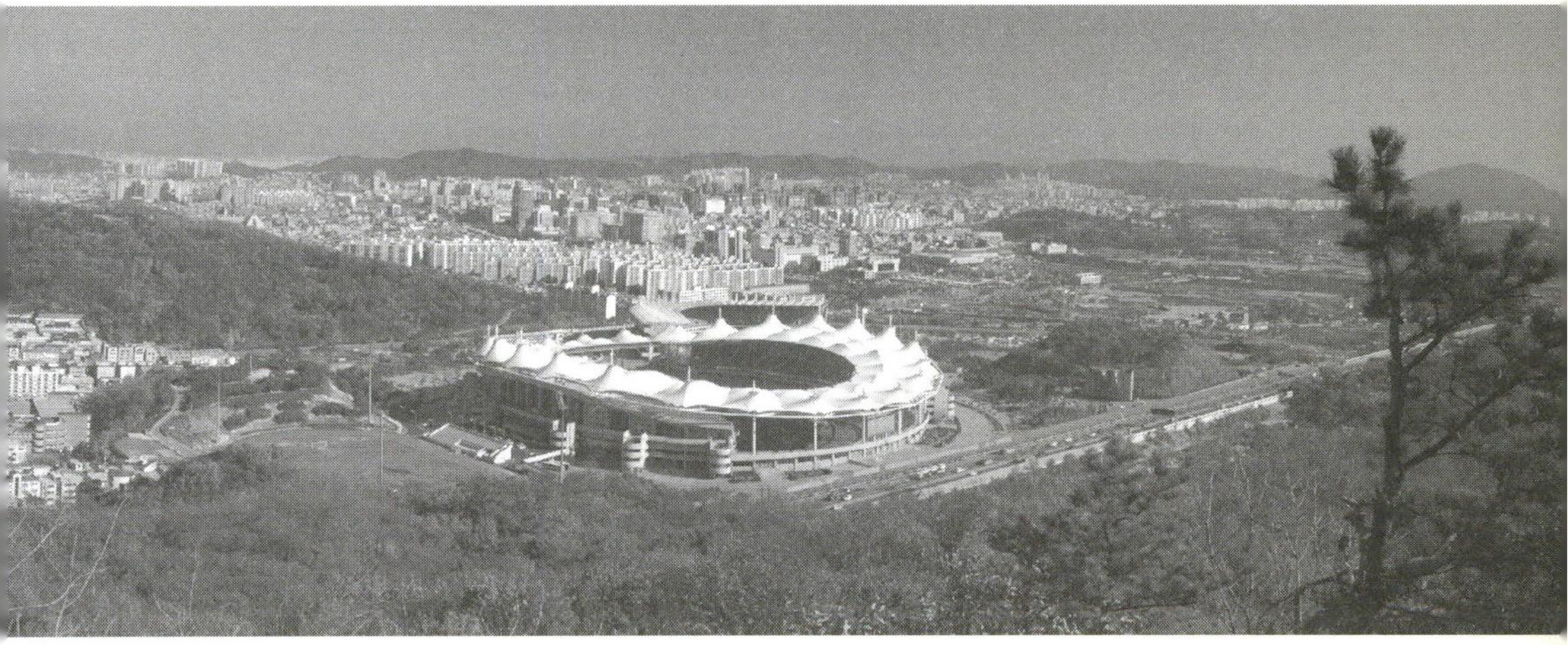


연경산에 있는 약수터



수리봉에서 문학경기장을 내려다보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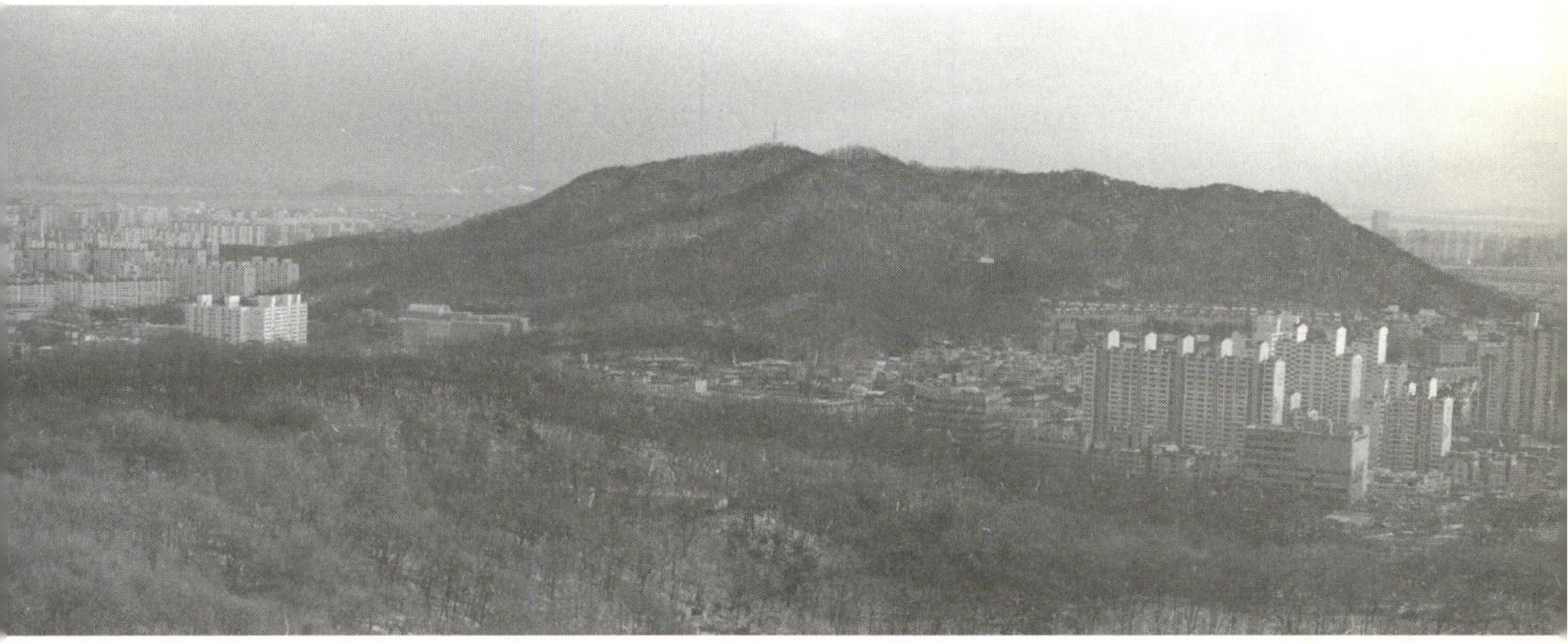




수리봉에서 내려다 본 남구



산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문학산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노적산에서 본 문학산, 연수구와 청량산

지금의 문학산은…

김희주 · 이영민 · 이희환









문학산과 옛이야기

김희주 (인천역사문화연구회장)

이야기를 시작하며

인천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누워있는 문학산은 조선시대에는 인천도호부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하여 남산이라고도 불렸으며, 학의 모습과 같다하여 학산, 산꼭대기에 봉수대가 있어 봉화둑산이라 불려왔다. 또한 산 정상부에 산성이 있어서 성산, 봉화의 모양이 멀리서 바라보면 배꼽과 같아 배꼽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문학산이란 이름은 산 북쪽 기슭에 학산서원이 생긴 이후부터 사료에 나타난다.

문학산을 빼놓고 인천의 역사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학산은 인천이 우리 역사에 등장할 무렵부터 항상 인천의 역사와 함께 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당시 토착세력이었던 부인 소서노는 외부세력이었던 주몽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주몽이 죽게되면 두 아들 비류 · 온조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인간사가 언제나 예측한대로 되는 것은 아니듯이 뜻하지 않게 부여에서 온 주몽의 큰아들 '유리' 로 하여 비류와 온조는 왕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어머니 소서노와 함께 비류와 온조는 유리를 피해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남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온조는 한강 유역에 '십제' 라는 나라를 세우고 비류는 온조와 갈라져 미추홀(지금의 인천)에 나라를 세운다. 이후 온조의 나라를 둘러본 비류가 백성들이 평안히 사는 것을 보고 고집을 부린 것을 후회해 자살하여 비류의 나라와 온조의 나라가 통합하여 '백제' 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삼국사기). 〈여지도서〉 인천도호부 고적조에는 '문학산 정상은 미추왕(비류)의 고도' 라 하였고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문학산에는 비류의 성터가 있고 성내에는 비류가 파 놓은 우물이 남아 있다(백제우물)' 고 하였다. 〈세종실록〉에도 '인천에 성이 있어 이곳을 미추홀 고성 혹은 남산고성이라고 불렀는데 성내엔 작은 샘도 있다' 고 전하고 있다.


미추왕릉이라 불렸던 문학산 봉수

문학산 정상부에 남아있는 산성은 여러 시대를 거쳐 오며 보수했을 것이다. 임진왜란 때는 부사 김민선이 산성을 수리하고 백성들과 함께 왜적으로부터 산성을 지켜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때 왜군은 문학산성을 탈환하기 위

하여 문학산성 동문밖 일백여 보 되는 곳(수리봉)에 왜성을 쌓고 대치하였지만 결국 문학산성을 함락시키는데는 실패하고 만다.

이렇듯 오랜 세월 인천과 함께 한 문학산에는 그 세월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문학산성 성벽 원경

이제 그 이야기의 흔적을 찾아나서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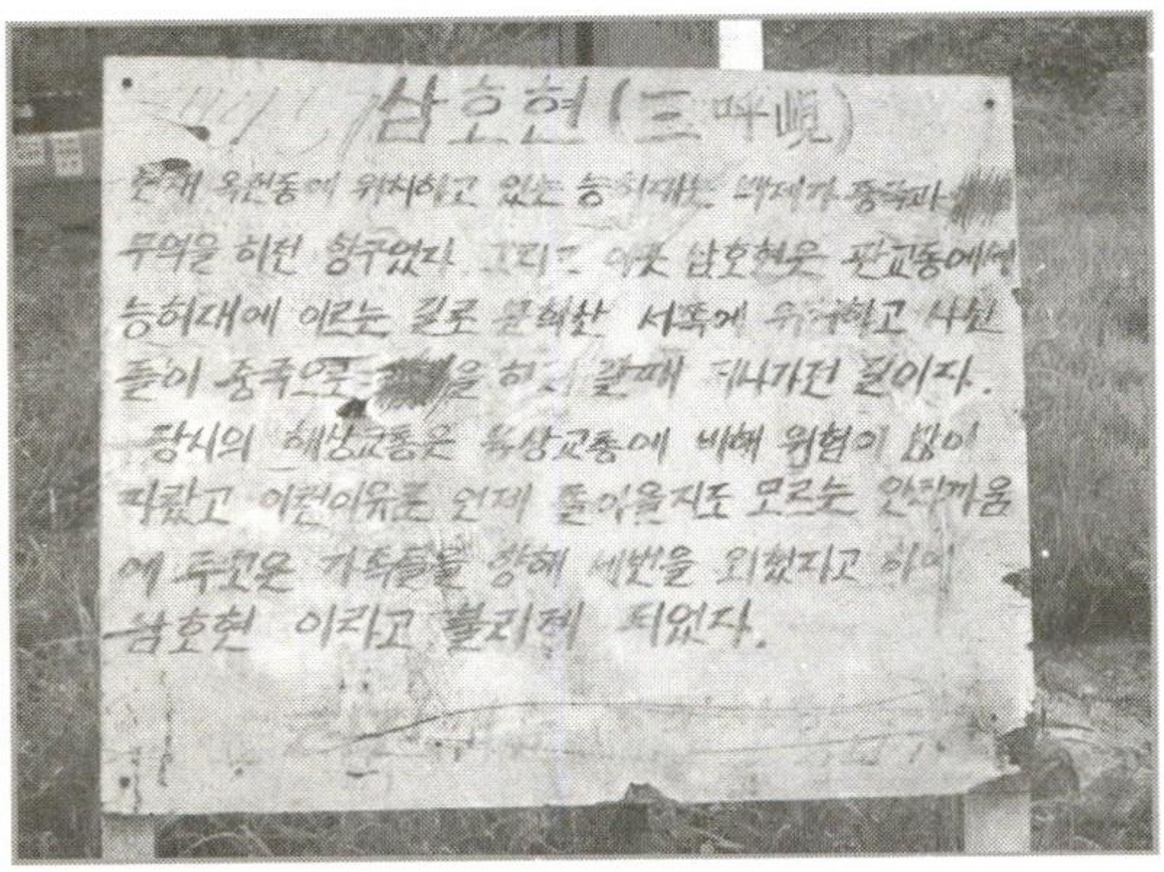
사람이 머물다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다. 따라서 옛이야기 역시 당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에 밀집되어있기 마련이다. 문학산 일대의 옛 교통로는 지금의 주 등산로와는 다른 사모지고개 일대이다.

사모지 고개

사모지고개는 현재 문학터널이 뚫고 간 문학산 주봉과 연경산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는 송도 앞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팔러 가는 주민들은 물론, 백제시대에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도 이 고개를 넘어 능허대 한나루에서 배를 탔다고 전해지는 만큼 인천에서 주요한 교통로였다.

예전 같으면 문학산터널로 진입하는 사거리 쯤에 고개로 올라가는 산길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터널 옆으로 난 산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말이 산길이지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서 대형 자동차도 다닐 만큼 포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처럼 산을 찾았다는 뿌듯함이 시작하기도 전에 반쯤은 퇴색되어 버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갯마루가 보일만한 곳에 가면 길 양옆으로 영양탕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섰다. 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를 잡기도 하기 때문에 개 짖는 소리에 코를 찌르는 누린내까지 기다리고 있다. 귀를 닫고 코를 막고 식당가를 벗어나면 호젓한 산길이 나타나 내심 반갑지만 가까이가면 이제 눈까지 감아버리고 싶은 광경이 나타난다. 길이 패이고 깨진 병조각들이 도처에 깔려있다. 자칫 넘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개 짖는 소리, 누린내, 패인 산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제야 반갑다. 사모지고개는 '삼호현三呼峴' 에서 비롯한 것이다. 임금의 명으로 중국으로 가게 된 사신은 '이별고개(성현)' 에서 따라온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고 홀로 길을 재촉하여 사모지고개에 이른다. 이때 뒤를 돌아 아직도 이별고개를 떠나지 못한 가족들을 향해 '잘 있으라' 는 소리를 크게 세 번 외치고 고개를 넘었다고 하여 '삼호현' 이라 했다고 한다. 한창 여름 때 숲이 우거진



삼호현의 유래를 설명해주는 팻말

고개에서 남동구쪽 다른 고개가 보였을 리 없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사행길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신의 발길을 잡았으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사연을 알고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다행이 사모지고개 한 켠에 '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 의 설명 팻말이 서 있다. 하지만 나무 판넬로 만든 팻말이라 시일이 지나다보니 비바람에 누더기가 되고 심지어 사람들의 낙서까지 뒤덮여 오히려 흉물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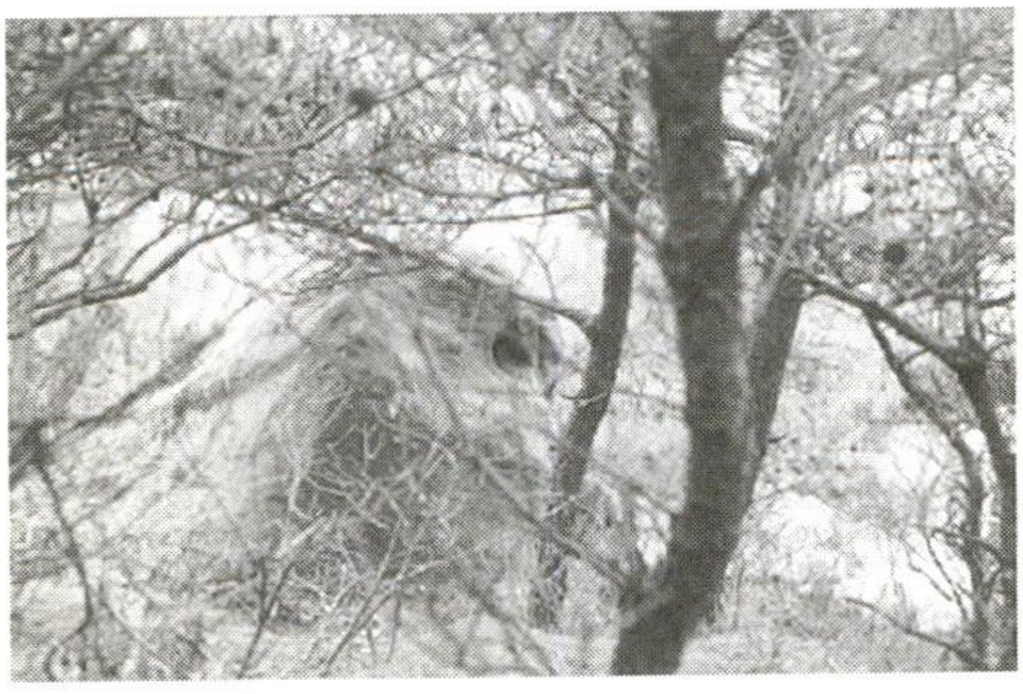
팻말 뒤쪽으로 철조망에 군사지역이니 접근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보인다. 그 너머가 문학산 주봉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봉화대, 안관당, 백제우물 등 이야기로 전해오는 유산들이 모두 그 길 너머에 문학산 정상부에 있었다. 하지만 해방 후 미군부대에 이어 군부대가 주둔하며 유적들이 모두 사라졌다. 예전에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답사했을 때 남아있는 산성의 일부만 확인했을 뿐이다. 당시 안내를 해주던 부대관계자에 따르면 봉수대터나 안관당터, 백제우물 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백제우물터의 경우 그대로 매립했기 때문에 복원도 가능할 것이라 한다. 모쪼록 문학산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시설을 복원하여 옛 모습을 찾게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술바위와 갑옷바위

사모지고개 양 옆으로 재미난 옛이야기가 전해오는 바위가 두 개 있다.

그 중 한 바위에는 신기하게도 술이 나왔다고 한다. 지나가는 길손이 고개에 접어들어 쉬어갈라치면 바위에서 여인이 나와 술 석 잔을 권하고 들어간다

고 한다. 이때 술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지만 딱 석 잔만 허용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이 근처를 지나던 중이 술 석 잔을 비우고 욕심을 부려 더 마시려 하자 여인은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사모지고개에서 연수구 청학동 쪽으로 10m 정도 내려가면 좌측에 주발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바위가 보인다. 그 바위가 사술바위다.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전설의 고향' 에서 소재로 다루기도 했다. 학생들과 답사길에 나서서 그 바위를 설명하고 있노라면 지나가던 등산객들도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만큼 전설 자체가 재미가 있다.



지금도 사모지고개에 커피 파는 아줌마가 있는 것을 보니 예나 지금이나 사모지고개는 고개를 넘던 사람들이 쉬어가며 목을 축이기 딱 좋은 곳이었나 보다.

술바위 맞은 편에 철조망을 두른 개인 묘역이 있다. 그 안에 함지 두 개를 포개놓은 것 같은 바위가 갑옷바위이다. 이 갑옷바위에도 재미난 옛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어느 장수가 갑옷과 투구를 땅에 묻고 나서 바위를 덮고, 또 다른 바위로 그 위를 덮어 놓았다고 한다. 그후 누가 이 갑옷을 꺼내려고 함부로 바위를 건드리면 큰 일이 난다는 전설이 있어 이 바위를 갑옷바위, 함바위라고 부르며 신성시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금기는 오히려 강력한 호기심을 불러온다. 지금으로부터 한 이백년전 안관당을 지키던 안관당지기가 궁금증을 참지못해 뚜껑을 열어보려고 도끼로 바위를 치다가 결국 벼락을 맞았다고 한

다. 이 바위 덮개의 아랫부분이 깨져나간 것 같은 자국은 그 당시 안관당지기가 도끼로 친 흔적이라고 한다.

황부사바위

고개에서 청학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청학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온다. 청학사 입구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비석의 모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거기에 '인천부사 황공 운조 청백선정비' 라고 씌어 있다. 원래 이 비석은 사모지고개에서 청학사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있었는데 옮겨온 것이라 한다.

황운조는 조선조 정조 때 인천도호부 부사를 역임하면서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었다고 한다. 지방의 사또가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주민들이 선정비를 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처럼 큰 바위에 선정비를 음각한 것은 특이한 일이라고 한다. 인천지역의 송덕비는 인천향교 앞쪽에 모아두고 있다. 그런데 황운조의 선정비가 거기에도 두개나 있다. 황운조가 인천도호부 부



청학사 입구로 옮겨진 황운조선정비

사로 재임한 것이 모두 두 차례(1797.7~ 1798.12, 1799.1~1800.2)인데 세 비석 모두 1799년 두 번째 재임 중에 세운 것이다. 선정비의 뜻은 후대로 갈수록 퇴색해서 가렴주구한 사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핍박해서 강압에 의해 세우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고부의 조병갑은 먼저 고부군수로 재직하던 중 백성들을 수탈한 제 아비의 송덕비를 강제로 세우게 해서 고부농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조선 후기 인천에 세워진 송덕비들의 면면을 보면 윤태긍, 구완식, 윤협, 박제성의 송덕비가 모두 재임 중에 설치되었고 가장 늦게 세운 송덕비의 주인공은 을사오적 중 하나인 박제순의 송덕비이다. 재임 중에 비를 만들었다 해서 혹은 이후 나라를 팔아먹었다 해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객관성이 없지만 송덕비가 세워졌다 해서 무조건 선정을 베풀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무리한 것이다.

학산서원터

산 아래로 내려가면 백제우물이라 전해지는 작은 우물터가 있지만 남구 쪽 산자락에 자리한 학산서원 터를 보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사모지고개에서 다시 남구쪽으로 내려가 영양탕 식당가를 지나면 포장도로가 시작되는 길목에 두 갈래 길이 나온다. 거기서 왼쪽으로 길을 잡아 아래로 쭉 내려가면 길이 끝날 무렵 작은 표지석이 나온다. 학산서원터 표지석이다.

문학산의 명칭유래가 된 학산서원은 숙종 28년(1702)에 창건되었다. 인천부사로 있으면서 학문과 교화에 힘썼던 이단상을 추모하는 서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역 유림들이 청원을 올렸고 국왕이 허가하여 세워진 것이다. 이후 고종 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정리조치에 따라 문을 닫게 되었다. 1949년 만해도 건물 초석이 남아있었고 50년대 서원터 표지석을 세웠지만 문학터널 공사로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사학기관으로 당시 관학인 향교와 함께 인천 교육의 한 몫을 담당했을 서원의 흔적이 개발로 인해 사라진 것이다. 현재 있는 표지석은 학산문화원에서 최근에 건립한 것이다.



학산서원터 표지석 제막식

이야기를 마치며

일년에 두차례 남구청소년 역사기행으로 문학산을 답사하며 위에서 열거한 이야기흔적을 찾아보지만 고작 80명 정도에 불과한 인원이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문학산을 오르내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문학산의 옛이야기를 모른 채 산을 이용하고 있다. 남구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인천의 행정적·교육적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도심으로 빛바랜 동네로 퇴색해가고 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사람들은 하나둘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을 고려한다.

'사랑하면 알게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조선시대 시인의 글귀이다.

내고장을 사랑하는 것, 문학산을 사랑하는 일은 문학산 바로알기에서 출발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문학산의 옛이야기를 알고, 그래서 사랑하고 문학산을 지키려는 노력에 나서게 된다면 우리 고장도 살고 싶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인천의 지형환경 특성과 문학산의 도시지리적 기능

이영민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흔히들 인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던 포구, 제물포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그 역사의 일천성을 지적하곤 한다. 일제에 의한 개항으로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동안의 괄목할만한 도시 성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지인들의 편협한 지역사 인식과는 달리 인천에 제법 연고가 깊어 "배꼽산"이라는 명칭을 아는 인천 사람들은 개항 이전의 인천의 역사가 매우 유서 깊어 그 뿌리가 비류백제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제법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한 역사성의 중심에 문학산이 있다. 외세에 의한 개항과 근대화의 동력으로서의 외생적 공업화 정책에 주목한다면, 수천년의 세월을 묵묵히 이어오며 인천의 뿌리터럭들을 오롯이 감싸고 있는 문학산 줄기가 왜소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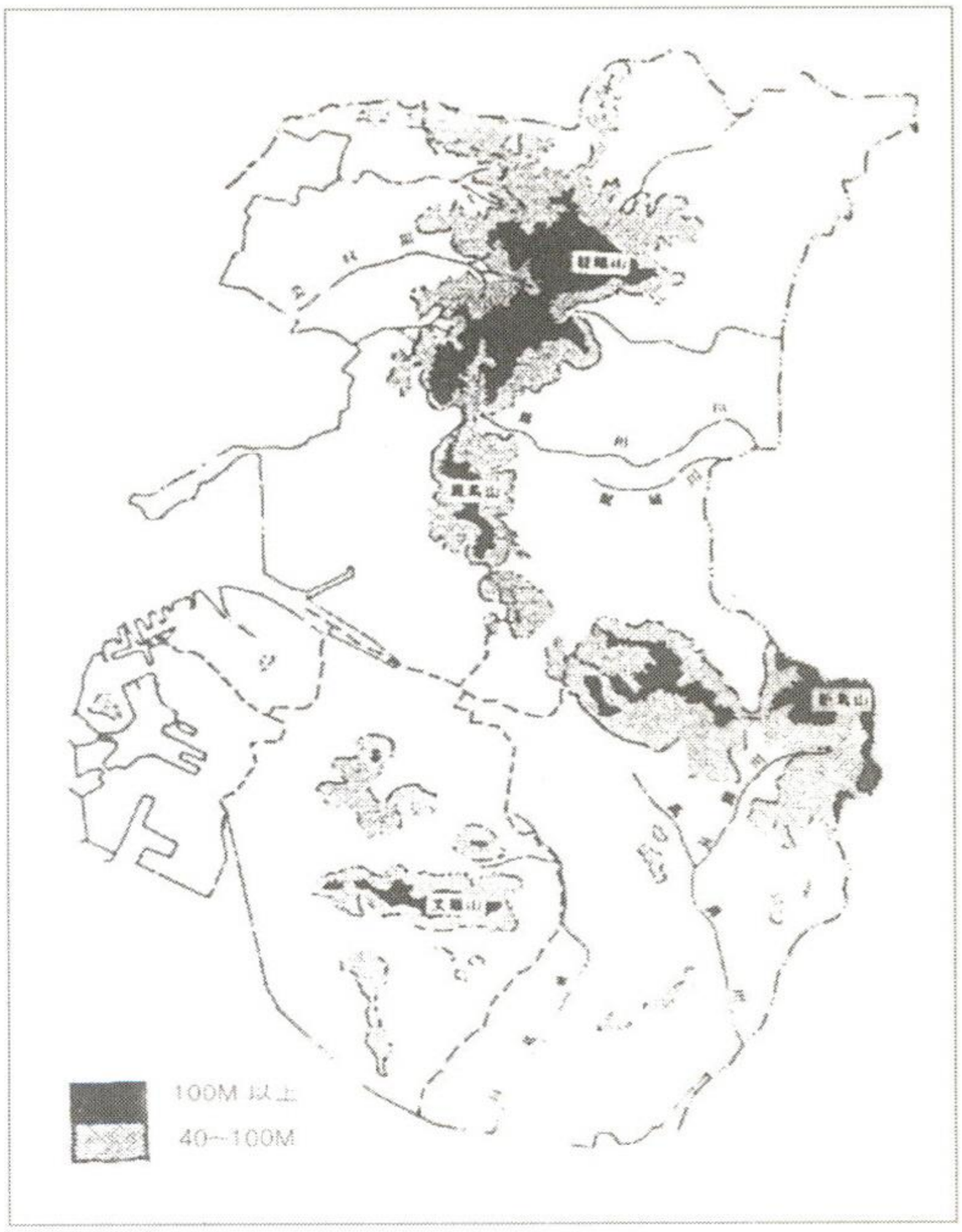
문학산은 인천의 자연적 토대의 근간을 구성하면서 장구한 세월동안 인천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써 기능하여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학산의 가치 재평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편승하여 거대도시로 팽창해 가고 있는 인천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문학산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인천 도시구조 형성과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를 간략히 검토해 볼 것이다. 그리고 문학산이 인천의 도시지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도시경관 상에서의 의미를 역사문화적 정체성 상징의 기능, 도시공간 분화의 경계 기능, 도시녹지로서의 생태적 기능 등의 3가지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인천의 지형환경과 도시경관의 변화

강화를 제외한 인천의 산지 지형은 산줄기의 이어짐 방향과 특성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그림1 참조) 먼저 북쪽 김포와의 경계부에 우뚝 솟아있는 계양산(395m)으로부터 남쪽으로 가현산(215m), 가정동 철마산(227)으로 뚜렷한 맥세를 보이다가 잠시 끊어진 후 다시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만수동 철마산(201m), 거마산(209m), 성주산(205m)으로 이어지는 ㄴ자 모양의 산줄기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 산지인식 체계에서 소위 한남정맥에 포함되는데, 인천시와 시흥시의 경계부에 위치한 소래산(299m)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산줄기는 인천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맥세가 뚜렷하여 전통적으로 인천과 부평을 다른 행정구

역으로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였었다. 지금도 부평구, 계양구와 서구를 나누는 경계선이며, 부평구와 남동구를 나누는 경계선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그림1〉 인천의 산지 및 하천 환경

남북방향으로 달리는 계양산에서 철마산까지의 산줄기는 그 서쪽이 구舊해안선에 인접해 있는데, 후빙기에 들어서면서 곡지谷地가 개석開析되어 만입부를 이루었었다. 이후 거주민들에 의한 환경개조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만입부 바깥에 섬들을 이용하여 방조제가 구축되었고 이에 따라 육지화된 땅이 염전이나 농경지로 개발되었다. 가장 최근에 대규모로 간척되어 개발 방향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청라지구도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이 산줄기의 동쪽에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굴포천과 청천천 등 하천이 관통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충적평야가 그 하류인 부평, 부천, 김포 일대에 넓게 발달하였다. 한때 부평평야라는 이름으로 벼농사가 집중 재배되어 우리나라 굴지의 곡창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지금은 인천 계산 · 삼산 지구, 부천 중동 · 상동 지구 등의 대규모 아

파트 밀집지역이나 청천동, 효성동 일대의 대규모 공업지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조선시대에 한강과 현 인천교의 갯골을 잇는 김포굴포공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이 공사는 한강하구를 따라 염하鹽河를 돌아 서해안에 이르는 기존 해로를 단축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루어졌지만, 원통이고개의 암반을 굴착할 수 없어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두 번째의 또 다른 走向의 산지는 인천의 구중심지에 동서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구릉성 산지들이다. 월미산(93.8m), 응봉산(81.6m), 송림산(59m), 도화산(51m), 수봉산(111.8m) 등 낮은 구릉들이 구도심의 해안에서부터 간석동 일대까지 고립적으로 분포하여, 상술한 북—남—동남 走向의 산지와 만나고 있다. 이 구릉성 고립산지 주변의 谷地는 갯골을 통하여 드나들던 작은 선박의 선착장이었다. 현재의 경인고속도로 가좌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만입하여 주안을 지나 간석동까지 이어져 있던 이 거대한 갯골은 북—남—동남 走向의 산지와 구도심으로부터 동—서로 달리는 구릉성 산지 사이에 형성된 만입으로서 일대는 넓은 간석지였고, 이 갯골에 이어진 좁은 해도를 통하여 작은 배들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곤 하였다. 동인천역에서 도원동 황골고개 사이의 배다리는 그 지명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만조시 해도가 열렸던 선착장이었다. 이 갯골 일대는 넓은 간석지가 발달하였는데, 간척에 의해 염전과 농경지로 활용되었고, 나중에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인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업단지로 개발되었다. 또한 주택지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구중심지의 신포동, 답동, 배다리, 주안 일대에는 펄이 두꺼운 지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과거 해안이었거나, 갯골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인천항 북쪽의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송림동 일대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임해공업지역으로 성장

하게 되었으며 주안방면 내륙 쪽으로는 천일제염으로 유명하였던 주안염전이 형성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 수출 5공단, 6공단, 제재공단, 기계공단 등이 조성되어 있다. 본 구도심 동—서방향 산지의 낮은 구릉들은 여러 개의 단위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들을 연결하여 주는 화도고개, 싸리재, 황골고개, 독쟁이고개 등을 따라 도로망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 산줄기는 인천 육지부의 남쪽을 가로지르고 있는 문학산과 그 주변의 산지들이다. 이 산줄기는 현재 인천의 남쪽에서 동—서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구도심의 동—서 방향 산지보다는 그 규모도 크고(100~200m 정도), 또한 연속성을 가진다(약 5km 정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림2 참조) 동쪽에서 서쪽 해안 방향으로 길마산, 수리봉, 문학산, 연경산, 서달산, 노적봉 등으로 이어지는 문학산 주변의 연속산지는 인천의 시가지가 남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왔는데, 최근에는 그 산지의 남쪽에 대규모 주택단지인 연수지구가 개발되었고, 행정적으로 남구와 연수구를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그림2〉 문학산 주변의 산지지형 분포
자료 : 인천광역시사, 2002

있다. 문학산 중심의 동서방향 산줄기는, 현재 북쪽으로는 기성 시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주안 지역, 남쪽으로는 일종의 신도시로 최근에 조성된 연수동 아파트지구, 동쪽으로는 인천의 새로운 중심업무지구로 부상하고 있는 구월지구, 서쪽으로는 해안에 인접하여 구도심지구에 둘러싸여 일종의 고립된 산지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도시화를 경험한 인천에서, 아직도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문학산 일대의 산지는 더욱 더 소중할 수 밖에 없는 보석과도 같은 도시자산이다. 문학산 산줄기는 전술하였듯이 인천 역사의 뿌리로서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천의 급속한 도시 성장에 따른 도시기능의 확대 과정에서 적절한 공간적 분화를 유도한 각 지구들의 경계선 역할을 수행하였고, 삭막한 공업도시 인천의 환경 파괴의 과정에서 홀로 남아 더욱 빛을 발하는 귀중한 녹지공간으로써 그 역할 수행해 왔다. 다음 장에서 문학산의 이러한 도시공간상의 역할과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인천의 상징공간 문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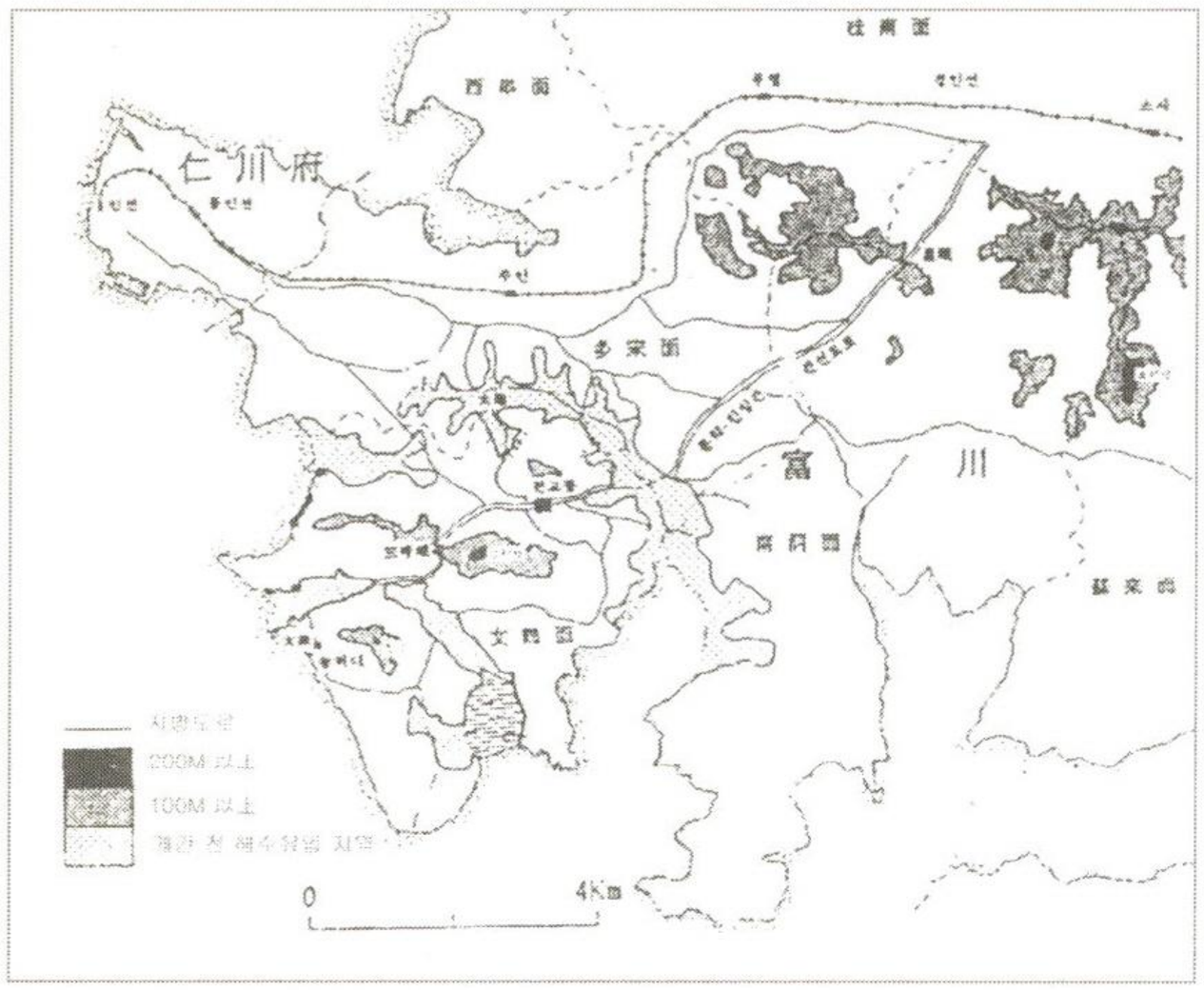
문학산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연속된 산지의 북사면과 승학산(122m) 사이의 관교동, 문학동 일대는 좁은 분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개항 전까지 인천도호부의 치소治所가 입지하였었고, 현재에도 향교와 도호부청사 일부가 보존되고 있다. 이 일대지역의 인간거주의 역사는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비록 짧긴 하지만 비류백제가 자리잡았었고, 역사시대 내내

한양의 서남부의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 중심지로써 자리잡았었다. 이미 각종 관련 유물, 유적들이 인천 향토사학계에 보고되고 있고, 차후에도 구체적인 유물, 유적 발굴 및 역사경관 복원 작업이 계획 · 추진 중에 있다.

문학산 산지지역 중앙의 최고봉인 문학산(233m) 정상부에는 넓은 평탄면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 평탄면에는 백제 비류왕이 쌓았다는 고성이 남아있다. 삼국사기지리지 한산주조에 따르면 인천의 고지명인 미추홀의 위치를 문학산정이라 하였다. 또한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읍지 등의 기록에는 문학산성을 남산고성南山古城 혹은 미추홀고성彌鄒忽古城이라 부르고 있으며, 미추왕릉이 있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이 문학산지의 남사면과 북사면, 그리고 그 아래의 평야지대를 따라서는 패총, 지석묘, 돌칼, 돌화살 등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집중 발견되고 있어 아주 오래된 주거지역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왜 비류백제는 지속적으로 독립, 성장하지 못하고 성읍국가의 수준에서 온조백제에 병합되었을까? 이는 당시의 지리적 특색, 즉 간척 이전의 原해안선을 대략 복원해 봄으로써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일부 설명이 가능해지리라고 본다. 인천지역은 조석간만의 차가 무려 10m에 이르고 따라서 현재의 해발 10m 이하의 대부분 지역은 만조시 해수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림3 참조) 따라서 관교동 일대는 삼면이 해수로 둘러싸여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요새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류는 도읍지를 선택할 당시 온조와 마찬가지로 방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을 것이고 본지역은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 분지지역은 외부침입을 막고 지역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그 물적 토대가 열악하여 대규모의 도읍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그림3〉 과거 인천의 해안과 문학산 주변지역

있었다. 본지역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농경과 취락발달에 매우 불리한 곳이었다. 인천의 옛지명인 미추彌鄒는 '매소買召'라고 발음되는 부여어의 한자식 표기이다. 매는 '거칠다'는 뜻과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買召란 '거친 들판(맷골)' 또는 '물로 둘러싸인 고을'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따르면 물적 토대가 건실한 환경조건, 즉 지리, 생리, 인심, 산수의 4대 거주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는 大邑이 입지하여 농경사회에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문학산 일대는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물적 토대의 조건이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는 하나 인구지지력을 결정짓는 배후농경지의 규모는 협소하였고 토질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림 3〉 상에서 '대지大池'라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 주안 시가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막은데미'라고 불리어졌으며 고려중기때 축조된 저수지였다. 大池 일대의 지역은 해수가 현재의 승기천을 따라 침투하였다. 과거에 이 지역은 구릉지를 제외하고는 하천과 조류潮流가 퇴적시킨 펄로 이루어진 평야지역이었고 남동염전으로 개발되어 주안염전과 더불어 인천 제염업의 핵심

을 이루었다. 현재 인하대학교가 위치한 학익동 쪽으로도 해수가 침투하여 본 문학산 일대는 하나의 반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학산과 청량산 사이도 해수가 침투하여 청량산 일대도 하나의 반도였으며 옥련동과 청학동 사이의 낮은 고개만이 삼호현 고개를 지나 관교동 일대 인천구읍으로 통하는 유일한 육교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해수가 침투한 지역은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산지들 사이로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간석지는 염생습지로 변하였거나 점차적으로 간척이 진행되어 염전이나 농경지로 개간되었다. 나중에는 연수동지역과 같이 주거지로 변화되거나 남동공단과 같은 대규모 공업단지로 변화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복잡한 해안선은 직선화되었던 것이다.

4. 도시 기능의 공간분화와 문학산의 역할

도시는 인구 수의 밀집도와 도시기능의 집적를 기준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개념이다. 제한된 면적에 많은 수의 인구가 밀도 높게 거주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도시라고 부르지만, 단지 인구수의 많고 적음이 도시 개념 규정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은 아니다. 소위 도시기능들이 입지하고 있어야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고 그 고용을 좇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한마디로 비농업적 기능이 충분히 창출되어 있어야 도시가 조성되는 것이다. 1차산업에 비해 2차 · 3차 산업은 부가가치가 크기에 고용 창출 능력도 크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데 이러한 2차 · 3차 산업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천의 최근까지의 도시 성장은 인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공업지역의 고용과 생산에 힘입은 바가 크고, 따라서 지금도 한국의 여타 대도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용인원과 생산액의 측면에서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도시 성장과 관련하여 도시의 기능을 크게 기반활동basic sector과 비기반활동non-basic sector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반활동이란 특정 도시에서 외부로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활동들이고 비기반활동이란 도시 내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말한다. 인천의 경우 2차 산업인 제조업 부문이 인천의 도시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그 파급효과는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다다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이 "회색도시"라는 표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0년대 이후 인천은 제조업을 통하여 도시의 인구가 팽창되었고, 전통 굴뚝산업을 근간으로 한 제조업 지역의 확대는 도시 환경이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인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 내부 거주민들에게 제공될 상업, 서비스업의 3차산업도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도시 내부 거주민들에게 공급되어야 할 3차산업도 성장하면서 고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기반활동인 것이다.

이처럼 도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시의 기능이 다변화되고 또한 그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화 내지는 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 기능의 공간적 분화는 특정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적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하는 도시정부의 노력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인천의 경우 개항 이후 구도심 일대에 조성되었던 도시의 권역이 경인선 철도와 경인 국도를 축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고, 산업화시대 이후에는 주안과 부평에 조성된 공업단지가 인

천 도시구조를 독특한 방식으로 형성시키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인천의 중심업무기능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되어 인천 외곽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마치 전문화된 여러 개의 판조각들이 서로 맞대어 펼쳐져있는 모양으로 인천의 도시공간이 기능적으로 분할되면서 변화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인천 도시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문학산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을까? 구한말 개항과 더불어 전통적인 인천의 중심지였던 문학산 북쪽 관교동 일대는 그 중심기능을 상실한 채 한적한 농촌의 경관을 지닌 구읍으로 전락하였었다.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도 그 일대의 지역은 여전히 도시 성장의 축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으로써 남아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과 인천을 잇는 대동맥인 경인선 철도와 경인 국도 및 고속도로가 도시 기능을 선상으로 배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인구의 집중도 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학산과 주변지역은 그저 인천의 남쪽 외곽으로 전락한 한적한 시골 동네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경인선과 경인 국도를 따라 진행된 주안 지역의 도시화는 남쪽으로 승학산을 포함한 문학산 산지의 북쪽 산록까지 확장되었다. 반면 당시 문학산의 남쪽 연수동 일대에는 과거 간석지를 개간하여 조성된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었고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여 인천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남쪽 연수 지구 넘어에는 최첨단 도시기반시설을 지향하는 송도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다. 이처럼 문학산 산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기능의 공간적 확장을 억제하는 장애물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은 주안지역과 연수지역을 가르는 도시기능의 경계선이자 남구와 연수구를 가르는 행정구역의 경계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문학산 산지는 동쪽으로는 구월동 일대에 새롭게 이전, 조성된 인천의 중심업무지구와 역시 90년대에 들어서 새롭게 조성된 남동공단 지역을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인천항과 그 넘어 구도심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 문학산 산지는 동서남북으로 각기 특화된 독특한 도시기능 지역들을 거느리고 있는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5. 도시녹지공간으로서의 문학산

도시 기능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각 기능지역들을 조화롭게 특화시키는 것이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현재 문학산 산지지역의 인천 도시구조 상의 위상이 매우 가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문학산 산지는 인천의 각 기능지역들이 접합된 완충지대에 놓여있는 귀중한 자연녹지 지역이다. 도시 내에서 자연녹지가 완충지대에 놓이게 될 때 상대적으로 그 가치는 배가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후기산업사회 도시가 가져야할 새로운 도시 기능 지역, 즉 자연녹지 지역의 가치와 역할을 주목하고 또한 재평가해야만 한다.

도시의 자연녹지공간에 대한 재평가는 후기산업사회 및 포스트모던 사회의 도시산업 재구조화 논의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2차산업 중심으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던 시대에는 도시 내의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기능을 입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도시공간 구조 재편 전략의 기조로 삼았기에 도시 내 녹지공간은 유휴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되

었다. 그러나 세계화, 지식 ·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전통적인 2차산업으로 성장을 지속해오던 지역들은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쇠퇴하게 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만 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제는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아닌 지식 · 정보산업, 관광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들은 청정한 지연환경 지역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제 도시 내의 자연녹지는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후기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도시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자연 녹지 환경이 도시의 오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체가 심리적 편안함을 주는, 그래서 지식 · 정보산업에 종사할 고급 노동자들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도시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매력적인 역사 · 문화적 요소들과 어우러질 때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어 도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 것이다.

도시 성장과 관련하여 후기산업사회에서 경쟁력있는 신산업들을 육성함에 있어서 깨끗한 자연환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말고도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도시 거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는 인간적 차원의 도시 관리 목표와 관련하여서도 깨끗한 자연환경은 귀중한 도시자산임에 틀림없다. 도시 거주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도시민들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도시내 공공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산업화시대의 도시내 공공공간은 사적인 이윤 창출을 위한 토지이용 공간으로 잠식되어져 왔고, 그런 가운데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열악하게 만

드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었다. 이러할진대 도시내에서 꿋꿋이 버텨온 자연녹지 지역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천연의 근접 여가공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문학산은 인천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써, 신산업육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의 도시 자연 녹지로써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동서방향의 산줄기는 인천의 여러 기능지역들의 접경에 놓인 완충지로써 기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자체가 귀중한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하나의 기능지역처럼 기능하여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 일대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 유물, 유적들이 복원되고 재현되어 문화와 환경이 접목된 도시 내의 귀중한 여가 · 문화 공간으로써 탈바꿈하고 있다.

6. 맺음말

다행스럽게도 문학산은 최근에 와서 인천의 도시지리, 도시사회 정체성 담론에서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문학산이 갖는 역사 · 문화적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문학산은 인천 역사의 뿌리이다.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의 정주터였고, 이후 각 시대를 거치면서 독특한 역사적 사건들을 만들어내며 인천의 정체성을 형성하여왔다.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만의 특수성 내지는 고유성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문학산은 인천만이 가지고 있

는 고유한 역사의 맥락을 구성해온 중심점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는 인천 도시공간 면적의 확대와 중심지의 내륙으로의 재이동과 관계가 있다. 전근대 시기 인천의 중심지였던 문학산 바로 아래 지금의 관교동 일대는 구한말 개항과 더불어 새로운 중심지가 개항장 일대에 조성되면서 그 중심기능을 상실하게 된 하나의 구읍舊邑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인천 도시화의 뒷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 공업화가 급진전되면서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도시기능이 다양화되어 도시 면적의 확대가 수반되었다. 더불어 여러 도시기능들의 공간적 분화가 진행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문학산 지역은 이제 도시의 외곽이 아닌 중심부로써 재입지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의 이유는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학산이 갖는 자연지리적 위상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산업화의 메카였던 인천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정작 인천이라는 도시공간 상에는 그 혜택과 더불어 환경문제를 던져주었고, "회색도시 인천"라는 지리적 메타포를 선사하였다. 공업도시라는 현실과 회색도시라는 이미지는,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구조화의 요구와 열망이 클 수밖에 없다는 새로운 현실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산업재구조화의 추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가 도시문화이고 또 도시환경이다. 따라서 문학산은 이 시점에서 매우 가치롭게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여지도서』

『동국여지승람』

『삼국사기』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한국지지(지방편 I 서울, 인천, 경기)』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2000,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 다인아트

권현재, 1996, 『한국지리: 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 법문사

오상학, 2005, "인천 지역 고지도의 현황과 주요 지도의 해제",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소, pp.541-574.

이영민, 1999, 인천광역시, 『한국의 도시』, 한국도시지리학회 편, pp.519-540.

이영민, 1997, 문학산 환경보존과 지역개발, 『황해문화』, 통권 16호(97년 가을), pp.276-286

이영민, 2005, 경인철도와 인천의 문화지리적 변화,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소, pp.393-416.

인천발전연구원(편), 2005, 『한권으로 읽는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기획 총서. 다인아트.

인천광역시, 2005, 『인천 바로알기 가이드북』

인천광역시, 2002, 『인천광역시사』,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직할시, 1983, 『인천개항 100년사』

인천직할시,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인천-소래, 인천-시흥 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최영준, 1974, "개항을 전후한 인천의 지리적 연구",『지리학과 지리교육』, 2집, pp.1-38.

한국수자원공사, 인하대학교박물관, 1993, 『굴포천 방수로 건설구간 지표조사보고』

문학산의 귀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운동의 의의

이희환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분단지대로 쇠락했던 도시 인천

月尾公園歸還紀念碑

인천 앞바다의 어여쁜 눈썹, 월미도가 반세기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분쟁과 단절의 바다 黃海가 평화와 교류의 바다로 현신하는 찰나, 월미도가 눈부신 자태로 돌아왔다.

월미도는 보았다, 일본 및 서구 열강이 어떻게 은둔의 왕국, 조선을 위협했는가를!

그리고 월미도는 온몸으로 피흘렸다, 한국동란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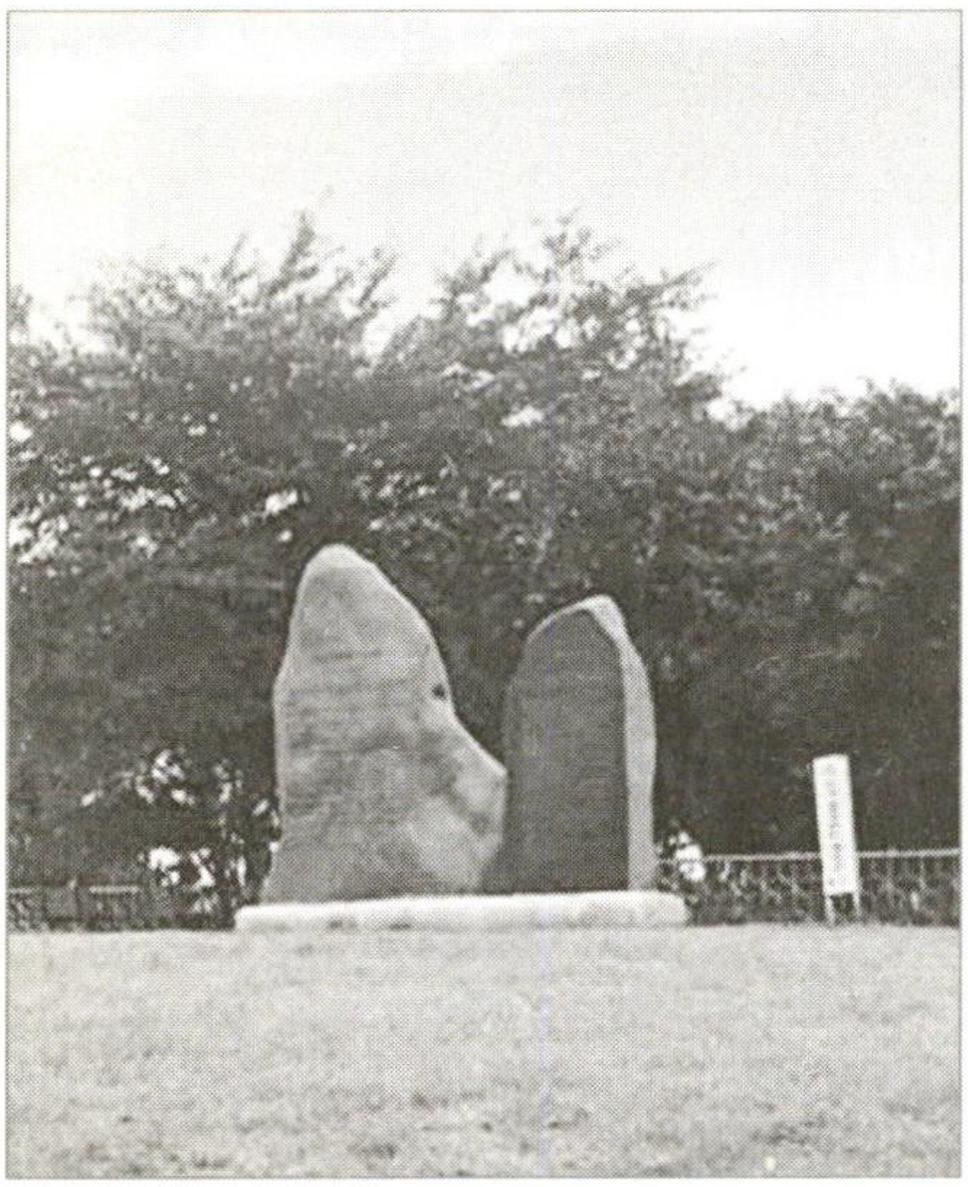
월미도는 그 동안 내내 戰友의 땅, 서해용왕님도 숨고 사람의 발길도 끊어졌다.

아, 우리 모두 월미도의 귀환을 축복하자!

그 비둘기의 傳言이 한반도 전체로, 동아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하며, 월미공원을 삼가, 인천시민과, 평화의 기획에 기꺼이 참여할 세계시민께 바치노라. (최원식 撰)

위 글은 지난 2001년 10월, 분단 50여년 만에 군부대가 나가면서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월미산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인천시가 세운 〈월미공원귀환기념비〉의 비문이다. 이 비문에 압축적으로 표현된 월미도의 불행했던 그러나 비단 월미도만의 그것이 아니었다. 황해가 "분단과 단절의 바다"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분단시대 내내 인천은 서울의 변방에 위치한 임해공업도시로, 문화의 불모지대이자 정체성 없는 도시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하였고, 한 · 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황해가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6 · 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인천은 남과 북을 잇는 교역의 중심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개항을 전후하여 시작된 인천시의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계획 및 트라이포트 계획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전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이어졌다. 바야흐로 동북아시아의 관문도시를 표방한 인천이 분단의 질곡을 넘어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웅비하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월미공원귀환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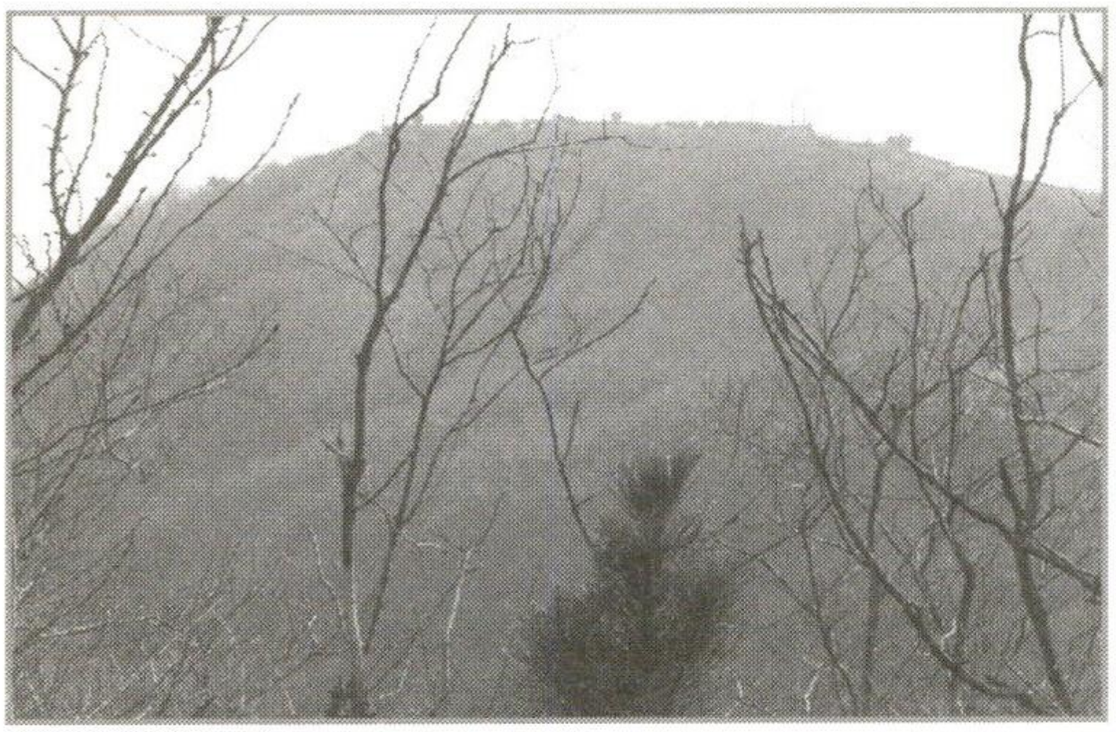
그러나 화려한 외적 조건의 변화와 달리 인천의 도시 내부는 달라지

지 않고 있다. 아직도 분단시대의 온갖 유제들이 도시의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인천 지역은 광역시도 중에서 군사보호지역이 가장 많은 도시로 전체 행정구역 956㎢의 54.55%인 52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양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천의 도심 곳곳이 군부대와 군사기념물로 가득 차 있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옥죄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가 해양 도시 인천의 바닷가마다 둘러쳐 있는 철책선이다. 인천 전체 해안의 50% 이상이 군부대가 둘러친 해안 철책선에 갇혀 있고, 심지어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송도신도시 주변에도 해안철책선이 둘러쳐져 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조차 "송도신도시 해안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선이 뭐냐는 외국투자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곤혹스럽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일전에 월드컵이 열렸던 문학경기장을 찾은 일이 있었다. 평일의 한산한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머니들이 경기장 주변에 마련된 놀이터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도로 건너편에는 인천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천도호부 관아와 향교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인천의 역사를 배우러 나온 어린 유치원생들이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한가로운 풍경을 산산조각 내며,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인천도호부 관아와 향교가 위치한 인천의 주산主山인 승학산의 예비군부대에서 쏟아져나온 총소리였다.

예비군부대가 처음 승학산에 주둔할 당시에 이 지역은 물론 시 외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심이 남동구와 연수구 일원으로 확장되어 이제는 예비군부대가 어느덧 도심의 한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이다. 인천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천도호부 관아가 새롭게 복원되었고, 잇달아 문학경기장이 건립되어 많은



문학산 정상의 군부대 모습

외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들이 만약 이 총소리를 듣는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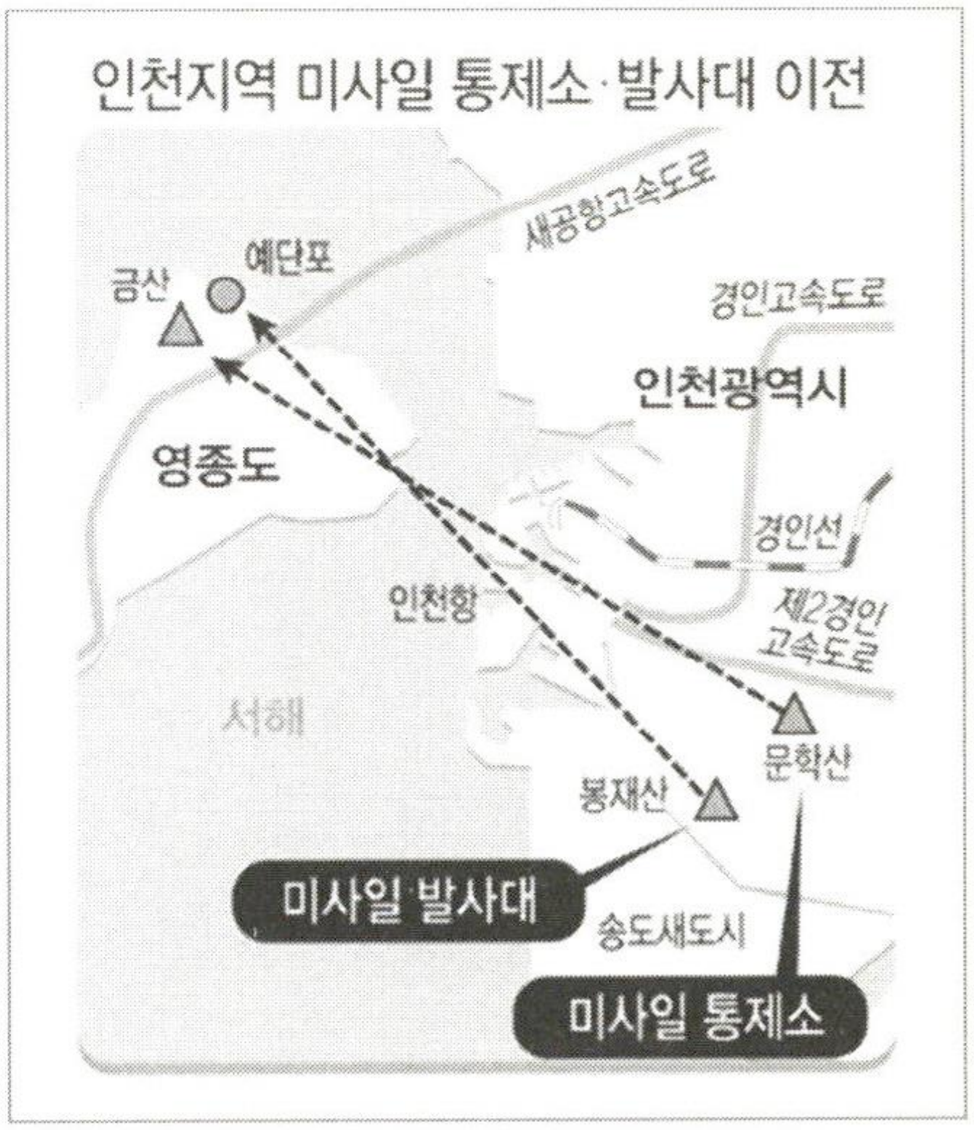
전쟁의 상처와 공포를 덧내는 전쟁 관련 시설은 비단 승학산의 총성뿐만이 아니다. 50년 만에 군부대가 나가면서 생태평화 공원으로 조성중인 월미공원에는 다시 해군의 과시성 주둔기념물이 연평해전의 승리를 찬양하는 부조물과 함께 설치되어 공원을 균열시켜 놓았다. 월미도 해안의 벌컨포부대도 월미공원으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구청에서 이를 적극 거들고 있다고 한다. 연안부두 친수공간에는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소월미도 앞바다에 수장된 러시아 전사자 추모비가 우여곡절 끝에 세워지기도 했다. 또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유공원에는 호전적인 미국장군 맥아더의 동상이 반공주의의 화신으로 40여년을 버티고 있다.

분단의 대가를 가장 혹독하게 치른 곳이 바로 인천 지역이다. 냉전시대에는 '안보' 가 제일의 가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둔 호전적인 '안보지상주의' 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이제 낡은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다. 황해바다와 인천이 이제 "평화와 교류" 의 바다와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 변환기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다. 따라서 '안보' 라는 낡은 미명으로 인천의 도심, 미래의 한가운데 전쟁기념물과 군부대가 똬리를 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전쟁기념물로

분칠된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걷어내고 평화의 미소가 깃든 새로운 도시로 재구축할 때이다.

2. 인천을 짓누르는 문학산 군부대

문학산 정상의 군부대도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짓누르는 대표적인 군사시설이다. 아니, 문학산 정상이야말로 인천시민들이 하루 빨리 되찾아야 할 인천 역사와 문화의 정수리이다. 인천 사람들의 마음의 진산인 문학산, 그 정상에 인천시민이 마음껏 올라가지 못한다니. 그러고서 '인천문화의 정체성' 운운하고, 정주성 있는 도시, 쾌적한 삶의 도시 인천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1950년대 후반 미군 부대가 처음 진주한 이후로 인천시민들은 문학산의 정상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미사일 발사대, 통제소 이전 계획 (〈한겨레신문〉 2005. 3. 17)〉

송도 봉재산의 나이키 미사일 부대와 짝하여 문학산에는 미사일 통제소(레이더)가 위치해 있다. 확장된 인천 도심의 한가운데 위치하게 된 이 두 부대는 지난 1998년 미사일 오발사고를 일으켜 인근 아파트

와 주택가에 무수한 미사일 파편을 흩뿌려 시민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다. 때마침 인천시에서 갯벌을 매립하여 착수한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미사일 부대의 이전은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인천시 사이에서 진행된 미사일부대 이전 부지 협상이 오랜 논란 끝에 영종도로 합의되었으며, 영종도 금산 정상과 예단포에서는 미사일부대 공사가 지난 10월 완공되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2005년 7월 1일부터 봉재산과 문학산의 미사일 부대가 이전을 시작하여 9월까지 이전을 완료한, 실로 40여년 만에 문학산이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느닷없이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재차 배치될 계획이라는 보도가 터져나온 것이다.

대저 문학산이 어떤 산인가. 문학산은 주봉인 문학산을 위시하여 북쪽으로 연경산, 노적산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수리봉과 길마산으로 연이어 너르게 퍼져 있는 작지 않은 산록이다. 천년의 세월 동안 인천이라는 고을을 안온하게 품에 안은, 인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진산이자 생활 속의 진산에 다름 아니다. 인천도호부의 남쪽에 있다 하여 남산南山이라 불리기도 하고, 오랜 옛날 축성되어 내려온 산성이 있기에 성산城山이라고도 기록되었으며, 산세의 형



인천시 기념물 1호인 문학산성의 웅장했던 옛모습

상이 학이 날개를 펴고 앉은 것 같은 모양을 닮았다 하여 학산鶴山이라고도 불렸던 문학산에는 '배꼽산' 이라는 재미있는 이름도 한동안 따라 다녔다. 이 친근한 이름은 고 신태범 박사의 설명처럼,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을 닮은 문학산과 그 한중간에 위치한 봉수대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일 터이다. 1950년대까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원족遠足을 갔었던 '배꼽산' 의 추억은, 그러나 봉수대가 허물어지고 그 이름마저 희미해지면서 가뭇없이 사라졌다.

> 1958년에 동문을 중심으로 성벽의 일부를 개수했고 뒤이어 安官堂 등 사적을 정비하려던 차에 다음해인 1959년에 군사기지로 수용되었다. 정비계획은 중단되었으나 文鶴山城이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중요한 국방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견한 일이라 하겠다. 오랜 세월을 두고 나라를 지켜오던 봉화대는 없어졌으나 최신병기가 그 자리에 앉아 수비하고 있으니 文鶴山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직한 인천의 主山이다.
>
> — 신태범, 『인천 한 세기』, 58~59면.

위의 신태범 박사의 증언대로, 문학산성과 안관당이 있던 문학산정이 군사기지로 수용되고, 1960년부터 정상부를 대대적으로 삭토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1962년부터 미군부대가 상주하기 시작하여 1979년까지 머물렀고, 그 뒤를 이어 한국 공군 미사일 부대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똬리를 틀게 되었던 것이다. 미군부대의 진주 이후 문학산에 남겨진 것이라곤 대규모의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였음이 지난 2001년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환경스

페셜' '숨쉬지 않는 땅, 문학산' 편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00년 6월 미사일 부대 이전후보지로 영종도를 선정해 놓고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으나 영종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며, 이후 군 당국과 재협의 과정에서 영종도 주변 도서 및 연안지역에 걸친 14곳의 이전후보지를 검토하는 등 미사일 부대 이전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다. 결국 2003년 2월 미사일 부대 이전지로 영종도 금산과 예단포가 최종 선정돼 예단포에는 나이키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하고, 금산에는 지휘통제소를 두기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영종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영종 남북도로 조기 완공 및 관광단지 조성 등 대형개발사업을 약속하면서 800억 원이 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문학산 귀환에 대해 인천시민이 가졌던 기대와 인천시의 개발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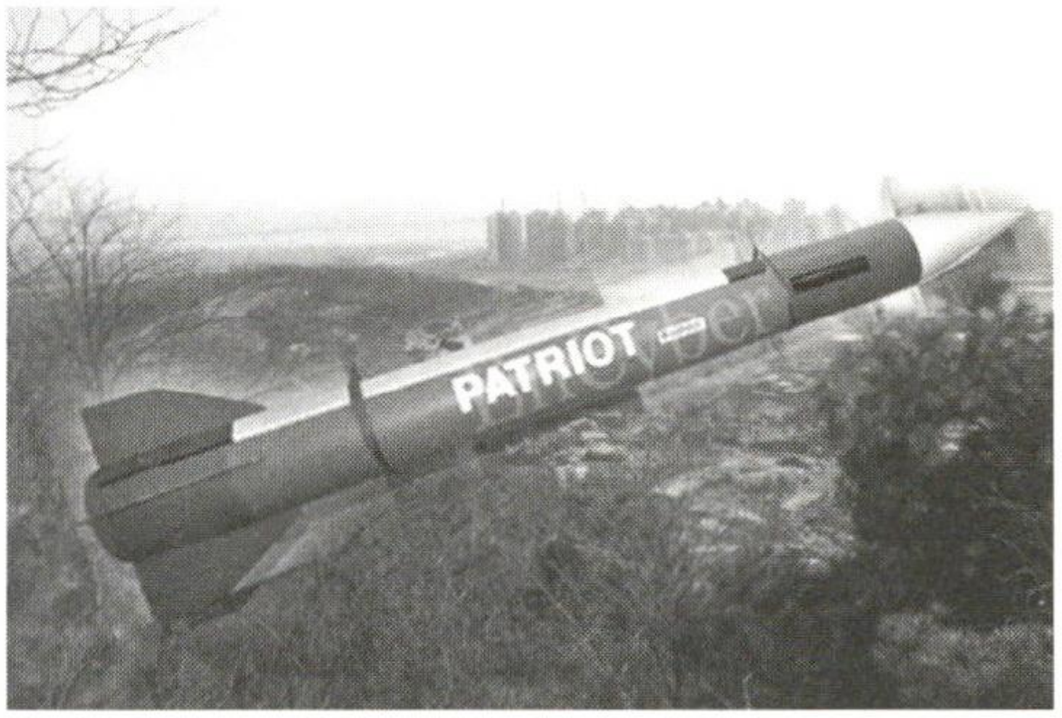
3. 미국의 MD 전략과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2003년 8월 말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최신형인 PAC-3을 광주 · 군산 · 오산 · 수원 등에 모두 64기(8개의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은 한편,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있는 제35 방공포 여단 본부를 오산공군기지로 이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주한미군이 배치한 64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운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PAC-3의 정확한 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개 포대에 PAC-2는 4기를, PAC-3는 16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4기의 패트리어트 가운데 PAC-3는 40~50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PAC-3가 200기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미국이 한국을 최우선적인 MD 배치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는 것과 함께, '합동전술지상기지(Joint Tactical Ground Station)' 라고 불리는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다. 한미연합사에는 'CJTMOC' 라는 기구를 만들어 MD 작전 교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을지포커스 렌즈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MD 작전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을 최우선적인 MD 배치 지역으로 삼고 관련 무기체계의 배치 및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 및 중국을 상대로 하는 신군사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방에 배치되었던 주한미군 병력이 일부 감축되면서 오산 · 평택기지로 후방 배치되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만 무력화시킨다면 북한의 군사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미국이 크게 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선



국방부가 문학산에 배치할 계획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공격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과 함께, MD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MD 전략에 발맞추어 우리 국방부에서는 지난 1997년 5월부터 차기유도무기SAM-X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배치 위치를 확정, 문학산을 비롯하여 모두 12곳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을 세워놓았다. 문학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입수한 국방부 문서 〈문학산 SAM-X 배치 및 인천포대 이전〉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도권에 대한 항공기 및 탄도탄 방어를 위해 문학산에 SAM-X 배치가 필수적"이라면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약 1조 1,005억 원을 투자하여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으로 차기유도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를 문학산을 비롯한 12곳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인천 봉재산의 미사일 발사대는 영종도 금산과 예단포로 이전하나, 미사일 사격통제대가 있던 문학산은 이전 지역에서 제외하며, 이미 이러한 사항을 "인천시와 기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대이전 관련 민원사항은 인천시에서 책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문학산에 배치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독일이 통일 이후에 필요가 없어져 처치가 곤란한 잉여장비를 들여오는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미국 로키드마틴사 제작의 최신형이 아닌 PAC-2 개량형일 것이다. 지난해 국방부가 2005년도 국방 예산(안)에 착수금조로 100억을 요구했다가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미국의 MD체제 편입논란과 더불어 과도한 국방비 부담으로 국방부가 제출한 SAM-X 사업예산은 타당성이 없다고 전액 삭감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예산

안을 다시 부활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다행히 국회 예결산특위를 거치면서 이 예산안은 다시 폐기되었던 것이다.

4.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의 문제점

1)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미사일 부대

국방부의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문제점을 드리운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산은, 1990년대 들어 인천의 도심이 확장되고 인천광역시청이 인근으로 이전해오면서 어느덧 인천의 새로운 상업, 주거 신도심으로 탈바꿈하였다. 2002년에는 이곳에 지어진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세계인의 축제가 거행되기도 하였다. 문학산 그 반대편에는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조성된 연수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곁에선 광대한 갯벌을 매립하여 송도국제도시가 한창 건설 중이다.

이처럼 문학산록을 주변으로 인천시민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의 한가운데 위치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시에 이곳은 적 공격의 1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인 2003년 3월 25일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F-16 전투기가 패트리어트 부대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당시 사고를 낸 조종사는 자신의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레이더에 포착되었다는 신호를 받고 자위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알



문학산 미사일 배치 반대 퍼포먼스(2005. 5. 9)

고 보니 자국의 패트리어트 부대였다는 것이다. 미사일기지가 배치되면 곧바로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근한 실례인 것이다.

2) 미사일 오발 사고의 재발 가능성

또 다른 문제점은, 봉재산의 나이키 미사일부대 이전의 계기가 되었던 1998년 미사일 오발사고가 재연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나이키 미사일보다 짧은 15-24km이다. 만약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15-24km 반경 내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것이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대공미사일임을 감안할 때 미사일 파편이 떨어질 곳은 인천 도심의 한가운데인 연수구와 남구 지역, 혹은 송도신도시가 될 것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수많은 고폭탄으로 흩뿌려지는데, 이는 곧 인천시민들이 미사일 파편더미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에 독일로부터 도입하려는 PAC-2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내에서조차 패트리어트의 성능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미 의회 청문회 석상에서 미사일방어국MDA 소장 카디쉬 대장이 패트리어트 결함을 인정했을 정도로 성능에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991년 당시 미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100%에 근접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미 의회의 조사 결과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MIT 공대 교수인 포스톨은 단 한 발의 스커드 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 점 등은,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 세계 사람들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환상적인 요격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공중에서 터지는 장면을 곧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인 셈이다.

이처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시스템 상의 많은 결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형과 환경에서는 더욱 심각한 결함을 나타낼 수 있다. 더구나 SAM-X 사업은 '중복 투자' 의 성격까지도 갖고 있다. 비록 나이키 미사일이 노후한 것이 사실이지만, 공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량했기 때문에, 용도 폐기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나이키 미사일 외에도 우리 공군은 사정거리 40km의 중 · 고 고도용 호크 미사일, 사정거리 10km의 중 · 저 고도용 천마미사일, 사정거리 5km의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등을 실전배치 해놓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형 휴대용 미사일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에 개발 완료를 목



국방부 앞 항의집회 (2005. 6. 28)

표로 한국형 중거리방공미사일 K-MSA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키 미사일이 노후해졌다고 해서 당장 방공망이 뚫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 정도로 우리 군의 방공 미사일 체계가 허술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현재 배치된,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한국의 방공 미사일 전력과 공군력을 감안할 때, 북의 공군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경제자유구역 개발과의 상충

다른 한편으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인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소위 '송도국제도시' 건설 사업과 외자유치에도 큰 지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 청라지구 등의 개발에 외국자본을 유치해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물류·금융 및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워 왔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의 인접지인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군사적 위험성이 증가해 외국자본의 투자흡인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송도에는 민간 건설업체에 의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져서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부동산회사인 게일사와 한국 포스코건설의 합작사

에 의해 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더 샵 퍼스트월드the # 1st World' 가 분양에 들어갔다.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무려 1천260만원에 이르는 64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형 건물 4개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송도 지구에는 각종 개발계획이 난무하지만, 국방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확정되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제1호로 지정받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진척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미사일 배치계획이 만약 확정된다면, 이는 국가 행정의 난맥상을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둘도 없는 사례가 될 것이다.

4)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해칠 화약고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또한 동아시아 전체에 전운을 감돌게 할 것이다. 한국에의 MD 배치 계획은 미국의 소위 '군사 수위전략military supremacy strategy' 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중국을 21세기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예방하면서,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에 군사 기지를 확보하고, 이라크와 중앙아시아 등에 있는 에너지원을 사전에 장악해 중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 에 따라 대만 무력 통일을 감행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중국에 대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은 한미동맹 재조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국군에게 북한 방어 작전의 부담을 넘기면서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화'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육군 비중을 줄이면서 해 · 공군력과 정보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봉쇄 및 무력 개입의 전초기지로 삼는 움직임에 대항하여, 중국 역시 한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터이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미사일 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8월 최초로 전개된 중 · 러 합동군사훈련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놓고 보건대 가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패트리어트 부대가 수원-오산 · 평택—군산—광주 등 한국의 '서부'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각별한 주의를



문학산 되찾기 인천시민 걷기대회 모습(2005. 6. 26)

요한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으로 재편하면서 중국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오산·평택을 동북아 기동군의 중추기지로 삼고 군산 공군기지를 계속 잔류시키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들 기지를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산 · 평택 및 군산에 있는 미군기지와 이를 방어할 MD 기지가 들어서는 광주, 수원 등은 따라서 중국의 1차적인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미 · 중간에 MD 문제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MD 전초기지가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화 및 한국의 MD 전초기지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동북아의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문학산을 비롯한 수도권 12개 지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은 이러한 정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터이다.

5)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과도 정면배치

미국이 이처럼 21세기 핵심적인 패권 전략의 하나로 MD 체제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최우선적인 포섭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졌다. 노무현 정부가 '평화번영정책' 과 '협력적 자주국방' , 그리고 '동북아 중심국가' 등을 핵심적인 외교안보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MD전략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MD 참여를 요청 받은 바도 없고, MD 참여를 결정한 바도 없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최근 소위 '동북아 균형자론'을 공식 제기하기도 하였다. 지난 4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3각동맹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며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 동맹을 토대로 추진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동북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각동맹'이라는 용어 자체가 냉전시대의 대결적 사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자칫 한국이 대중국 견제구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일 터이다.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하면서 동북아에서의 근본적 불안요인으로 중-일 간의 패권구도를 상정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중 · 일 양국이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나 군비경쟁의 양상을 보일 때 역내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이 지역의 평화는 물론 우리의 안전을 위해 중 · 일 두 나라 중 그 어느 쪽도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전략적 고려도 깔려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앞 예산삭감 공동투쟁 모습(2005. 7. 28)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윤광웅 국방장관도 4월 7일 군 공식행사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군이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국방

부 출입기자들에게 한 · 중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 "중국은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유난히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이처럼 동북아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평화번영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문학산을 비롯한 12곳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인 사고"(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를 하는 국방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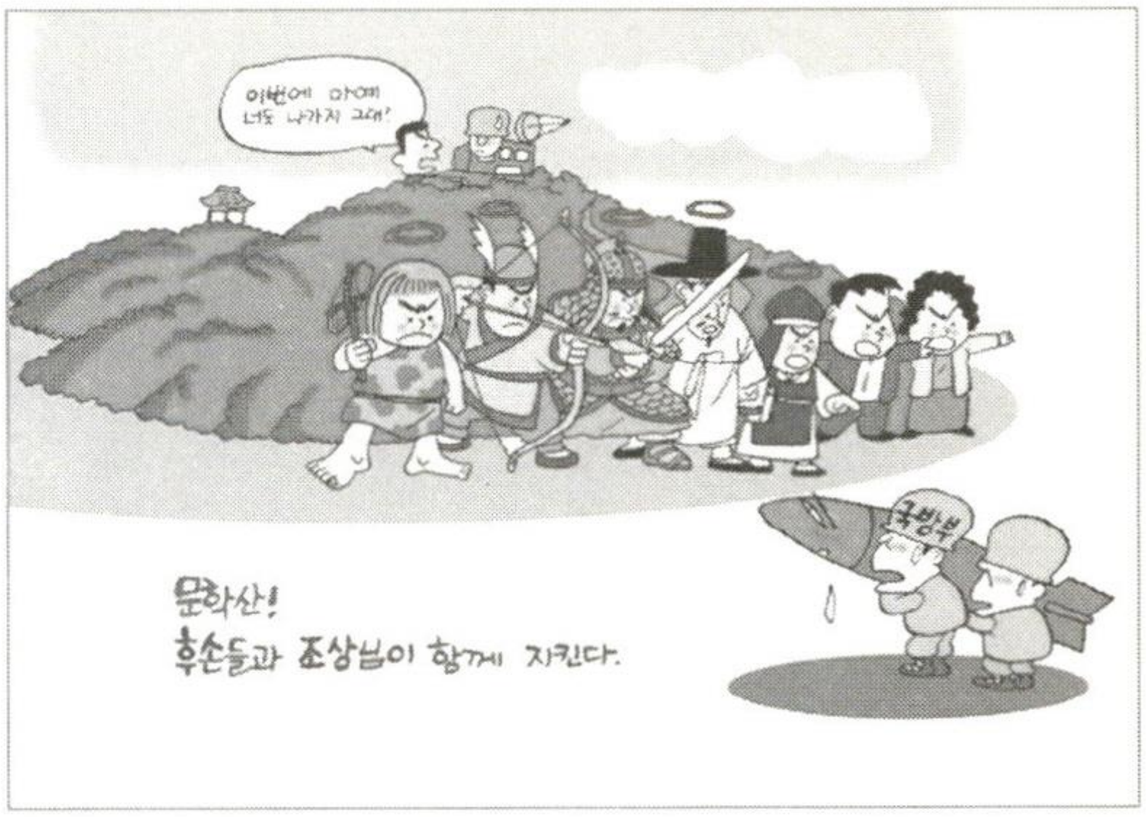
5. 문학산의 귀환,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3월 17일 『한겨레신문』에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이 보도된 이후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국방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수차에 걸친 집회와 논의 끝에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문학산 범대위〉)를 5월 7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총 43개 단체가 결집하여 결성된 〈문학산 범대위〉는 이후에 인천 지역 주요 지역에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방부를 상대로 한 규탄 성명과 항의집회를 다른 지역의 평화단체들과 연대하여 진행해왔

다. 지난 6월 26일에는 문학경기장에서 모여 문학산 군부대 앞을 거쳐 문학공원 입구까지 '문학산 되찾기 인천시민 한마음 인천시민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문학산 범대위〉는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의 철회에 머물지 않고, 인천이라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의 상징인 문학산에서 군부대가 완전 철수하여 시민들이 가꾸는 시민공원을 만들기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비단 인천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미국의 MD체제와 동북아의 세력각축과 깊이 연동되어 있는 만큼 전국의 평화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문학산 군부대의 반환과 시민공원 만들기에 나서는 것은 따라서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평화로 귀결된다. 100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는 조선을 침탈하고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였고, 결국 이 전쟁의 승자였던 일본에 의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다시 되밟아서는 안 된다. 다행히 지난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가 요구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예산 258억 원에서 228억 원을 삭감하여 30억 원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12월 2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시 20억 원을 삭감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비" 명목으로 10억 원으로 축소하여 예결위에 상정하였다. 문학산 귀환을 염원했던 인천시민들의 뜨거운 요구의 결실이거니와,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의 타당성 없이 백일하에 드러난 결과도 천만다행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10억 원의 예산을 불씨로 하여 2006년도에 들어 또 어떤 살벌한 무기를 문학산에 배치하려고 시도할지 모른다. 그러나 올해 국방부의 예산이 거의 전

액 삭감됨으로써 문학산에 더 이상 군부대가 존치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2006년도에는 인천시민이 합심하여 "문학산을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당당히 제기할 일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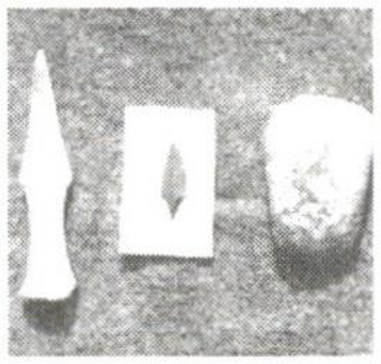
문학산 되찾기를 염원하는 앰블램(박흥렬 제작)

이제 새로운 동북아의 상황에 즉하여 인천시민들의 슬기로운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인천시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미사일 부대 영종도 이전 합의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안상수 인천시장은 인천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문학산이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과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철이면 군부대 이전을 공약했던 지역의 정치인들도 시민과 함께 나서야 할 일이다. 그리하여 40여년 만에 문학산을 돌려받고 시민이 즐기는 역사 ·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중요한 주춧돌을 쌓는 일에 모두 함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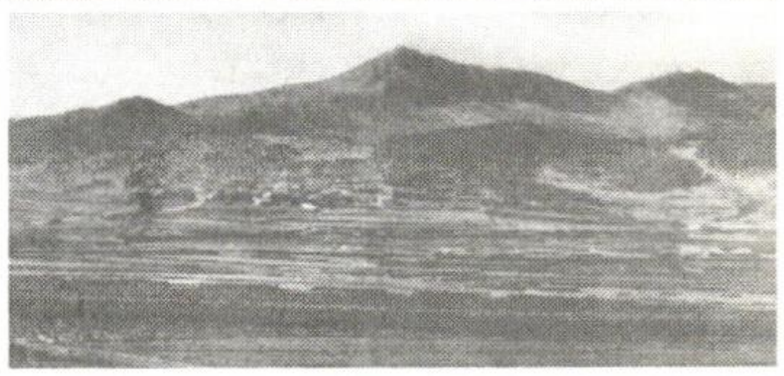
추억 속의 문학산

김윤식









배꼽산

김윤식 (시인 · 문협인천시지회장)

배꼽산! 문학산을 이렇게 부르던 시절이 그립다. 내가 문학산을, 문학산의 배꼽을 처음 본 것은 해가 제법 길어진 1955년 어느 봄날 오정午正이 조금 지난 무렵이었다. 태어난 곳 중구 내동을 떠나 전원이나 다름없던 숭의동, 지금의 장안 예식장 위쪽 308번지로 이사를 한 후 두어 번째 나들이에서였을 것이다. 아니, 나들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날도 나물을 캐러 나선 어머니의 뒤를 따랐던 길이었을 것이다.

지금의 남구청, 옛 사범학교 길에서 독쟁이 방향으로 난, 그저 소달구지나 다닐까 한 소로를 따라 가면 양쪽으로 중국인 채마밭이 죽 나오는데 그 밭고랑에 질경이, 냉이가 흔했다. 하지만 그 근처는 얼씬도 하지 못했다. 우리 한국인이 지나가기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 지독한 경계를 펴면서 뭐라고 쏼라대는 중국인에게 쫓기기가 일쑤였다.

그래 그런 중국인들이 밉살스러워 그날따라 방향을 바꾼 것이 인하공대 앞,

뽀얗게 먼지가 일던 자갈길을 지나 '소년가막소' 부근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고, 거기 어디쯤에서 문득 인천읍내가 있다는 동쪽 방향으로 나가, 휘움하게 뻗어 있던 문학산과 그 정상인 볼록한 배꼽을 처음 본 것이다.

다른 날 같으면 다리가 아프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문학산을 보게 될 운명이었는지 숭의동을 출발해 지금의 독쟁이 시장 앞을 지나 왼쪽으로는 철망 안에 잔디밭과 연못을 갖춘 인하공대 교수 사택과, 그 맞은편 유공저유소에서 먼 어금 방향으로 군데군데 함포에 부서진 '히다찌' 건물이 유령의 집처럼 서 있던 삼거리를 지나고, 인하공대 목조 건물 앞을 지나 문학산 발치에 다다르도록 나는 군소리 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고, 결국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서 있던 문학산을 처음 본 것이다.


인하공과대학 기공식 장면.(1953. 8. 28)

높지는 않은 산이었는데도 그날 문학산은 맑은 봄 햇살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보랏빛으로 깊어 보였고, 말없이 위엄이 있어 보였는지…. 아지랑이와 함께 무엇인가가 솟아오를 듯한 느낌을 주던 침묵의 산. 흔히 일컫는 인천의 주산主山이라는 말을 알 턱이 없고, 인천의 정기를 머금었다는 그 산의 역사는 더더욱 몰랐는데도 그 모습은 어린 나의 머리 속에 매우 신비한 인상으로 들어박혔다. 그리고 물론 그보다 훨씬 후인, 내가 고등학생이 된 뒤의 느낌이지만 기묘하게도 산의 모습이 마치 허먼 멜빌의 모비 딕, 그 백경白鯨의 위엄과 우람한 풍채를 연상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다만 혼자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배꼽산이라는 이름이었다. 못마땅까지 갈 것이 없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산 이름이었다. 저렇게 볼록 솟아 나온 배꼽이 어디 있나? 젖꼭지나 혹부리라면 역시 썩 아름답지는 않아도 수긍이 가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배꼽산이라는 명칭이 영 이상했다. 인천의 어른 신태범愼兌範 박사께서는 생전에 '누운 여체의 배꼽 형상' 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했지만, 사람의 배꼽이 갓난아기 빼놓고는 저렇게 볼록 내밀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끝에서 두 번째 동생이 하도 보채고 우는 통에 늘 집안이 시끄러웠는데, 언젠가 그 때문에 배꼽이 얌전하게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옳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문학산은 울고 보채는 '갓난아이의 배꼽산' 이란 말인가. 돌아올 무렵, 보랏빛 이내, 그 자하紫霞 속에 더욱 신비스럽게만 보이는 저 산이 배꼽이 들어가지 않는 아기 배꼽산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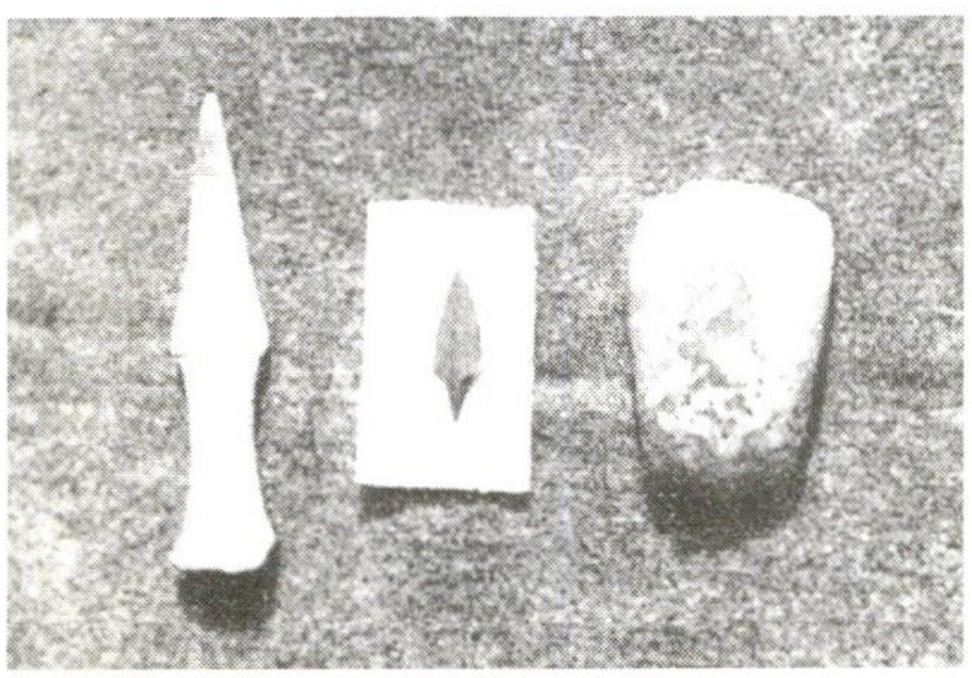
누가 처음 그렇게 붙여 불렀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못내 의문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 사람들에게는 아무러하든지 문학산은 곧 배꼽산이었다. 나의 이 의문은 결국 고등학생을 막 지나치려 할 때쯤, 제 스스로 답을 얻었다. 그것은 인천 사람들의 역사, 그 생명의 탯줄이 처음 달렸던 흔적으로서 배꼽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문학산의 배꼽은 내게 인천 사람들의 생명을 표상하는 상징이며 비유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었다.

어머니와 나물을 캐던 그날 이후, 길을 알아 낸 나는 내 또래들이나 혹은 동네 형들을 앞세워 가끔 학익동 그 소년형무소 근방을 지나고, 인천읍내로 가는 길 옆 소로가 나 있는 산등성이 가까이까지 가 보곤 했다. 핑계는 칡뿌리를 캐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 우리들 모두 산에 끌렸다고 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우리는 정상까지는 등산을 하지 않았다. 우리들 작은 어깨를 내리누르는

듯한 알 수 없는 적막과 고요 때문이었다. 어쩌면 성벽이 있다는 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희미하게 들은 봉화대 이야기가 더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했을까.

성벽이나 봉화대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내, 산정에서는 다급하게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성벽 곳곳에서 우레 같은 함성과 함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수많은 군사들이 창검을 번득이며 달려 내려오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늘 그쯤에서 멈춰 서서 정상까지의 등반을 포기하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레 겁을 먹었던 사실을 지금 나는 거꾸로, 알 수 없는 적막과 고요라고 의미심장한 듯 꾸며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산에는 성벽이 있고 봉홧불을 놓는 곳이 있으며 더불어 무슨 사당 같은 집도 있다는 말을 어렴풋이, 전혀 비현실적으로 듣고는 있었지만, 실제 배꼽산이 비류의 자살로 막을 내렸다는 비류백제의 비극을 간직한 역사의 산이었다거나, 또 이 배꼽이 국가의 위급을 알리는 봉수대 역할을 위해 성토盛土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리 없었다. 비류의 우물, 또 비류가 외적을 막기 위해 쌓았을 미추홀 고성, 그리고 이 성을 중축하여 임진란에 대처함으로써 크게 전적을 올렸다는 김민선金敏善 부사와 안관당安官堂에 얽힌 일화 따위를 알게 된 것은 까마득한 시간이 흐른 뒷날 어른이 되어서의 일이었다.



문학산 기슭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유물.

더불어 문학산 주변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고인돌과

돌도끼, 돌칼, 돌살촉 등이 출토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일대는 고대로부터 주거 지역으로 그 시기는 대략 5천 년 전이라는 사실도 역시 역사책을 떠들어 본 뒤에 안 사실이었다. 최초의 인천인이 살았던 곳. 그리고 최초의 부족국가가 섰던 곳. 이런 인천의 뿌리를 제대로 읽은 것은 그렇게 세월이 지난 뒤였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문학산이 두려움과 신비와 상상을 간직한 산이라면 문학산 밑자락에 자리잡은 마을, 인천읍내는 또 다른 이상한 외지였다. 어째서 그곳이 '인천읍내'란 말인가. 인천시의 변두리도 한참 변두리 바깥으로서 어쩌다 '원족遠足'의 목적지로서나 거명되는 곳이 안[內]이라는 의미의 읍내라니. 정말이지 인천 변두리에 인천읍내라는 행정 구역이 있다는 사실이 못내 의아스러웠다. 읍과 시가 공존하는 산자락 마을. 거기가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들이 추측해 낸 것이라면 그런 행정 구역이 존속하고 있는 까닭이 다 문학산 때문일 거라는 실로 막연한 짐작뿐이었다. 그저 인천 안에 인천읍내라는 시골이 있고, 우리 동네와는 달리 동장이 아닌 이장이 마을의 우두머리라는 희한한 사실을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듣고 있는 정도였다.

어쩌다 먼어금 개펄 조개 잡이를 마치고 산길을 돌아 우정 인천읍내를 관통해 오는 길에, '사회생활' 과목은 늘 우등이었던 친구 황인성이라는 친구가 그 마을 사람들이 무슨, 무슨 왕, 지금 생각하면 비류왕의 자손들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털어놓던 이야기는, 문학산의 배꼽을 아득하게 올려다보고 있는 이 인천읍내에 대해 더욱 신비감을 증폭시켰고, 가슴까지도 울렁거리게 하곤 했다.

생각해 보면, 문학산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꼭 집어 무어라고 말하



이종화 선생이 촬영한 1960년대 문학산 전경.

기는 막연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문학산은 우리에게 예사 산이 아니었던 것만은 틀림없었다. 마을도 또한 보랏빛 신비, 신화의 안개에 둘러싸인 낯설고 특별한 곳이었다. 문학산은 분명 우리들 몸속에서 커가고 있던 가지가지의 상상과 두려움과 더불어 마을의 비밀을 지배하던 영산靈山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느낌이었다.

그러던 것이 1959년 국민학교 6학년 1년 동안 중학 입시를 위해 문밖출입도 억제하면서 공부에 매달려 있는 동안, 갑작스럽게 변해 버리고 만 것이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1학년 봄날, 4 · 19가 나고 학교는 며칠간 휴교에 들어갔다. 심심해진 우리들은 이승만이니, 이기붕이니, 또는 자유당이니, 부정 선거니, 마산에서 터진 데모니 하는 소란스럽고 수상한 세상과는 반대쪽에 자리잡고 있는 문학산으로 갔던 것이다. 철없는 우리들은 그런 세상일의 진행 상황과 끝장도 얼마간은 궁금했지만 그보다 문득 봄날의 문학산이 더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먼 발치께에서 올려다본 문학산은 전혀 다르게 변해 있었다. 산에는 흙길이었지만 트럭이 다닐 만한 넓은 도로가 허리를 빙 돌아 나 있고, 거기서부터는 아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더구나 산정에 볼록하게 솟아 있

던 배꼽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인천 사람들의 탯줄을 달았던 배꼽이 사라지고 문학산은 어느새 미군이 주둔한 부대 영지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어리벙벙했다. 하면서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언뜻언뜻 기억나는 그 포성과 불덩이들이 또 다시 밤하늘을 달구려는 것인가. 활과 창을 든 병사들의 함성이 아니라 머나먼 나라에서 온 유도탄을 가진 미군의 군사 기지가 되다니. 왜 배꼽을 뭉갠 것일까. 그곳이 봉수대였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거기 우물터는, 성벽은 어떻게 되었을까. 인천읍내 사람들의 형편은 어찌 되는 것일까. 문학산은 인천의 정기를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군사 요충이 되어야 하는 팔자이고, 인천 방어, 나라 수호를 위한 국방 기지의 운명을 타고 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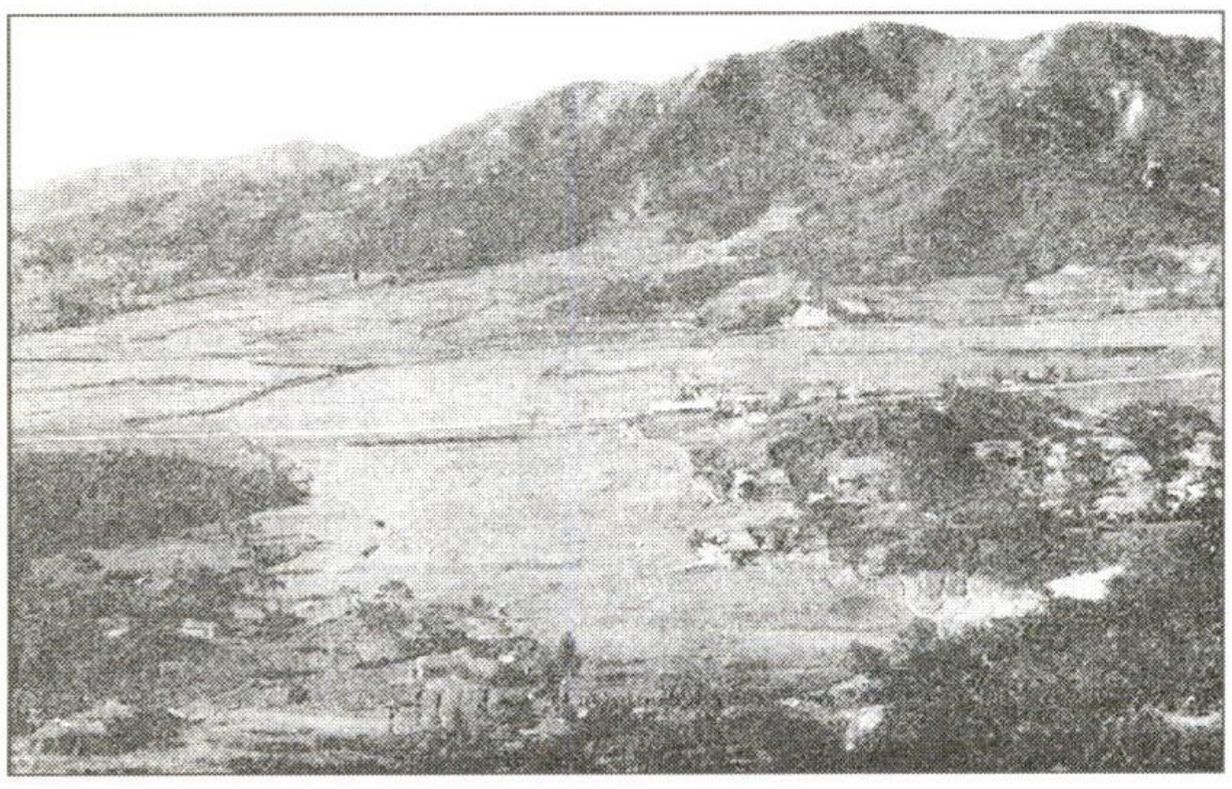
배꼽은 할머니 말씀대로 얌전히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깎이어 나간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배꼽. 그것은 결국 그런 의미였다. 배꼽산의 피치 못할 운명, 그 운명이라는 것이 스스로 배꼽을 도려내었다는 의미이다. 원시의 불빛과 연기가 아니라 레이더와 론쳐launcher를 위해서 배꼽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말하는 것이다.

'文鶴' 이라는 이름대로라면 애초부터 사뭇 정신 문화적이면서 상서로운 어떤 면을 나타내야 옳을 터인데 실상은 그 정반대, 언제나 불안한 불빛과 화살과 화약 냄새 가득한 군사 기지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라. 우리 역사가 죽 그래 왔던 것처럼, 6 · 25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문학산은 또 다시 이 나라 국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이 산의 위치와 점지된 운명을 어찌 그렇지 않다고 말하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운명이었다.

이제 오늘을 이야기하자. 시절은 바뀌었다. 문학산을 되돌릴 수 있는 때가 무르익은 것이다. 어린 날 느꼈던 엄숙과 신비와 경외감 가득한 문학산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도래했다.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5천 년 인천의 역사를 지켜 왔고, 또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운명의 군사 기지'를 일거에, 단순한 감상感傷과 환상과 큰 목소리 하나로 걷어치울 수는 없을 것이다.

280m. 낮은 현실의 높이에 비해 우리 인천 사람에게는 실로 까마득히 높았던 정신의 문학산을 어떻게 하든지 시민 품으로 되돌리되, 절대 감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몽고의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은 우리의 국방력이 약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에 발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필코 문학산을 우리 곁으로 되돌리기는 하되, 방법은 절대 국가의 안위를 염두에 두고 당사자들, 그 다자多者가 그야말로 허심하게 머리를 맞대고 앉아 대화로 풀어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 그것을 배꼽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굳이 문학산을 우겨 배꼽산이라고 부르던 순수 인천 사람들, 그들조차 이 인천 땅에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 그 옛날 문학산이 토해 내던 정적의 숨소리와 적막의 용틀임 같은 것을 우리는 듣는다. 저 흰 고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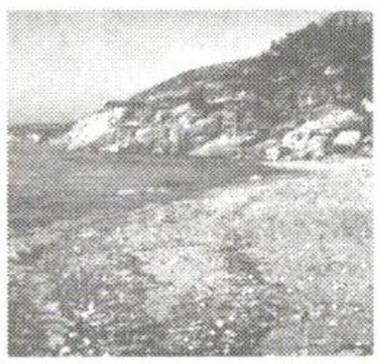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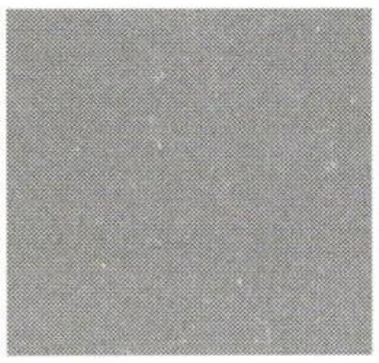
청릉마을에서 바라본 청학동과 문학산 남쪽 방향의 옛 모습.

거대巨大와 엄숙과 위의威儀를 우리는 느낀다. 우리를 사로잡던 신비의 문학산! 까마득한 인천 역사의 첫 걸음, 그 유사有史의 첫 발자국을 떼던 문학산 정상의 처음 인상은 참으로 우뚝하고 어련했었다. 밭둑의 냉이 냄새 속에 보랏빛 아지랑이로 타오르던 산록, 한없는 봄날을 오히려 숙연하게 만들던 산의 자태와 배꼽 모양은 지금도 망막 속에 또렷한 신화의 잔상으로 살아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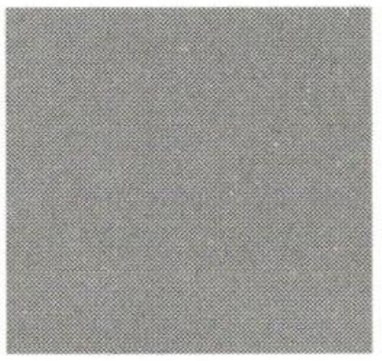
역사 속의 문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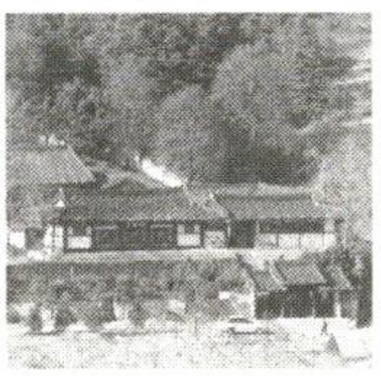
김상열











인천의 중심,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

김상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담당)

1. 시작하는 말

인천은 경기만으로 돌출한 작은 반도로, 그 중앙에 문학산文鶴山이 자리하고 있다. 문학산은 세 갈래로 산지가 갈라지는데, 서북방향으로는 수봉산 · 도산 · 송림산 · 응봉산 등이 100m 내외의 산을 따라 서해안으로 이어지고, 서남방향으로는 청량산 · 봉재산을 거쳐 동막에서 끝나고, 남쪽방향으로는 50m 내외의 구릉을 이루며 염장포까지 이른다. 이러한 산계로 인하여 인천은 평야가 발달하지 못하고 잔구들 사이로 주요 교통로와 경지가 발달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문학산이 원인천原仁川지구[1]의 역사 발전에 중심으로 역할하

1) 현재 인천광역시는 원인천지구(중구 · 동구 · 남구 · 남동구 · 연수구), 부평지구(계양구 · 서구 · 부평구), 강화지구(강화군 전역), 옹진지역(영종도 · 무의도를 제외한 도서) 등 4개의 역사적 행정단위가 합쳐져 형성된 것이다. 문학산은 1883년 인천의 읍치邑治가 중구로 이전할 때까지 원인천지구의 중심지였다.

는 조건을 제공하여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인 고인돌이 문학산에 분포하였으며, 비류가 도읍을 정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고려 이후 문학산과 승학산 사이의 관교동에 인천의 읍치邑治가 형성되면서 개항 때까지 문학산은 인천의 행정 · 교육 · 생활의 중심지로서 역할하였다.

인천의 역사발전과정을 담고 있는 문학산은 인천시민들에게 있어 향수의 대상이 되는 인천의 상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인천의 범주에 있던 소래산이 시흥시의 범주에 속한 이후 마치 인천지역의 진산鎭山으로 오해하면서까지 문학산은 인천사람들에게는 고향을 상징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이후 문학산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관아와 향교가 훼손되었고, 1950년대에는 문학산 정상에 군시설물이 들어섰으며,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의해 문학산의 옛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함께그린남구의제21", "카톨릭환경연대" 등에 의해 문학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는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원인천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인천의 읍호승강에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2. 문학산의 유래

문학산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문학동 · 관교동 · 학익동과 연수구의 선학동 · 연수동 · 청학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작은 산괴를 말한다. 이 산괴는 동쪽에서부터 길마산吉馬山, 수리봉(혹은 선유봉仙遊峰), 문학산, 연경산衍慶山, 노적산露積山 등 5개의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어 연수구와 남구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속칭 '배꼽산' 으로 불리는 주봉主峰 문학산을 중심으로 북으로 산록이 뻗어 내리다가 다시 좌우로 갈라져 서쪽으로는 용현동으로, 동으로는 인천도호부관아와 향교 뒤를 감싸고 승기천변까지 이어진다. 문학산 남쪽으로도 산록이 이어져 해안 부분에서 큰 멧부리를 솟구쳐 청량산(혹은 청학산)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전통시대 지지地誌와 고지도古地圖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문헌자료에 의하면 문학산이라는 명칭과 다른 산명山名이 보이고 있다.

〈표1〉 지지에 나타난 문학산의 명칭

지 지	문 학 산 관 련 기 사	비 고
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烽火一處 城山在郡南	1473년
②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南山 距府二里, 城山烽燧	1481~1530
③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南山 距府二里	17세기 후반
④ 여지도서(輿地圖書)	文鶴山 在府南二里 卽南山	18세기 중엽
⑤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南山 距府二里 一名文鶴山	1843년경
⑥ 인천부읍지	南山 距府二里 一名文鶴山	19세기 전반
⑦ 대동지지(大東地志)	文鶴山 南三里	1861년
⑧ 인천부읍지	南山 距府二里 一名文鶴山	1871년
⑨ 인천부읍지	文鶴山 在府一里	1891년
⑩ 인천부읍지	南山 距府二里 一名文鶴山	1899년
⑪ 인천부읍지	南山 距府二里 一名文鶴山	1899년

〈표1〉에서 보듯이 문학산은 성산城山, 남산南山, 문학산文鶴山 등으로 불려왔다. 기록 중에서 가장 이른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봉화烽火가 한 곳이 있으니 성산城山인 군郡의 남쪽에 있다' 라고 한 것이다. 성산이란 명칭은 문학산정에 산성山城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여겨진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

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봉수조에는 '성산봉수는 부의 남쪽 2리에 있는데 남으로는 안산군 오질이봉수에 응하고 북으로는 부평부 축곶봉수에 응한다城山烽燧在府南二里 南應案山郡吾叱耳 北應富平府杻串山' 고 하였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 봉수조에도 '성산' 이라는 명칭이 보이는 등 대부분의 문헌에는 성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문헌 대부분에는 '남산석성南山石城이 부의 남쪽 2리에 있다' 라고 병기하고 있는 것에서 문학산은 일찍부터 성산과 남산으로 함께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산이라는 명칭은 고을의 중심관청을 기준으로 보아 그 앞쪽 또는 남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 불렀던 관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남산이라는 명칭은 19세기 말까지 계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을 그린 고지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2)]



화도진도(花島鎭圖)에 나타난 문학산

그렇다면 현재 부르고 있는 문학산이라는 명칭은 언제 생겨난 것일까. 문학산을 둘러싼 동리명에는 유난히 "학鶴" 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문학동 · 선

2)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해동지도』에는 문학산 · 성산 · 남산을, 1834년 간행된 『청구도』에는 성산 · 문학산을 병기하였다.

학동 · 학익동 · 청학동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문학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산세의 형상이 학이 날개를 펴고 앉은 것 같다고 해서 학산鶴山이라 불렸었는데, 향교 문묘文廟의 "문文"자가 합쳐져 생겨난 것이라고도 한다. 또 산의 형상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우리말 '둠' 또는 '두룸'에서 온 것으로 '두룸'이 '두루미'로 발음되다 보니 사람들이 산의 이름을 한자로 바꿀 때 날아다니는 두루미, 곧 학鶴으로 오해하여 학산이라는 불렀다고도 한다. 그러나 문학산이라는 이름은 학산서원鶴山書院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정빈李廷賓라는 자가 숙종 28년(1702) 봄 인천부사로 부임하여 학문과 교화에 힘썼던 이단상李端相을 추모하는 서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상소한 것을 임금께서 허락하여 서원書院을 건립하였고, 숙종 34년(1708)에 다시 정일빈鄭日賓 등이 다시 액호를 내려줄 것을 임금께 상소하여 "학산鶴山"이란 액호를 받았다. 이렇듯 "학산"이라는 명칭은 1708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산이라는 명칭에 문학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향교와 학산서원은 학문을 강학講學하는 곳이므로 "문文"자를 합쳐 문학산이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문학산이라는 명칭은 바로 '학산서원'이라는 액호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문학산이라는 명칭이 18세기 중엽(1757~1765년)에 펴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고지도에는 제월봉霽月峰 · 인경산仁磬山 등 일부 연봉의 이름도 표시되기도 한다. 『해동지도』에는 승학산을 아후산衙後山, 노적산을 제월봉霽月峰이라 적고 있다. 『각사등록各司謄錄』에는 연경산을 인경산仁磬山이라 기록하였다. 이처럼 현재의 문학산 연봉連峰의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것들이 많다. 연경산, 수리봉(또는 선유봉), 노적산 등은 근래에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연경산, 수리

봉, 노적산 등의 명칭은 1949년 이경성이 쓴 『문학산방면고적전설조사보고서文鶴山方面古蹟傳說調查報告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고, 노적산도 1917년 『근세조선오만분지일지도近世朝鮮五萬分之一地圖』에 처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산 · 인경산(연경산) · 제월봉(노적봉)이, 아후산(혹은 읍주산)등의 이름은 조선시대부터 불려진 반면, 연경산 · 노적산 · 승학산 · 선유봉(혹은 수리봉) · 길마산 등은 근래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인천이 역사상에 등장하는 것은 비류沸流가 남하하여 이 곳에 도읍하면서부터이다. 비류의 남하 이후 인천의 읍호는 삼국의 쟁패와 왕조의 교체 등의 역사발전과정에 따라 승강乘降을 반복하게 되는데, 인천지역의 역사는 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표2〉는 읍호의 승강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3. 삼국시대의 문학산

1) 인천의 시작, 미추홀(彌鄒忽)

비류가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에 도읍을 정하면서 인천의 역사는 시작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紀에는 온조溫祚와 비류를 중시으로 하는 2개의 건국신화를 싣고 있다. 두 신화 모두 비류와 온조는 형제이며, 형인 비류가 온조와 함께 고구려로부터 남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온조전승에서는 온조가 위례성에, 비류가 미추홀에 도읍하였다고 적고 있는 반

〈표2〉 인천의 읍호 승강과정

	시 기	읍 호	읍호의 승강 사유
삼국시대	삼한	미추국(彌鄒國)	미추왕 비류(沸流)의 도읍지
	백제	미추성(彌鄒城)	한성백제 지배 하에서의 지명
	고구려	미추홀, 매소홀(買召忽)	광개토왕~장수왕대 고구려의 영역아래의 지명
통일신라	경덕왕 16년	소성현(邵城縣)	한화정책(漢化政策)에 따른 한식(漢式) 지명으로 개정
고려시대	숙종대	경원군(慶源郡)	인예태후 이씨(仁睿太后李氏)의 내향(內鄕 ; 친정)
	인종대	인주(仁州)	순덕태후 이씨(順德王后李氏)의 내향
	공양왕 2년	경원부(慶源府)	칠대어향(七代御鄕), 문종 ~ 인종까지의 7대 왕 중 5명의 왕의 어머니와 5명의 왕비의 출생지
조선시대	태조 원년	인주(仁州)	태조의 조상 목조(穆祖)와 익조(翼祖)의 활동무대인 함경북도 경원군과 같은 명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태종 13년	인천군(仁川郡)	지방제도 개혁시 '주(州)'를 '산(山)' · '천(川)'으로 변경
	세조 5년	인천도호부 (仁川都護府)	세조비(世祖妃) 자성왕비(慈聖王妃)의 외향(外鄕 ; 외가)
	세조 41년	인천현(仁川縣)	129대 이영(李榮) 부사 재임 중 강호(降號)
	광해군 12년	인천도호부	십년 후 인천부사로(仁川府使)로 회복
	숙종 14년	인천현	역승(逆僧)의 태향(胎鄕)이라 하여 현감(縣監)으로 강등
	숙종 23년	인천도호부	십년 후 인천부사로 회복
	순조 12년	인천현	역적(逆賊) 광우(光友)로 인하여 현감으로 강등
	순조 21년	인천도호부	십년 후 인천부사로 회복
	고종 32년	인천군	갑오개혁에 의하여 전국을 23부 331군으로 하는 지방제도 개혁
	건양 1년	인천부	13도 1목 9부 329군로 지방제도 개혁
근대	1910년	인천부(仁川府)	「조선총독부지방관제관제」에 따른 부행정(府行政) 실시
	1914년	부천군(富川郡)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의하여 부평군과 통합하여 개항장 일대를 제외한 지역 통합
	1936년	인천부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개정」에 따라 1차 부역확장
	1940년	인천부	제2차 부역확장

면, 비류전승에는 형제 모두 미추홀에 도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두 전승 모두 미추홀이 초기백제사에 있어 도읍지로 기술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더욱이 같은책 지리지에는 '소성현邵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매소홀현買召忽縣인데 경덕왕 때 개명된 것으로 지금의 인주仁州이다. 한편 경원(慶原)이라 하며, 매소는 미추홀이라고도 한다' [3]고 하였다. 이처럼 비류가 남하하여 도읍한 미추홀의 위치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인천으로 표기된 이래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미추홀국彌鄒忽國, 미추국彌鄒國, 또는 비류국沸流國 등으로 일컬어지며 인천지역이었음이 긍정되어 왔다.[4]

미추홀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이후 문학산성이 지목되었고, 현재까지도 미추홀의 중심유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인천군의 남쪽 2리에 남산석성(南山石城)이 있다고[5] 기록된 이후 『동사강목東史綱目』[6], 『여지도서』[7], 『경기읍지京畿邑誌』[8] 등에서 문학산성을 비류·미추홀과 연결시키면서 정착된 것이다. 이는 고려 인종 이후 인천의 읍치가 지금의 관교동에 자리하면서 미추홀의 범위를 가까운 문학산성으로 비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학산성은 일국의 도읍으로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

3) '栗津郡…邵城縣 本高句麗買召忽縣 景德王改名 今仁州 一云慶原買召 一作彌鄒忽' (『삼국사기』 권35, 잡지 4, 지리 2, 한주조)

4)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彌鄒忽國' (仁川都護府 宮室條, 姜希孟陞號記), 『여지도서』에는 '彌鄒國' (京畿道 仁川條),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沸流國' (卷 14, 輿地考 歷代國界)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5) '仁川郡 本高句麗買召忽縣一云 彌趨忽, 一云 慶原買召…南山石城在郡南二里 周回一百六十步 四面高險 內有所泉'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인천군조).

6) '今仁川俗傳 文鶴山上 有沸流城基城門…城內有沸流井' (『동사강목』 온조원년조).

7) '文鶴山上頗寬平 乃彌鄒王尻都也 有石城基趾焉' (『여지도서』 인천도호부 고적조).

8) '彌鄒忽古城 一云南山古城 在府南一里文鶴山 周四百三十尺 壬辰倭變 府使金敏善增修古城 率士民以守 屢挫賊烽' (『경기읍지』 인천도호부지 성지조).

또한 인천지역을 도읍지로 볼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 아산 밀두리설**密頭里說**[9]과 경기도 양주설**楊州說**[10] 등 다른 지역

---

9) 아산 밀두리설은 김성호의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原』(지문사, 1982)에 게재된 글이다. 『삼국사기』에 미추홀을 '今仁州', 위례성을 '未詳地分'으로, 『삼국유사』에는 미추홀은 '仁州', 위례성을 '今稷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今仁州'와 '仁州'를 서로 다른 지역으로 보아 『삼국유사』가 가리키는 인주는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으로 비정하고, 인천에는 미추홀과 비슷한 지명이 없는 반면 아산에는 밀두리가 있음을 전제하여 미추홀을 밀두리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인천은 고려 인종 때부터 공양왕 2년(1390)까지 '인주'로 불렸고, 아산은 고려초기부터 인주로 불려오다가 현종 9년(1018)이후 명종 7년(1177)이전에 '아주(牙州)'로 개명되었다. 즉 『삼국유사』의 편찬시기보다 약 100년~250여년 이전에 이미 아산은 '아주'로 개명되었기 때문에 일연(一然)이 미추홀의 위치를 밝히는 주에서 당시의 행정구역명 대신 옛 행정구역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밀두와 미추를 동음자로 보기 어렵다는 국어학계의 견해로 보아 따르기 어려운 견해이다. 더욱이 밀두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육지에 인접한 바다로 보이므로 비류의 도읍지로 볼 수 없다.

10) 양주설은 패하(浿河)를 대동강수계로 비정하고 미추홀을 買省忽·買肖城·六溪土城 등을 근거로 삼아 지금의 양주·파주 일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買召忽과 미추홀을 동일시하게 된 것은 仁州李氏가 정치적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고려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하고, 온조전승 속의 미추홀과 위례성은 풍수지리설이 풍미한 나말여초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부정하고, 비류전승을 취하여 비류가 '浿帶二水'를 건너 미추홀에 도읍하였고, 『廣開土大王碑文』의 '彌鄒城'과 미추홀이 같은 곳이라면 고구려군에 의해 함락된 58성 중 비교적 전반부에 기재된 점으로 보아 한강 이북에 위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덧붙여 인천지역에는 비류가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매소'와 '미추'만 음운상 통하는 것이 아니라 楊州古邑의 옛 이름인 '매성(買省 ; 買肖)' 역시 미추와 음운상 통하는 것으로 미추홀의 위치를 한강 이북인 양주·파주 일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김기섭, 「미추홀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13, 한국고대사학회, 1985, 80~87쪽).
후술하겠지만, 인주이씨가 문종이후 고려왕실과 혼인을 통해 급부상한 인천의 대표적인 호족이다. 인주이씨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위해 온조전승을 조작하였다고 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미추홀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표현한 '해빈'과 '토습수함'은 장자인 비류의 무지와 독선을 강조하고, 그 세력의 몰락을 설명하고 있다. 인주이씨가 멸망한 미추홀을 정통성을 위해 조작하였다는 것은 긍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은 인종 23년(1145)으로 이자겸의 난(인종 5년 ; 1127)으로 이미 몰락한, 또 편찬 당시의 왕 인종을 시해하려 하였던 인주 이씨의 본거지인 인천지역을 위해 문헌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광개토왕비문에 나타난 백제의 58성이 반드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서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미추홀을 양주고읍으로 비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광개토왕의 미추성 공략을 고구려 수군이 한강에

을 미추홀로 비정하려는 견해가 개진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비류집단과 온조집단의 연맹결성의 원인을 소금산지의 확보로 이해하여 미추국의 위치를 서구 공촌동일대로 추정하는 견해도[11] 개진되는 등 미추국의 위치에 대한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미추홀의 인천설을 부정하는 이유는 인천지역에 비류가 도읍하였다고 볼만한 삼국시대의 성 또는 대규모 고분과 같은 적극적인 고고학적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미추홀이 인천으로 비정된 이래 역대 지리지와 사서의 인천조에 한결같이 수용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 그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서울에서 멀지 않은 서해안 어느 지역에서 비류의 정착지로 볼 수 있는 토성이라든가, 고분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인천을 미추홀로 비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류가 '토습수함土濕水鹹' 함에도 미추홀에 정착한 것은 해상교역이 가능하고, 소금의 산지와 소금교역망을 확보하기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인천은 전통적으로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 영종도 송산선사유적에서 흑요석제黑曜石製와 소위 '금강식토기錦江式土器'가 출토되는 것은 인천 지역에서 신석기시대부터 한반도의 동북부와 서남해안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2] 이러한 전통은 삼국시대의 능허대의 대진大津으로 이어진다. 고구려로 인해 육로가 경색된 백제는 인천에서 산동반도에 이르는 등주항로登州航路

진입하거나 회군할 때 고구려 선단의 후미를 차단할 수 있는 백제의 군항을 강타한다는 전략적인 측면과 백제 왕실 직영의 소금산지의 장악을 통해 백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미추성의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11) 이도학, 「영락 6년 광개토왕의 남정과 국원성」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학논총』, 1988, 10~14쪽.

1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영종송산선사유적』, 1996.

를 개발하여 중국과 통교하였다. 또한 고대사회에 있어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철산지와 소금산지의 확보는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인천지역이 근래까지 많은 소금을 생산했던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금을 매개로 하는 해상교역망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성장을 꾀하고자 하였던 비류는 소금산지인 이곳 인천지역에 정착하였을 것이다.

미추홀의 정확한 위치가 인천의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다. 삼국시대 초기의 도읍은 대체로 평지에서 벗어난 구릉의 대지에 자리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문학산과 맞은편에 위치한 승학산이 이루고 있는 관교동 분지를 들 수 있다. 문학산은 작은 산괴로 동쪽으로는 남동염전의 갯벌, 도장리에서 승학천을 따라 승기로 이어지는 저지대가 고대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습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교동분지는 섬과 같은 지리적 환경을 이루고 있어 초기국가단계의 도읍으로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문학산 동사면과 무주말 유물산포지에서는 백제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이곳에 백제시대 생활권이 형성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13] 그러나 관교동 - 문학동 분지는 미추국의 중심지이지 그 전체 범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류집단의 세력은 온조집단에 비견할 정도의 세력이었을 것이므로, 미추국의 범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 온조가 남하 당시 마한왕이 동북지방의 1백리의 땅을 주었다는 기사에 비추어 본다면, 미추국의 규모 또한 '방백리

13) 이 지역의 유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고서가 자세하다.
서울대박물관, 『인천-소래, 인천-시흥 고속도로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1990.
인하대박물관, 『서울외곽순환도로건설예정구간지표조사보고』, 1991년.
윤용구, 「'목지국' 미추홀설에 대하여」 『황해문화』3, 1994.
인하대학교 박물관,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9.

(方百里)' 의 규모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최근 방대한 백제토기산포지가 보고되고 있는 영종도를 포함하여 현재의 원인천지역의 대부분이 포함되므로, 보다 많은 고고학적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천의 관문關門, 문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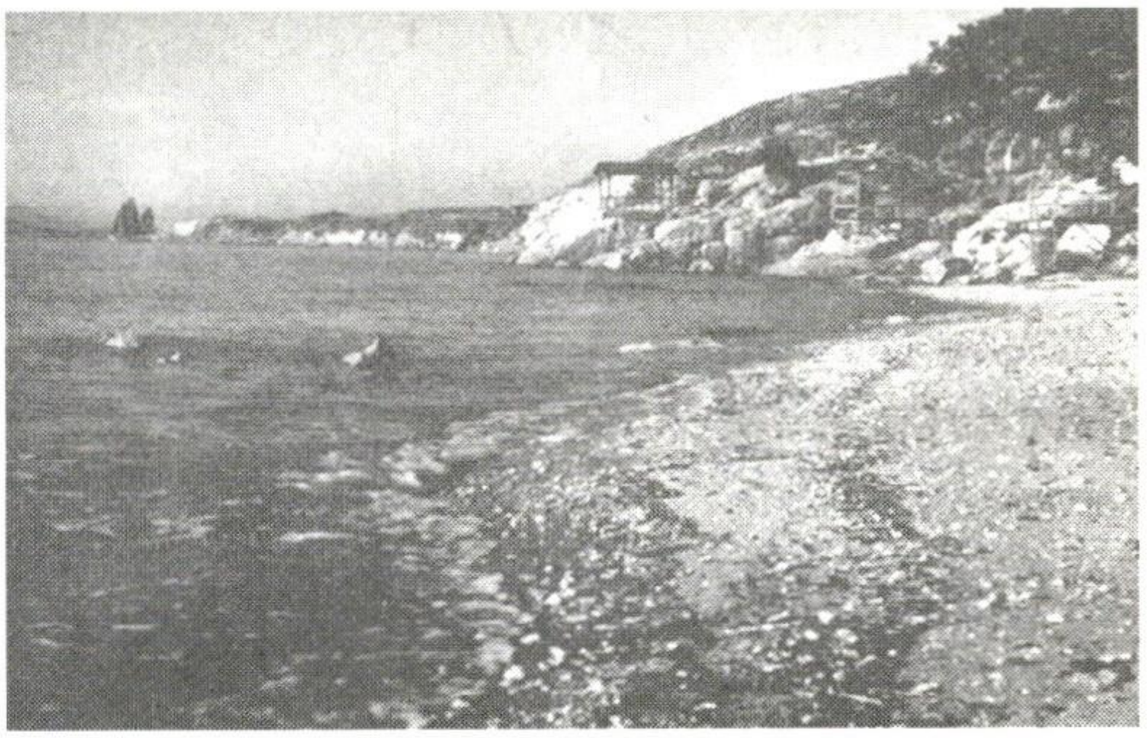
문학산 주봉과 연경산 사이에는 지금의 연수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사모지고개가 있다. 사모지고개는 백제와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었다. 사모지고개를 넘어 한나루大津;옥련동 축현초등학교 부근에서 방舫이라는 배를 타고 백제의 사신들이 중국의 등주登州에 이르는 사행길을 떠났다.

백제가 인천을 통해 중국과 통교한 것은 근초고왕대의 일이다. 근초고왕 27년(372)에 중국의 진晋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대중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해에도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고 한다.[14] 고구려 고국원왕은 두차례 백제의 북경을 침범하여 남으로의 진출을 꾀하였는데, 근초고왕은 고구려군을 격퇴하였고, 두 번째 전투에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왕을 전사시켰다.[15] 이로써 백제는 남으로는 마한의 잔여세력을 복속하면서 마한을 대신하는 한반도 서남지역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고 진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고국원왕의 전사로 고구려와 구수관계에 놓인 백제는 육로를 통한 중국

---

14) '二十七年春正月遣使入晋朝貢…二十八年春二月遣使入晋朝貢…'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조).

15) '二十四年秋九月 高句麗王斯由 帥步騎二萬 來屯稚壤 分兵奪民戶 王遣太子 以兵徑至稚壤 急擊破之'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24년조) ; '二十六年 高句麗擧兵來 王聞之 伏兵於浿河上 俟其至 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 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 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2, 근초고왕 26년조).



능허대 해변(이종화, 『문학산』에서)

과의 통교가 불가능해지자, 인천의 한나루에서 중국 등주에 이르는 새로운 사행로使行路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이 항로는 등주항로登州航路로 한강 하류역인 인천을 출발하여 덕물도德物島 ; 덕적도를 거쳐 중국 산동반도의 등주에 이르는 항로이다. 인천이 새로운 사행로가 된 것은 백제의 한성에서 서해로 빠지는 한강 하류역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조건과 인천이 전통적인 해상활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등주항로가 비교적 안전한 항로였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조선기술이나 항해술로 비추어볼 때 사신을 중국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근구수왕 5년(379)에 동진으로 파견된 사신은 악풍을 만나 회항하는 등 총 65회 중 3차례나 중도에 회항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16] 그러나 백제는 '방' 으로 표현된 대형선박을 이용하였고, 또 488~490년의 해전에서 북위 선단을 격파할 정도로 비상한 해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과 통교할 수 있었다.[17]

연수구 옥련동 해안쪽 선단에 능허대凌虛臺라는 곳이 있다. 중국에 통교를 위한 백제의 사신을 실은 배의 출항지라고 전해지는 곳으로 1990년 인천광역시지정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능허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들

16) 『삼국사기』 권 24, 백제본기 2, 근구수왕 5년 및 권26, 백제본기 3, 문주왕 2년?동성왕 6년조 참조.
17)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371~372쪽.

이 전해진다.

① 대진은 부서 십리 다소면(多所面)에 있으며, 삼국이 정치하였을 때 고구려에 의하여 백제의 조천로가 경색되었으므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신이 이곳에서 배를 띄워 산동반도의 등주?래주에 도달하였다.…능허대가 부서 10리 원우미면(또는 원우금면)에 있는데 청량산 여록이 해변으로 들어가 100척의 높이로 가파르게 솟아 있고 위에는 30여 명이 앉을 만하며 대양을 바라보매 막힘이 없었다.…대진은 백제가 조천할 때의 출선처이다. 그 밑에 기암이 있다. 전하기를 백제사신이 기녀를 데리고 와서 候風하다가 막상 배에 오르던 날 원별(遠別)의 정을 이기지 못한 기녀가 바위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후인들이 그 바위를 기암이라 하였다고 한다(『여지도서』 인천도호부 형승조).

② 능허대는 부서 10리에 있으며 바다에 임하여 높이 100척으로 솟아 있어 대양을 바라보매 막힘이 없다. 밑에 대진이 있는데 삼국이 정치하였을 때 고구려에 의하여 백제의 조천로가 경색되었으므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신이 이곳에서 배를 띄워 산동반도의 등주?래주에 도달하였다(『인천부읍지』 고적조).

③ 가는 벼랑으로 나 있는 오솔길, 넓은 모랫벌에 끊어진 언덕…(권시(權諰), 「능허대」『탄옹집(炭翁集)』 권1).

④ 능허대 아래는 곧 서해 바다가 드나드는 포구이다. 대는 겨우 10여장의 산인데 바닷가 포구에 높게 솟아 있어 자루와 같다(이규상(李奎相), 『일몽고(一夢稿)』 권19).

①에서는 대진과 능허대가 각각 다소면과 원우미면에 소속되어 있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한 반면 ②에서는 능허대 아래에 대진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917년 작성된 『근세조선오만분지일지도』에도 능허대는 현재의 위치와 일치하지만, 대진은 지금의 축현초등학교 부근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백제사신들의 발선처는 대진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이후 작성된 ②에 의해 능허대가 포구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다. ③과 ④처럼 능허대로 통하는 길이 오솔길인 점에서 그곳이 포구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유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지』에는 능허대를 객관(客官), 향사당鄕射堂과 함께 궁실조(宮室條)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서 능허대는 후풍(候風)하는 백제사신들의 객관이 있었던 곳일 가능성이 높다.

능허대와 관련하여 삼호현三號縣 전설이 있다. 부천시 쪽에서 인천시 구산동을 거쳐 만수동으로 넘어오는 고개를 별리고개別離峴이라 하고, 관교동에서 능허대 쪽으로 이르는 문학산 서편고개를 사모지고개三呼峴라 부른다. 중국으로 가는 백제 사신들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할 때 한산에서 부평의 별리고개를 넘고 다시 사모지고개를 넘어 한나루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이 때 사신을 배웅하러 따라 나왔던



사모지고개(박광성사진첩에서)

18) 尹龍九, 「인천의 百濟文化」 『연보』10,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0, 34~36쪽.

가족과 친지들은 별리고개에서 전송하며 이별을 나누었다 하여 별리현이라 불리었고, 사신들도 사모지고개에 오르면 멀리 보이는 별고개에 아직도 서 있던 가족들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세 번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다 하여 삼호현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능허대를 통해 중국과 통교한 것은 근초고왕대에서 개로왕 21년(475)까지의 100여년간에 불과하다. 백제가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도읍을 웅진熊津;공주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후 웅진으로 남천한 백제는 백마강을 통하여 통교하였고, 고구려는 한강을 점령한 후에도 육로를 이용하였으며, 한강유역을 점령한 신라는 남양의 당항성黨項城을 통하여 중국과 통교하였다. 삼국통일 후에도 남양만의 당항성과 영암방면에서 흑산도가 항로로 이용되었으며, 후백제는 나주를, 고려는 예성강을 통하여 통교하였으므로 이별의 애뜻함을 간직한 문학산의 사모지고개와 한나루가 대중국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4. 고려시대의 문학산

문학산 일대에는 석곽묘군石槨墓群 2곳[19]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학림사지鶴林寺址를 비롯한 많은 절터가 자리하고 있다. 문학산 일대에서 고려와 연관되어 가장 큰 유적은 문학산 남쪽으로 염장포까지 연결되는 낮은 구릉에 자리한 까치섬에 있는 이허겸李許謙의 무덤과 그의 사당인 원인재源仁齋이다. 고려 왕실

19) 인하대학교박물관, 『문학산일대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9, 25~27쪽.

과 혼인을 맺으면서 급부상한 인주이씨는 그들의 흥망이 고려시대 원인천지역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인천의 대표적인 호족세력이다.

1) 인천의 호족豪族, 인주이씨仁州李氏

인주이씨가 인천에 정착하는 과정은 『소성세덕邵城世德』[20]과 『고려사』에 전해진다.

① 공(公)의 이름은 허겸(許謙)이니 김씨에서 허씨가 되었고, 허씨로써 이씨의 후손이 되었다. 그 선조는 가락국(駕洛國) 수로왕(首露王)의 왕자였는데, 수로왕이 왕비의 말에 감동되어 왕비의 성으로 하사했으니 김씨로서 허씨가 된 것이 이것이요. 그 후에 사명을 받들고 당 현종조에 입조했는데, 황제가 그 어진 재주를 가상히 여겨 황성(皇姓)을 하사했으니, 許氏로서 李氏가 된 것은 이것이었다. 공이 세신(世臣)의 주손(冑孫)으로서 신라말엽에 탄생하여 고려조에 벼슬하였으며, 관작이 상서좌복사 상주국 개국후(尙書左僕射上柱國開國侯)에 이르고 소성백(邵城伯)을 봉하여 식읍 천오백호를 하사하였다. 자손이 인하여 소성부(邵城府)의 동쪽 소래산 아래에 거주했으니, 소성에서 이씨가 그 터를 잡은 것은 이에서 시작되었으며, 드디어 전국에 번창하였다(인주이씨대종회, 『소성세덕』).

---

20) 仁川李氏大宗會, 『邵城世德』, 1985.

② 이자연(李子淵)은 인주사람이다. 그의 조상은 신라의 대관으로서 당나라에 사신 갔다가 천자에게 잘 보이어 이씨라는 성을 받았다. 그 후 그의 자손이 소성현 즉 인주로 이주하였다. 리허겸의 대에 와서 소성 백의 봉작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이 상서우복사 이한(李翰)이요 이한의 아들이 이자연, 이자상(李子祥)인바 이자상은 죽은 뒤에 상서우복사 벼슬을 추증받았다(『고려사』 열전 이자연전).

이에 의하면, 인주이씨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호족세력임을 알 수 있다. 그 세력의 형성에는 가야계인 선대가 신라하대에 가야계의 몰락과 함께 인천지역으로 출거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전후하여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의 황제로부터 이씨를 사성받은 후 그 자손들이 인천에 정착하였다는 것은 호족으로서의 이씨가 당과 관련있는 해상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이씨세보』에 의하면 이허겸의 손자인 성간(成幹)의 부인이 개성왕씨로서 그 아버지가 태조 왕건이라 하였



1970년대의 원인재(박광성사진첩에서)

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인주이씨는 고려초 왕실과의 혼인이 이루어질 정도의 강력한 호족세력이었던 것이다.

2) 칠대어향七代御鄕

호족들은 중앙귀족화한 후에도 출신지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자신들의 출신지 의식을 바탕으로 가문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출신지인 본관을 칭하면서 가문을 구별하게 됨에 따라 가문과 문벌을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귀족들은 혼인을 통해 가문을 높이고 문벌을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귀족인 왕실과의 혼인을 통하는 것은 가문으로서 명예뿐 아니라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첩경이었다.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외척으로서 정권을 쥔 안산김씨安山金氏와 인주이씨이다. 현종玄宗 2년(1011) 안산출신인 김은부金殷傅가 거란의 침입으로 공주에 온 현종과 인연이 되어 그의 장녀가 왕비가 되었고, 그 후 두 딸마저 현종에게 출가시키면서 김은부는 형부시랑刑部侍郎에 올라 외척으로서 권력을 잡아나갔다. 김은부의 아내 이씨安孝國大夫人는 이허겸의 딸이다. 이씨가 낳은 세 딸이 현종비가 됨으로써 이허겸은 왕의 외조부가 되었고, 후에 덕종 · 정종 · 문종의 외증조부가 되었다. 이로써 안동김씨와의 혼인관계를 맺은 인주이씨는 고려왕실과의 외척으로써 귀족의 대열에 들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자연은 가문을 권문세가로 발전시켰다. 22세의 나이로 과거에 장원급제한 이자연은 김은부의 처조카로 현종과는 동서지간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정계에 입문하였다. 덕종 원년 9월 우보궐右輔闕을 시작으로 우승지右丞宣을 거쳐, 정종대에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중추부사中樞

府事에 임명되었으며, 문종대에는 이부상서 참지정사吏部尙書參知政事을 거쳐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郎平章事에 오르게 된다. 이러한 위치에서 이자연은 문종 6년(1052) 2월에 자신의 큰딸을 문종의 왕비로 들이면서 시중侍中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나머지 두딸을 차례로 문종비로 들이면서 인주이씨는 권문세가로 성장한 것이다. 이자연이 59세로 사망한 후에도 문종비인 인예태후仁睿太后 이씨를 비롯한 이자연의 세딸에 의해 인주이씨의 세도는 이어졌다. 인예태후가 문종과의 사이에서 10명의 왕자와 2명의 궁주를 낳은 것을 비롯하여 이자연의 왕실 외손이 모두 13왕자 6공주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자연의 세 아들 호(顥), 석(碩), 정(頲) 등이 각각 순종과 선종에게 딸을 출가시키면서 인주이씨는 세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자의李資義의 난으로 위기를 맞았던 인주이씨는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숙종의 아들(후의 예종)과 이자겸李資謙의 딸文敬王后이 혼인하여 낳은 아들(후에 인종)이 14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자겸은 이자연의 손자로, 누이가 순종비順宗妃 장경궁주長慶宮主이다.[21] 인종을 옹립하고 권력을 장악한 이자겸은 정적을 제거하는 한편, 타성他姓의 왕비로 인해 권력이 나뉘어질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셋째딸과 넷째딸을 차례로 인종과 혼인시켰다. 이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이자겸은 갖은 전횡을 휘두르며, 사사로이 송宋에 표문表文과 토산물을 바치면서 고려국지군국사高麗國知軍國事라 자칭하며 인종에게 관직을 내리도록 강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종의 미움을 산 이자겸은 사돈 척준경拓俊京과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이자겸의 난"이다. 인종은 두려워 왕위를 넘겨주려 하였으나, 양부兩府의 반대가 두려워 왕위에 오르지

21) 『고려사』 권127, 열전 40, 이자겸전.

못한 이자겸은 이씨가 왕이 된다는 '십팔자도참설十八子圖讖說'을 맹신하여 두 차례나 인종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딸의 배신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때 이자겸의 아들 이지언李之彦과 척준경의 노비가 일으킨 싸움으로 두 가문 사이에 틈이 벌어지자, 인종은 척준경을 회유하여 이자겸과 그 일족들을 영광으로 귀양보내고, 두 딸을 폐비시켰다. 후에 척준경마저 제거되면서 이자겸의 난은 종결되었고, 인주이씨는 멸문이 되어 몰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22], 인천은 공양왕恭讓王 2년 다시 경원부慶原府로 승격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칠대어향七代御鄕'[23]이기 때문이라 했다. 칠대어향이란 문종조에서 인종조에 이르는 7대 약 80여년간 인천이 왕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이 기간 동안에서 인주이씨는 고려왕실과 혼인을 통하여 외척으로서 권력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은 순종 · 선종 · 헌종 · 숙종 · 인종 등 5왕의 외향이 되며, 문종 · 순종 · 선종 · 예종 · 인종 등 5왕의 왕비의 내향이 되었다. 따라서 이 7대 동안 인천은 왕의 외향이거나 왕비의 내향이 되고, 특히 순종 · 선종 · 인종은 3대는 왕의 외향인 동시에 왕비의 내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지는데, 세종비인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의 진외가陳外家와 세조비인 자성왕비慈聖王妃의 외향이 바로 인천인 것이다.

---

22) 仁州는 원래 고구려의 買召忽縣(彌趨忽이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경덕왕이 邵城으로 고쳐서 율진군의 관할 하에 현으로 만들었다. 현종 9년에 樹州 관하에 소속시켰으며 숙종 때에 어머니 仁睿太后 李氏의 內鄕이라는 이유로 慶源郡으로 승격시켰으며 인종 때에 어머니 順德王后 李氏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知州事를 두었다. 공양왕 2년에 慶源府로 승격시켰다(『고려사』 권56 지 10 지리 1 인주조).

23) 姜希孟의 『陞號壁上記』에는 '七代鄕', 『여지도서』에는 '七代之鄕'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같은 뜻이다.

소헌왕후의 부친은 심온이고, 조부는 심덕부인데, 심덕부가 인천문씨의 문필대門必大의 딸과 혼인하였으므로, 인천은 소헌왕후의 진외가가 된다. 자성와비의 아버지 윤번은 인천출신의 이문화李文和의 딸과 혼인하였으므로, 인천은 자성왕비의 외향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도 왕실의 외척의 본향이 된 인천은 세조 5년(1459)에 이르러 자성왕비의 외향임을 이유로 군郡에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게 되는 것이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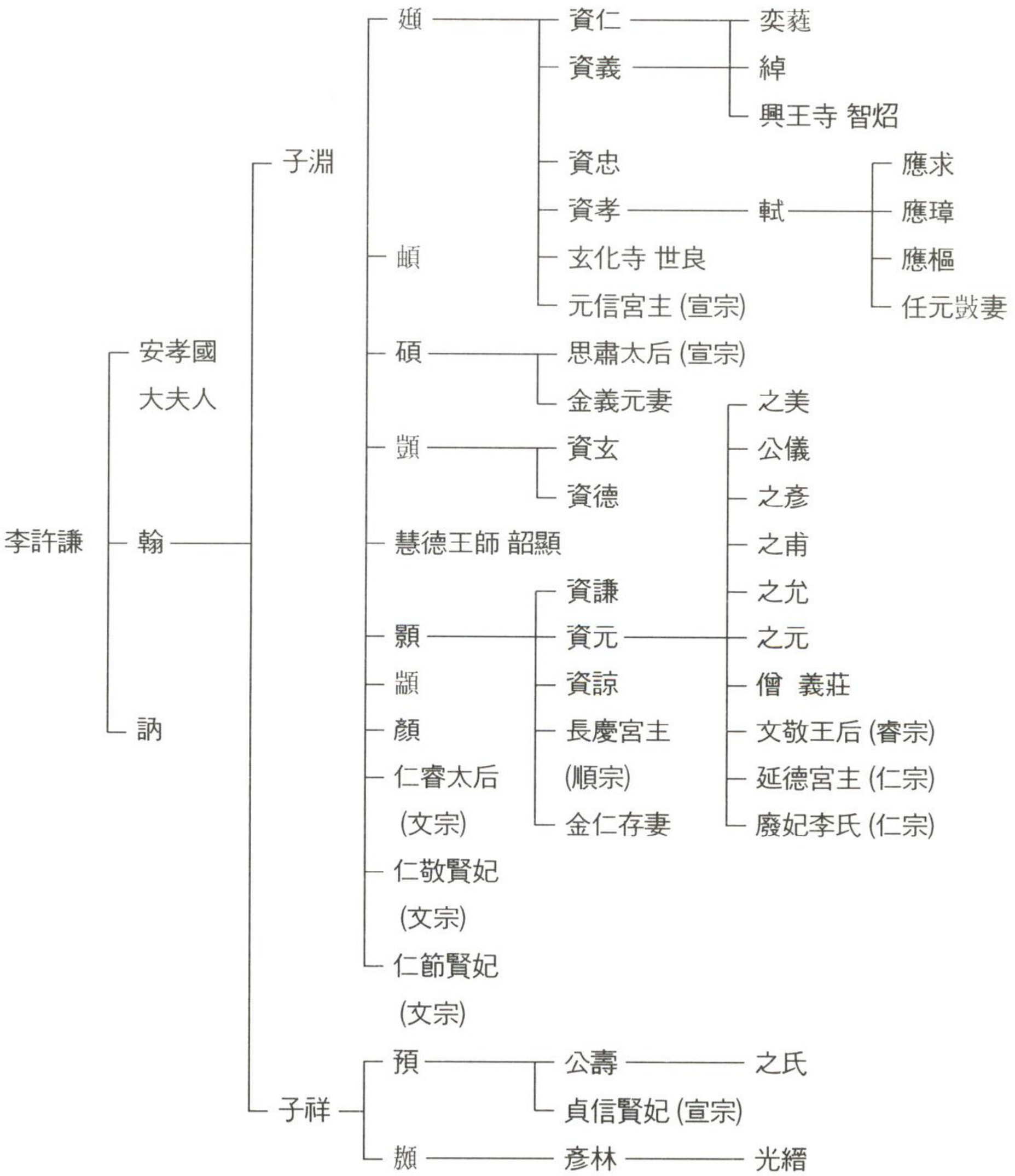
5. 조선시대의 문학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인천仁川"이라는 지명을 얻게 된다. 조선왕조가 성립된 후에도 지방제도는 일부 명칭을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려의 편제를 답습하였으며, 태조 원년에 읍호를 예전의 인주로 환원하였다.[25] 태종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제도의 개편이 단행되는데, 태종 13년(1413)에는 서북면에 평안도관찰사를 설치하고 전국을 유수부 1, 부윤 6, 대도호부 5, 목 20, 도호부 74, 군 73, 현 154 등 333개의 행정구획으로 나누었으며, 태종 16년(1416)에 동북면에 함경도관찰사를 설치함으로써 8도제(八道制)가 갖추

24) '以慈聖王妃外鄕 陞仁川郡爲都護府' (『세조실록』 권18, 세조 5년 11월 계미조).

25) 경원부에서 인주로 복구된 것에 대하여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건치연혁('本朝太祖元年復爲仁州')에 태조 원년(壬申年)으로 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에 관련된 기사가 없다. 다만 경기를 좌·우도로 나누고, 도의 명칭을 바꾼 태조 3년에 인주를 경기좌도에 속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태조 원년이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원부로의 환원에 대해서는 태조의 조상 목조(穆祖)와 익조(翼祖)의 활동무대인 함경북도 경원군과 같은 명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왕실과 관련된 인주이씨 계보



어지게 되었다. 8도에는 관찰사를 두고 그 밑에 각 읍에는 부윤府尹 ·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목사牧使 · 도호부사都護府使 · 군수郡守 · 현령縣令 · 현감縣監을 두었다. 태종대에 확립된 지방제도는 부분적인 승격 또는 강등으로 인한 약간의 변경이 있는 외에는 이 원칙이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태종 13년에는 각도 각 관호를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다.

각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임금이 하륜(河崙)에게 이르기를,

"전주(全州)를 이제 완산부(完山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전라도' 라고 칭하고, 경주(慶州)를 이제 계림부(鷄林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경상도' 라고 칭하니,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니, 하륜이 말하기를,

"유독 이 곳만이 아니라, 동북면 · 서북면도 이름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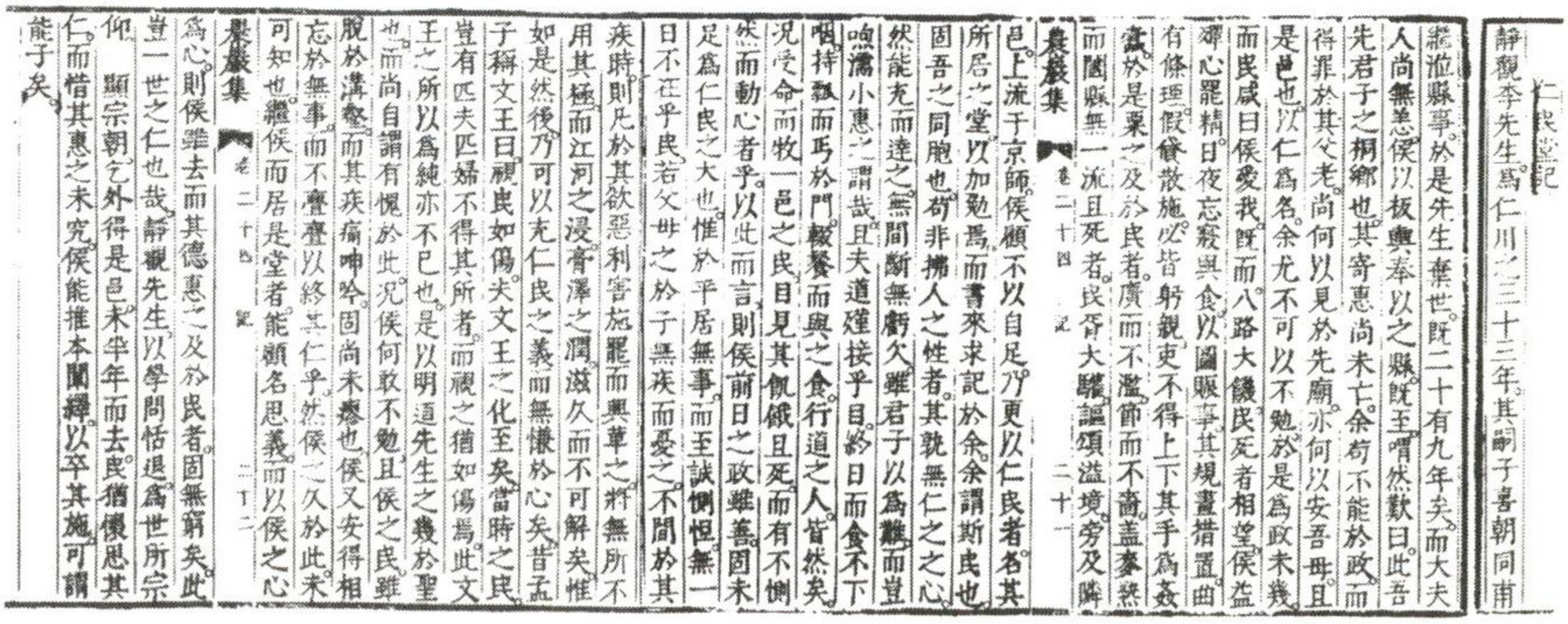
하였다. 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 라고 칭하고, 계림을 다시 '경주' 라고 칭하고, 서북면을 '평안도' 로 하고, 동북면을 '영길도' 로 하였으니, 평양 · 안주 · 영흥 · 길주가 계수관(界首官)이기 때문이다. 또 각도의 단부(單府) 고을을 도호부로 고치고, 감무(監務)를 현감으로 고치고, 무릇 군 · 현의 이름 가운데 주(州)자를 띤 것은 모두 '산(山)' 자, '천(川)' 자로 고쳤으니, 영주(寧州)를 영산(寧)山으로 고치고, 금주(衿州)를 금천(衿川)으로 고친 것이 그 예이다(『태종실록』13년 10월 신유조).

이에 따라 정리된 군현명은 '천' 자로 바뀐 예가 36곳, '산' 자로 바뀐 예가 23곳 모두 59곳에 이른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양주壤州가 양양壤陽으로, 귀주龜州가 귀성龜城으로 바뀐 것처럼 '양' · '성' 으로 대치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군에 해당하는 인주가 인천군仁川郡으로 개칭됨으로써 '인천' 이란 읍호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 행정의 중심, 문학산

승학산 남록에 자리하고 있는 문학초등학교의 한 구석에는 고건축 2동이 남아있다. 조선시대 인천의 행정을 담당하던 인천도호부 관아仁川都護府官衙의 흔적이다.

관아가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으나, 고려 성종조에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고, 인천의 읍호가 숙종조에 지군사가 설치되고, 다시 인종조에 인주로 가호되어 지주사가 설치되었으므로 고려시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인천


仁民堂記
靜觀李先生爲仁川之三十三年其嗣子喜朝同甫
繼涖縣事於是先生棄世既二十有九年矣而大夫
人尚無恙侯以板輿奉以之縣既至喟然歎曰此吾
先君子之桐鄉也其寄惠尚未亡余苟不能於政而
得罪於其父老尚何以見於先廟亦何以安吾母且
是邑也以仁爲名余尤不可以不勉於是爲政未幾
而民咸曰侯愛我既而八路大饑民死者相望侯益
殫心罷精日夜忘寢與食以圖賑事其規畫措置曲
有條理假貸散施必皆躬親吏不得上下其手爲姦
蠹於是粟之及於民者廣而不濫節而不嗇蓋麥熟
而閭縣無一流且死者民胥大驩謳頌溢境旁及隣

邑上流于京師侯顧不以自足乃更以仁民者名其
所居之堂以加勉焉而書來求記於余余謂斯民也
固吾之同胞也苟非拂人之性者其孰無仁之之心
然能充而達之無間斷無虧欠雖君子以爲難而豈
喣濡小惠之謂哉且夫道殣接乎目終日而食不下
咽持瓢而丐於門輟餐而與之食行道之人皆然矣
況受命而牧一邑之民目見其飢餓且死而有不惻
然而動心者乎以此而言則侯前日之政雖善固未
足爲仁民之大也惟於平居無事而至誠惻怛無一
日不在乎民若父母之於子無疾而憂之不間於其
疾時則凡於其欲惡利害施罷而興革之將無所不
用其極而江河之浸膏澤之潤滋久而不可解矣惟
如是然後乃可以充仁民之義而無慊於心矣昔孟
子稱文王曰視民如傷夫文王之化至矣當時之民
豈有匹夫匹婦不得其所者而視之猶如傷焉此文
王之所以爲純亦不已也是以明道先生之幾於聖
也而尚自謂有愧於此況侯何敢不勉且侯之民雖
脫於溝壑而其疾痛呻吟固尚未瘳也侯又安得相
忘於無事而不亹亹以終其仁乎然侯之久於此未
可知也繼侯而居是堂者能顧名思義而以侯之心

爲心則侯雖去而其德惠之及於民者固無窮矣此
豈一世之仁也哉靜觀先生以學問恬退爲世所宗
仰顯宗朝乞外得是邑未半年而去民猶懷思其
仁而惜其惠之未究侯能推本闡繹以卒其施可謂
能子矣

김창협(金昌協)이 쓴 인민당기(人民堂記)

과아의 규모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기록인 1899년 간행된 『인천부읍지』에는 객사客舍 30칸, (내)삼문 3칸, 동헌東軒 10칸, 내동헌內東軒 33칸, 공해公廨 6칸, 사령청使令廳 9칸, 향청鄕廳 13칸, 군관청軍官廳 7칸, 훈무당訓武堂 6칸, 작청作廳 27칸, 옥사獄舍 4칸으로 기록하고 있다. 1878년경 제작된 『화도진도花島鎭圖』와 1956년경 문학국민학교 향토반에서 작성한 관아배치도[26]를 참고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현 문학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관문에 해당하는 홍살문이 서있었다. 홍살문을 들어서면 좌우에 군관청과 향청이 있었으며, 정면에는 2층 누문인 외삼문이 나타나고 그 좌우에 순노청과 사령청이 있었다. 외삼문을 지나면 단층의 내삼문을 거쳐 동헌 마당에 다다른다. 숙종조에는 인천부사를 지낸 이희조李喜朝 : 1655~1724가 인민당人民堂이라 명명하였던 동헌이 있고, 그 우측에 담을 사이에 두고 내동헌이 자리하였다. 동헌의 좌측에는 담을 사이에 두고 객사가 위치하였는데, 단층의 객사이지만 내삼문과 외삼문을 갖추고 있었다. 문학초등하교의 정문 앞에는 '연지蓮池' [27]라는 인공연못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조그만 섬을 만들고 지수정知水亭이란 정자를 세웠다. 정문에서 향교 쪽으로 70여미터 떨어진 곳에 원형의 옥사가 있었고, 문학산 동북록에는 장대將臺라고도 불린 훈무당[28]이 위치하였다.

그러나 1883년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인천의 중심이 현재의 중구로 옮겨가면서 관아도 옮겨가면서 문학동 관아 건물은 점차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1914년 행정구획 조정으로 부천군 문학면에 편재되면서 부천군청, 부천공립보통학교(현 문학초등학교), 경찰주재소 등으로 건립되면서 대부분이 파괴되어 현

26) 박옥채 외, 『향토조사』, 인천문학국민학교, 1956.
27) 『여지도서』 경기도 인천부 제언조에 따르면 연지는 둘레가 197척이고, 깊이가 1척으로 나타난다.
28) 이경성, 「장대(훈무당)」 『문학산방면고적전설조사보고서』, 1949, 31~32쪽.

재에는 문학초등학교 동북쪽에 내동헌과 객사의 일부만이 남게 되었다.



1970년대 객사의 모습



현재의 인천도호부 관아

관아 주변 승학산과 문학산 기슭에는 지방수령의 의식과 관련된 건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사묘조에는 사직단社稷壇 · 성황사城隍祠 · 여단厲壇 등의 기록이 보인다. 부의 서쪽에 위치하였다는 사직단은 학익동에서 고개(도천현)를 넘는 좌측 언덕 위에 큰 盤石이 있었는데, 이 반석이 사직단으로 전해진다.[29] 부의 남쪽 1리에 성황사城隍祠, 부의 북쪽에 여단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여단에 대해서는 인천향교 우측의 골짜기에 위치한 약수터 위라고 전해지기도 한다.[30]

또한 조선시대 인천의 수령과 관련한 선정비善政碑들이 인천향교 앞에 모여져 있다. 선정비는 조선시대 인천도호부사 및 현감, 그리고 경기도 관찰사를 역임한 인물 중에서 선정을 베푼 자들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세

29) 이경성, 「관교동토성지」 『인천의 명소고적』, 1945, 35쪽.
30) 이경성, 「여단」 『문학산방면고적전설조사보고서』, 1949, 36~37쪽.

운 비석으로 이다. 흩어져 있던 것을 근래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현재 문학산 일대에는 모두 19개의 선정비가 남아 있는데, 그 중 1기(황운조선정비)는 문학산 남록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향교 앞에는 모두 18기의 선정비가 있다. 이 중 황운조선정비가 2개이므로 모두 17인(인천부사 16인. 경기도관찰사 1인)의 선정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희조李熙朝와 구완식具完植처럼 실록에 치적이 소개된 인물의 것이 있는 반면, 파직당한 윤오尹晤, 을사오적 중 하나인 박제순(朴齊純)과 같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본래 선정비는 수령이 교체되어 간 직후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의 재임기간에 세우기도 하며, 한 명의 선정비를 여러 군데 세우기도 하였다. 인천도 황운조黃運祚 · 정동일鄭東逸 · 윤태극尹泰兢 · 구완식 · 윤오 · 박제성의 선정비는 재임기간 중 세워진 것이고, 2차례 부임한 황운조는 3개의 선정비를 남겼다.

2) 관방으로서의 문학산성

관방關防이란 험난한 곳에 설치하여 굳게 방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관방시설은 문학산성이다. 문학산성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산이름을 딴 남산석성南山石城 ; 『세종실록』 지리지 · 남산고성南山古城 ; 『신증동국여지승람』 · 문학산고성文鶴山古城 ; 『대동지지』 · 문학고성文鶴古城 ; 『인천부읍지』 · 문학산성文鶴山城 ; 『인천부읍지』 등이 있고, 고을 이름을 딴 인천산성仁川山城 ; 『선조실록』 · 미추홀고성『인천부읍지』 등이 있으며, 비류와 관련하여 비류성沸流城 · 애분성?憤城 ; 『동사강목』 등이 있다. 1997년 실시한 조사 결과 본래 토성이었던 것을 삼국시대 말 혹은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석성으로 개축되었고, 이것이 고려시

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한다. 문학산성 내에는 안관당安官堂, 내성內城, 정지井址, 봉수烽燧 등의 시설이 있었다고 한다.

안관당[31]은 11대 인천부사인 김민선金敏善 ; 1542~1593과 관련있는 유적이다. 김민선이 사민士民을 이끌고 산성을 보수하여 누차 왜적과 무찔렀는데, 선조 26년(1593) 7월에 병으로 죽자 김찬선金纘先이 끝까지 성을 지켰다는 것이다.[32] 또한 부평에 침입한 소서행장이 이끄는 일본군은 부천의 원미산 장대봉에서 항거하는 선거이宣居怡장군을 물리치고 계양산성을 수축하여 근거지로 삼았음에도 부평부사 남유南瑜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 피신만 하였다. 계양산성을 근거지로 한 일본군의 일부는 5월 20일 인천으로 진격하였으나 부평출신인 김민선이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추어 안대평安垈坪에서 일본군을 격퇴시켰다. 안대평은 지금의 간석역 앞으로 이곳 하천에 다리가 생기니 일본군이 패전하여 흩어진 곳이라 하여 왜산교倭散橋라 불리었다. 안관당은 조선말엽의 건물로서 인천부사 김민선을 모신 사당이다.[33] 안관당의 제의는 전래의 신앙 위

---

31) 文鶴山烽燧 東쪽 쪼꿈 밑에 지금도 石築의 建物遺構가 남어있다. 經三十「메타」의 敷地에 東西만 남겨 놓고 高五尺의 石築壁이 거의 圓形으로 싸여있고 그가운대 南北約七「메타」 東西約三「메타」의 建物遺蹟이 있어 四方에 礎石이 있고 東西礎石가운대는 石段이 있다. 李朝時代라고 認定되는 若干의 기와와 磁器의 破片이 發見되였다. 이곳은 約三十年前까지도 安官堂이라는 祠堂이 있든 곳으로 그 以前에는 혹 山城의 兵營이나 倉庫로 使用된 建物址 인지도 모른다. 李昇範씨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는 祠堂이 있었고 祠堂 옆과 곳곳에는 數百年묵은 큰 참기목이 울창하게 서있었다 한다. 祠堂에는 木彫로 男女兩像을 만드러 그것에다 衣服을 입히여 곁에는 大小의 木馬 · 槍 · 劍이 놓여 있었다한다. 그리고 烽燧南面에는 堂直이의 집이 있어 恒常 이곳을 管理하였다 한다. 그런대 安官堂의 由來에 관하야는 다음과 같은 說話가 전하여지고 있다. 옛적에 仁川府使에 金某라는이가있었다. 이사람이 죽은后 가끔 金某의 靈蹟이 나리는고로 洞里 사람들이 이분을 이곳安官堂에 모시었다한다(이경성,「안관당」『문학산방면고적전설조사보고서』, 1949, 46~48쪽.)

32) '壬辰倭變府使金善敏增修古城 率土民以守 累挫賊鋒 癸巳七月病卒 金纘先繼之' (『여지도서』 고적조).

33) 이경성,「안관당지」『인천의 고적』, 1953, 76쪽.

에 지방 수령이 제관으로 나서는 등 유교 제례가 습합된 형태였다. 그 신체는 목조의 남녀신상이었을 것이고, 구체적인 신앙 대상은 산신화된 인천부사 김민선으로 여겨진다. 그가 인천부사로 재직시 임란을 맞아 사민을 이끌고 산성에 입보하여 왜적과 싸웠으나, 병으로 죽은 것을 지역민이 추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안관당은 건물초석으로 미루어 정면 3칸 정도인데, 규모로 보아 관이 주도한 사당으로 추정된다고 한다.[34] 그러므로 안관당 제의는 김민선 1인을 추념한 것이 아니라 인천 관아와 지역민을 수호하는 문학산의 산신신앙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내성에 대해서는 1949년 이경성이 처음 기록하고 있는데, 문학산에는 외성으로 石築의 城壁이 둘레 430척이고, 내성으로 약 600間 土壁이 있다고 하였다.[35] 이어 1953년에는 좀더 분명하게 문학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었고, 외성은 석축의 성벽으로 주위 약 200m, 내성은 토축의 성벽으로 주위 약 100m로 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36]

산성 안에는 정지井址가 있었는데, 우물은 산성 입지조건 가운데 기본이 된다. 이 우물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소천小泉' 이라 하였고, 『동사강목』에는 '비류정沸流井' 이라 하였다. 1949년 조사에 의하면 서문에서 서북으로 150m 떨어져 한 층 낮은 곳에 석축으로 쌓았다고 한다.[37] 이종화의 『文鶴山』에 수록된 사진 자료에 의하면 우물이 원형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군기지 조성으로 없어지기 전의 모습은 우물 높이가 60cm, 깊이는 20m에 달하였

---

34) 인천광역시, 『문학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7, 99쪽.
35) 이경성, 「문학산성」 『인천의 명소고적』, 1949, 32쪽.
36) 이경성, 「문학산성」 『인천의 고적』, 1953, 6쪽.
37) 이경성, 「문학산성우물」 『문학산방면고적전설조사보고서』, 1949, 44~46쪽.

다고 한다.[38]

봉수는 변경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에 알리는 동시에 그 지방 주민에게도 알려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역제와 함께 군사행정상의 중요성을 지니면서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케 하였다. 봉수란 명칭은 밤에 불로서 알리는 연봉燃烽과 낮에 연기로서 알리는 번수燔燧를 합친 말이다. 문학산성 내의 봉수는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 역대 지지와 읍지에도 그 기록이 보이는데, 대체로 성산봉수城山烽燧라 표기하였다. 부남쪽 2리에 위치한 성산봉수는 남으로 오질이正往山봉수에 응하고, 북으로 축곶봉수杻串烽燧에 응한다고 하였다.[39]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이 보이므로 성산봉수는 세종 이전에 설치되었다가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폐지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였을 것이다. 성산봉수는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1942년까지도 지름 360cm의 만두형의 봉수대가 남아 있고 이를 미추왕릉彌鄒王陵으로 보는 전승이 있었다고 하며,[40] 1949년 조사에서는 그것이 토축의 원루였다 하였다.[41] 이 봉수대가 있어 산 정상이 볼록하게 올라온 관계로 문학산을 흔히 배꼽산이라 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로 지역민들의 향수가 서려있었던 문학산봉수는 미군 기지 건설로 소실되었다.

---

38) 인천광역시, 『문학산 지표조사 보고서』, 1997, 72쪽.

39) '城山烽燧 在府南二里 南應安山郡吾叱耳 北應富平府杻串山'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 봉수조).

40) 조선총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1942.

41) 이경성, 「봉수」 『문학산방면고적전설조사보고서』, 1949, 42쪽.

3) 전통교육의 중심, 문학산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관학官學과 사학私學으로 나눌 수 있다. 성리학적 실천정신으로 인민을 교화하기 위하여 조선왕조는 관학을 설립하였는데, 중앙의 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 그리고 지방의 부 · 목 · 군 · 현에 각기 1개씩 설립한 향교鄕校이었다. 사학으로는 서당書堂과 서원書院이 있다. 문학산 일대에는 관학인 仁川鄕校와 사학인 鶴山書院이 있었다.

(1) 인천향교(仁川鄕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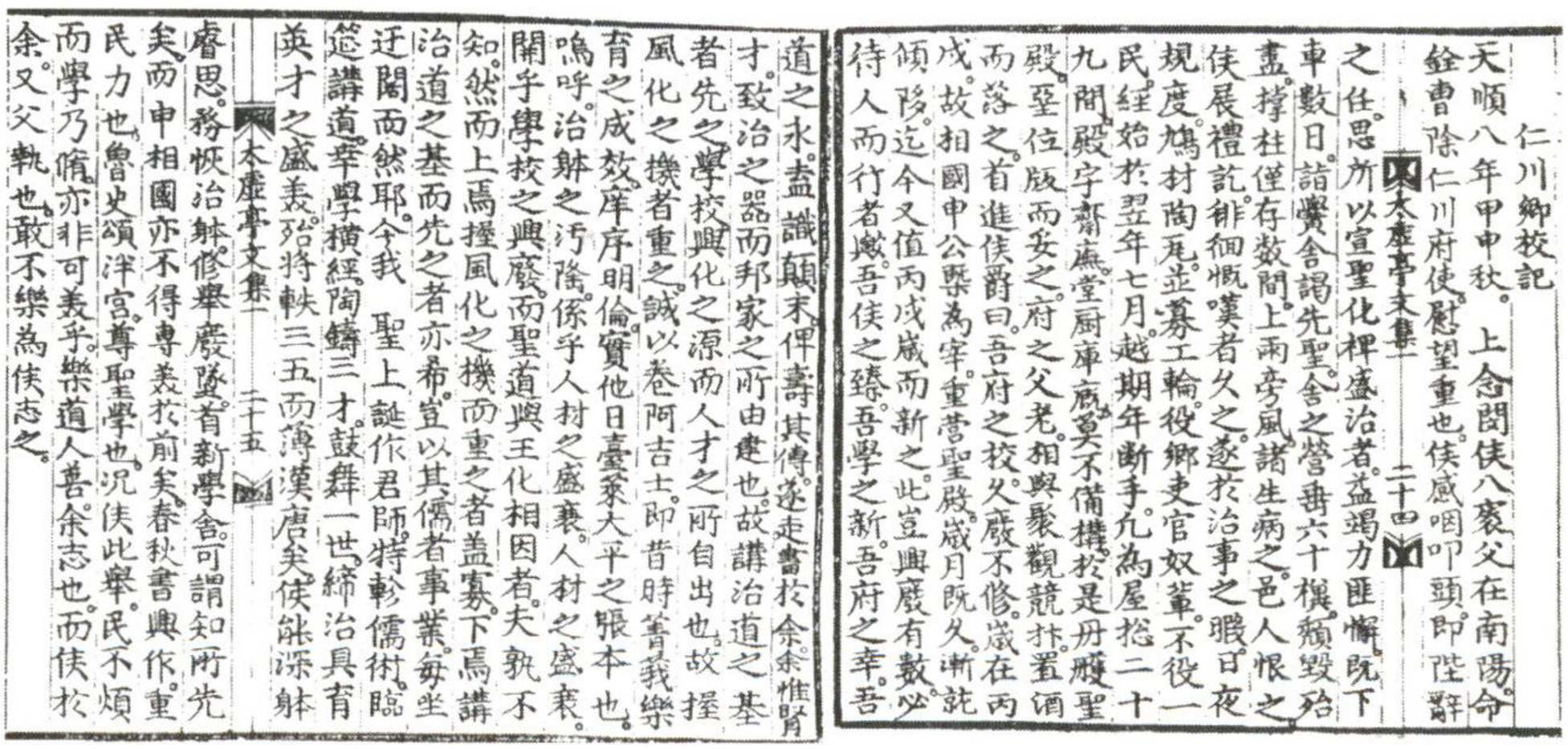
향교의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고려성종설성종대에 지방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담당케 했다는 기록' [42]=과, '고려 인종설仁宗 5년(1127) 州縣에 학교를 세워 敎道를 넓히라는 명을 내렸다는 기록' [43], '고려후기설여말선초 성리학의 보급과 더불어 설치되기 시작' [44] 등이 있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게 된 것은 군현제가 정비되는 조선왕조에 들어오면서부터라고 본다.

인천향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의 동쪽 1리에 있다고 하여 위치를 밝히고 있으나, 정확한 창건 연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인천향교지仁川鄕校誌』[45]에는 구전에 근거하여 고려 인종 10년설과 조선 태조 7년설이 기록되어 있다. 전자는 인종 5년에 향학을 설치하게 되면서 국자감의 축소형으로 인종 10년 전후기에 인천향교를 설립하였다는 것이고, 후자는 태조 7년이 중앙에

---

42) 박찬수, 「고려시대의 향교」 『한국사연구』 42, 한국사연구회, 1983.
43) 한동일, 「조선시대 향교제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론문, 1981.
44)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교」 『이상옥박사회갑기념론문집』, 1969.
45) 인천향교 편, 『속수증보인천향교지』,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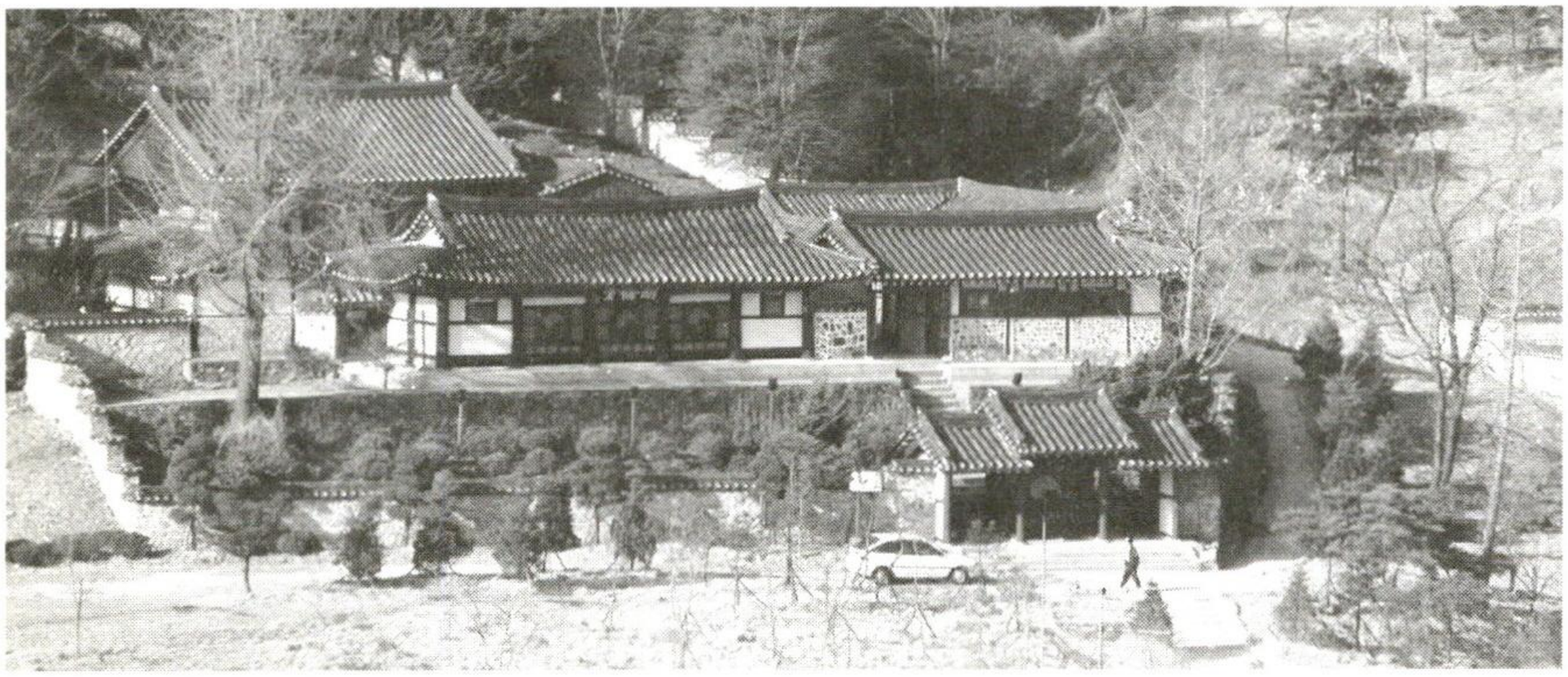
성균관이 중건되고 지방향교의 설치를 촉구한 해라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46]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1464년 최항崔恒이 쓴 『인천향교기仁川鄕校記』의 태종 6년(1406)에 부사 신개申槩가 대성전을 중수하였다[47]는 기록에 비추어 태종 6년 이전에 이미 향교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仁川鄕校記
天順八年甲申秋。上念閔侯八袠父在南陽。命銓曹除仁川府使。慰望重也。侯感咽叩頭。即陛辭之任。思所以宣聖化裨盛治者。益竭力匪懈。既下車數日。詣黌舍謁先聖。舍之營垂六十楔。頹毀殆盡。撑柱僅存數間。上兩旁風。諸生病之。邑人恨之。侯展禮訖。徘徊慨嘆者久之。遂於治事之暇。日夜規度。鳩材陶瓦。並募工輪。役鄕吏官奴輩。不役一民。經始於翌年七月。越期年斷手。凡為屋揔二十九間。殿宇齋廡。堂厨庫廐。莫不備構。於是丹雘聖殿。堊位版而妥之。府之父老。相與聚觀競抃。置酒而落之。首進侯爵曰。吾府之校。久廢不修。歲在丙戌。故相國申公槩為宰。重營聖殿。歲月既久。漸就傾陊。迄今又值丙戌歲而新之。此豈興廢有數。必待人而行者歟。吾侯之臻。吾學之新。吾府之幸。吾道之永。盍識顛末。俾壽其傳。遂走書於余。余惟賢才。致治之器而邦家之所由建也。故講治道之基者先之。學校興化之源而人才之所自出也。故握風化之機者重之。誠以卷阿吉士。即昔時菁莪樂育之成效。庠序明倫。實他日臺萊大平之張本也。嗚呼。治躰之汚隆。係乎人材之盛衰。人材之盛衰。關乎學校之興廢。而聖道與王化相因者。夫孰不知。然而上焉握風化之機而重之者盖寡。下焉講治道之基而先之者亦希。豈以其儒者事業。每坐迂闊而然耶。今我 聖上誕作君師。特軫儒術。臨筵講道。幸學橫經。陶鑄三才。鼓舞一世。締治具育英才之盛美。殆將軼三五而薄漢唐矣。侯能深躰睿思。務恢治躰。修舉廢墜。首新學舍。可謂知所先矣。而申相國亦不得專美於前矣。春秋書興作。重民力也。魯史頌泮宮。尊聖學也。況侯此舉。民不煩而學乃脩。亦非可美乎。樂道人善。余志也。而侯於余。又父執也。敢不樂為侯志之。

최항(崔恒)이 쓴 인천향교기(仁川鄕校記)

인천향교는 그 후 60년이 지나서 부사 민효열이 세조 12년(1466)에 1년에 걸친 신축공사가 있었으며, 병자호란으로 불탄 것을 숙종 27년(1701)에 중수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1914년 행정구획 조정으로 부천군에 속하면서 부천향교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으며, 1940년 인천부역확장으로 부평향교와 인천향교가 모두 인천부에 속하였으므로 2개의 향교가 하나의 부내에 존립할 수

46) 구자혁, 「인천향교고」 『기전문화연구』 18, 1989, 361~362쪽.
47) '吾府之校久廢不修歲在丙戌故相國申槩爲宰重營聖殿' 『태허정집』 권1, 「인천향교기」



복원된 인천향교 전경

없다는 이유로 철폐되기도 하였다.[48] 광복후 1946년 조직된 인천향교복구기성회仁川鄕校復舊期成會의 노력으로 부평향교로부터 분리 복원되었으며,[49] 1957년부터 여러 차례 보수가 이루어져 지금의 원형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의 인천향교에는 명륜당明倫堂과 대성전大成殿이 전학후묘前學後廟로 구성되어 있고, 각기 좌우에 동·서재東西齋와 동·서무東·西廡가 배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외삼문과 내삼문, 향교의 관리와 제향의식 등을 보조하기 위한 교직사校直舍가 있다. 대성전에는 중국과 한국의 성현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50]

48) 구자혁, 앞의 글, 1989, 365~366쪽.

49) 인천직할시, 『인천개항 100년사』, 1882, 1258쪽.

50) 배향공간에는 다음의 49개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었는데, 이중 십철과 육현의 위패를 1975년 훼매하고 십팔현을 대성전에 합사하였다.

- 文宣王 : 孔子
- 四聖 : 공자의 수제자인 顔子와 曾子, 공자의 손자 子思, 孟子 등 4명
- 十哲 : 閔損·冉耕·冉雍·宰予·端木賜·冉求·仲由·言偃·卜商·顓孫師 등 10명
- 六賢 : 周惇頤·程顥·程頤·朱熹·張載·邵雍 등 송나라 때의 유학자 6명.
- 十八賢 : 薛聰·崔致遠·安裕·鄭夢周·鄭汝昌·金宏弼·趙光祖·李彦迪·李滉·金麟厚·成

(2) 학산서원鶴山書院과 제운선생霽雲先生

서원은 조선중기 이후 명현을 제사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세워지게 되는데, 중종 37년(1542) 경상도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사祠와 재齋를 겸비한 최초의 서원이다. 문학산에는 인천지역 유일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인 학산서원이 있었다. 학산서원에 대하여는 1993년 인하대학교에서 조사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1]

학산서원은 숙종 28년(1702) 봄 유학 이정빈幼學 李廷賓 등이 국왕에게 상소하여 인천부사로 왔을 때 학문과 교화에 힘썼던 이단상을 추모하는 서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청원한 것[52]을 국왕이 허락한데서 착공한 까닭이다.[53] 그러나 학산서원의 준공은 6년 뒤인 숙종 34년(1708)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의 완공이 늦어진 것이다.[54] 이는 완공과 동시에 정일빈(鄭日賓) 등이 다시 국왕에게 상소하여 액호를 내려줄 것을 청원한데서[55] '鶴山' 이란 액호를 받았고, 동년 10월 5일 사액제를 지냈다는 기록[56]에서도 알 수 있다.

渾 · 李珥 · 趙憲 · 金長生 · 金集 · 宋浚吉 · 宋時烈 · 朴世采 등 18명.

51) 학산서원에 대해서는 1993년 인하대학교 사학과에서 실시한 조사보고서가 미간행되었으나,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한영국, 『학산서원지 학술조사 결과보고서』 인천직할시, 1993).

52) 『靜觀齋別集』 권5에 「幼學李廷賓等請建書院疏」가 전하는데, 이는 상소자인 이정빈이 부친과 동네 어른들을 통해 李端相의 높은 학문과 인천부사 재직시 선정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기리고자 그를 향배할 서원을 건립하기 위해 상소를 올렸다는 내용이다.

53) 『書院謄錄』 하권에 康熙 41년(1702) 윤6월 26일에 李端相書院의 건축을 허가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54) 『靜觀齋別集』 권5, 「幼學鄭日賓等請賜額疏」와 「仁川書院上梁文」 참조.

55) 『靜觀齋別集』 권5, 「幼學鄭日賓等請賜額疏」 참조.

56) 『靜觀齋別集』 권10, 「仁川鶴山書院賜額祭文」 참조.


仁川書院上樑文 閔鎭遠

민진원(閔鎭遠) 쓴 인천서원상량문(仁川書院上樑文)

이리하여 1708년 준공된 이 서원은 준공과 더불어 사액의 학산서원으로 출발하여 인천지역의 인재양성과 풍기교화에 주역을 담당하여 갔다. 정조 10년(1698)에는 주향인 이단상의 아들 이희조가 역시 인천현감(1694)을 지낸데서 유림의 건의에 따라 배향되었고,[57] 고종 8년(1871) 3월에 단행된 서원 정리조치에 따라 훼매되어 터만 남게 되었다.[58]

학산서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지도서』에는 부내에 있다고 하고 지도에 표시하였으며,[59] 그 후의 읍지에는 부의 서쪽 2리에 있다고 하였다.[60] 또한 민진원이 찬한 「인천서원상량문仁川書院上梁文」에 동쪽으로 멀리 바다를, 서쪽으로도 창창한 바다가 쌍계산雙谿山에 접해있었고, 남쪽으로는 학산을 바라보고 북쪽으로는 관로官路가 있다고 하였다.[61] 이에 따르면 학산서원은 부의 서쪽

57) 『輿地圖書』 壇廟條 참조.

58) 한영국, 앞의 글, 1993, 1~4쪽.

59) '鶴山書院在府內壬午創建靜觀齋李端相戊子賜額良菴李喜朝配享' (『輿地圖書』 壇墓條).

60) 1841년 간행 『仁川府邑誌』에는 '府在西二里靜觀齋李端相英宗戊子賜額正宗丙午以良菴李喜朝配享(영종은 숙종이 오기임)' 이라 하였고, 1899년 간행 『仁川府邑誌』에는 '府在西二里靜觀齋李端相英宗戊子賜額正宗丙午以良菴李喜朝配享今毁埋' 라 하였다.

1km 정도에 위치하였다는 것인데, 문학산 도천현에서 삼호현으로 오르는 중간길의 우측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949년 조사 당시 '학산서원' 이라 새긴 와편을 발견하였다고 하고,[62] 문자리와 그 위로 재실과 강당 그리고 맨 뒤에 사당이 모셔졌을 건물 초석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63] 지금은 문학산 터널공사로 인해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이렇듯 문학산에는 인천향교와 학산서원이 건립되어 조선 전시대에 걸쳐 인천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교화하였던 전통교육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이세주李世胄로부터 비롯되는데, 이세주는 연경산 북록에 자리한 부평이씨의 세거지인 제운리霽雲里에서 태어났다. 제운이란 호도 이와 관련있는 것이다. 그는 이조참판에 추증된 이운재의 아들로 현달한 집안 출신이자 인천이 낳은 최대의 학자였다. 학문을 숭상하여 관도에 오르지 않고 오로지 경학에만 힘썼으며, 찬술에는 반드시 의리를 앞세워서 스승과 학자들이 그 전아하고 정확함에 감복하였다 한다. 40세 이후 후진 교육에 전력하여 그 문하에서 수학한 학생이 수백명에 이르렀는데 과거에 오른 자가 3인이고, 성균관에 들어간 자가 10여인에 달했다. 그의 학덕은 숙종의 경연 석상에도 알려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수받고 위로 3대를 추영하였다.[64]

---

61) '梁東瞳瞳初日映窓紅海…梁西千尋滄海接雙谿山…梁南鶴山蒼翠…梁北官路一條…' (『靜觀齋別集』 권5, 「仁川書院上梁文」).
62) 이경성, 「학산서원지」 『인천의 명소고적』, 1949, 29쪽.
63) 이경성, 「학산서원지」 『문학산방면고적전설조사보고서』, 1949, 20~21쪽.
64) 인천직할시, 『향토인천』, 1988, 234쪽.

6. 문학산의 시련과 희망-맺음말을 대신하여

1883년 개항이 이루어지고, 읍치가 현재의 중구일대로 옮겨가면서 문학산 일대의 역사적 전통이 퇴락되기 시작한다. 더욱이 1913년 10월 30일 부제가 공포되고, 1914년 3월 1일 인천부 일부와 부평을 병합하여 인천부는 인천항으로 축소하고, 부천군이 신설되면서 문학산 일대는 그 역사적 원형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도호부 관아는 행정구획 조정으로 부천군 문학면에 편재되면서 부천군청이 들어서면서 파괴되기 시작(65)하였다. 1917년 9월 20일 부천공립보통학교富川公立普通學校 ; 현 문학초등학교(65)의 설립 인가를 받고, 1918년 4월 29일 관아자리에서 개교하면서 본격적인 파괴가 진행되었다. 경찰주재소가 들어서기도 하였으며, 화재로 군관청이 소실되었고, 훈무당은 저절로 무너졌다. 남아있던 건물도 광복 후 문학국민학교를 증축하면서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건물도 이 당시에 옮겨진 것이다. 옮겨진 건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문학출장소와 학교 건물로 이용되었다.

서원과 향교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학산서원은 고종 8년(1871) 3월에 단행된 서원 정리조치에 따라 훼매되어 버렸고, 최근문학터널 공사로 그 터마저 사라졌으며, 1950년대 만들어 세워놓았던 표석마저 사라져 버림으로 해서 학산서원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인천향교는 또한 부천군 관하라는 이유로 부천향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부통합으로 확장된 부천군 관내에는 부평향교와 부천(인천)향교 2개의 향교가 존재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

65) 부천공립보통학교는 1938년 仁川文鶴公立尋常小學校로 개칭되었다가, 1940년 다시 仁川元町公立尋常小學校로 되었다. 1941년 國民學校令에 따라 仁川元町公立國民學校로 바뀌었다가, 해방과 함께 현재의 명칭인 文鶴國民學校로 개칭한 것이다(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육사』, 1995, 325쪽).

인이었던 인천부윤이 1개 동일 시내에 2개의 향교는 불필요한 것이고, 부천(인천)향교는 부평향교에 비하여 건물의 규모가 큰 관계로 미약한 재정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평향교만 남기고 부천(인천)향교는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향되었던 위패는 모두 소각하였고, 제기? 제복 등의 비품과 서적 등은 부평향교로 이관하였으며, 석존계도 부평향교에 합감봉행케 되면서 빈 전각만 남게 되었다.[66] 이렇듯 근대부터 약화된 문학산의 역사적 위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전통적 원형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다시 예전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일기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전통교육의 상징인 인천향교의 복구가 시작되었다. 1946년 3월 仁川鄕校復舊期成會(초대회장 李元玉)가 조직되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부평향교로부터 분리 복원되어 인천향교로 다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향교의 복구는 1949년 농지개혁법과 한국전쟁으로 난항을 겪게 되지만, 휴전이후 다시 시작되어[67]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인천시민들의 정신적 진산인 문학산도 향토사가들과 지역민의 노력으로 서

---

66) 인천직할시, 『인천개항100년사』, 1983, 1259쪽.

67)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57년 3월 : 大成殿과 明倫堂 重修
- 1959년 3월 : 頹圮가 심한 校宮 補修
- 1960년 9월 : 대성전, 명륜당, 齋室, 守僕舍 등 대보수공사
- 1964년 : 殿齋와 三門 중수
- 1968년 : 대성전 누수부위의 기와교체공사 및 교궁 丹靑
- 1975년 2월 : 대성전의 十哲과 六賢 위패를 埋安하고 그 位跡에 東·西廡에 봉안하던 儒賢 18位 위패 봉안
- 1979년 : 대성전 전면 보수
- 1980년 : 명륜당 전면 보수, 鄭宗賓의 上樑重修文 발견
- 1983년 5월 : 동·서무, 東·西齋 개축

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방치되었다가 개항기 인천 연안의 방비가 중요시되자 일부가 다시 수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문학산성은 일제 강점기에도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으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땔감으로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더욱 퇴락하였는데, 다행히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관장 이경성)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관심을 얻게 되었다. 1958년에는 인방석이 주저앉고 성벽도 허물어진 동문지를 복원하고, 인방석에 '문학산성동문文鶴山城東門' 임을 각자하는 한편, 도천현에서 산성으로 오르는 길목에 '십제고도문학산성十濟古道文鶴山城' 이라 새긴 표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9년 미군기지 건설이 발의되고 1960년 이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학산 정상부를 삭토하고 산성의 서문지를 비롯한 성벽을 헐어내 버렸다. 인천시에서도 문학산성 보존을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68] 1962년 미군부대가 상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봉수대와 건물지 그리고 동 · 서문자리 등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미군이 철수한 후, 그 자리에 한국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산성의 동쪽 저지대를 복토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때 산성내 우물이 매몰되었고, 암반이 폭파되기도 하였다. 1986년에는 산사태로 성벽이 유실되기도 하는 등 문학산성은 퇴락되었다.

그러나 인천의 읍치가 다시 구월동으로 옮겨오면서 인천시의 사회와 문화의 중심이 다시 문학산 일대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의 중심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하여 교통시설인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사법기관인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인천경찰청, 등이 이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문학산 일대는 또다시 인천의 중심지가 되었다. 최근에는 2002년 문학종합경기장이 완공되어 월드컵

68) 조우성, 『연표로 읽는 인천현대사』, 인천직할시, 1996, 102쪽.

경기를 치렀으며, 인천지역의 상징인 도호부청사는 비록 학술조사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2001년 복원된 인천도호부청사는 3,360평의 부지에 연면적 128평의 규모로 객사?동헌?공수 등 7개 건물을 갖추었으며, 민속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지역민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공간으로도 조성되었다.

또한 인천의 진산인 소래산이 경기도의 관할로 분리된 이후 인천지역에서의 문학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져 많은 학술조사 진행되어 그 결과물이 발표되었다.[69] 또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또한 지역민들의 생활여건이 향상함에 따라 문학산은 일부 레포츠공원화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근대이후 문학산이 겪어야 했던 역경이 다시금 재발하는 듯한 우려가 되기도 한다. 현재 남구청에서는 문학산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함께그린남구의제21' 에 문학산 분과를 두고 문학산지킴이, 등산로폭줄이기 등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산문화원에서는 원도사터와 학산서원터의 표지석을 새로이 건립하기도 하였다.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 · 카톨릭환경연대와 같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문학산을 지키고, 가꾸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학산은 이 일대 지역민에 한정된 향수가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러므로, 문학산의 보존과 개발에는 민과 관이 협력해야 하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가그룹의 조언, 행정그룹의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애착과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

69) 서울대학교박물관, 『인천-소래, 인천-시흥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0.
서울대학교박물관, 『인천시문학종합경기장건설지구내매장문화재시굴조사보고서』, 1990.
인천광역시, 『문학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97.
인하대학교박물관, 『문학산일대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9.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 문학동 선사유적』, 2000.
남구청 · 인하대학교박물관,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 2002.

문학산 일대 땅이름

최재용









언어학적으로 풀어본 문학산 일대 땅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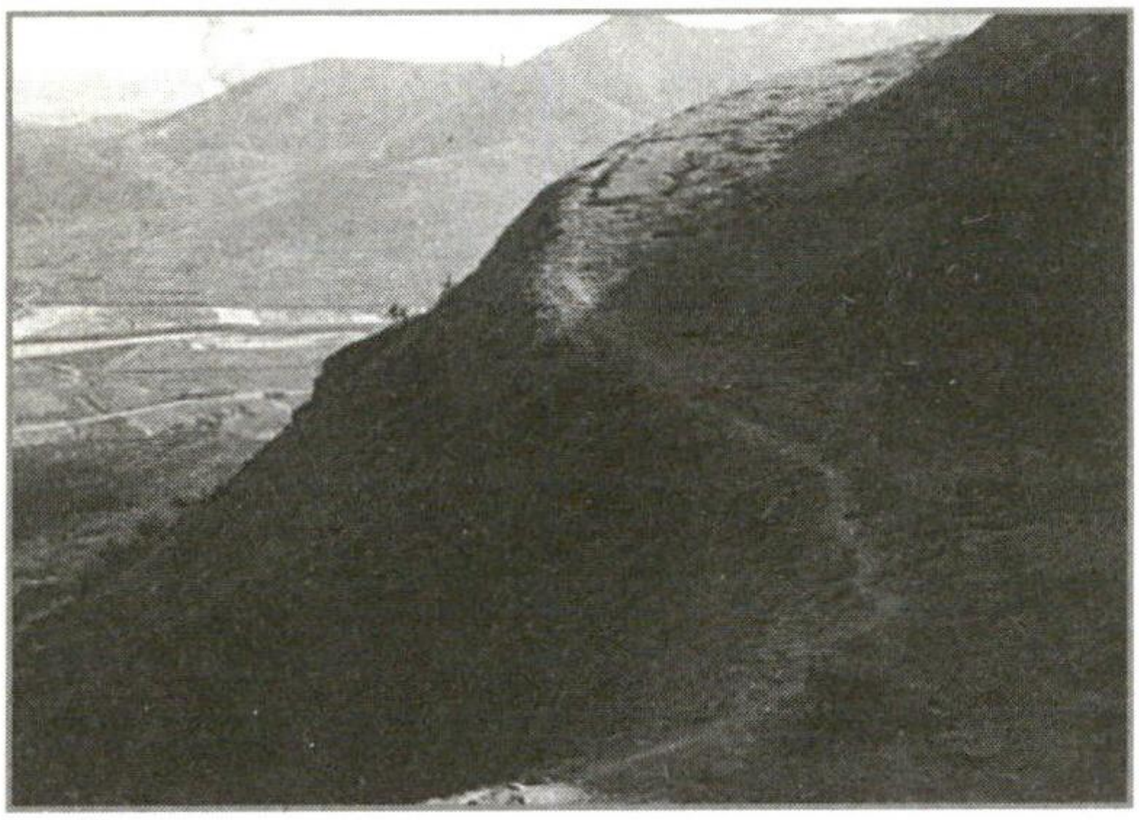
최재용 (『월미도가 달꼬리라구?』 저자)

문학: 인천 역사 오롯이 간직한 문학산 마을

문학文鶴은 인천의 옛 냄새가 묻어나는 이름중 하나다. 문학산 때문에 생긴 것인데, 문학동과 학익동도 모두 여기서 생긴 이름이다.

문학동과 관교-학익-연수-청학동에 걸쳐있는 높이 213m의 문학산은 「세종실록지리지」등의 옛 문헌에 「남산南山」「성산城山」 또는 「학산鶴山」으로 불린 기록이 나온다. 이것이 언제부터 문학산으로 바뀌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옛 지도나 문헌 등을 보면 1700년대 중반부터 이 이름이 나타난다.

여기서 「남산」이라는 이름은 옛날 어느 고을에서든 그 고을의 중심 관청官廳을 기준으로 보아 그 앞쪽 또는 남쪽에 있는 산을 그냥 남산이라 불렀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이는 옛날 우리 선조들 사이에서 남쪽은 앞을, 북쪽은 뒤를 뜻했기 때문이다.



사진작가 이종환 선생이 촬영한 문학산 일대 전경. 그는 인천향토사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 '문학산, 제물포 포구' 란 사진집을 발간한 바 있다.

「훈몽자회」에 「앞 남南」 「뒤 븍북 · 北」이라 설명해 놓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마을의 중심지나 산, 성 등의 앞을 남쪽으로 보고 뒤쪽을 북쪽으로 불렀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큰 고을마다 모두 남산이 있었는데, 인천도 고을 중심지가 지금의 관교동 일대였으니 그 남쪽에 이 산이 있었던 것이다.

「성산」은 물론 이 산에 산성山城이 있었기에 붙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남산이나 성산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고유명사라고 할 「학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산의 모양이 학이 날개를 펴고 앉은 것과 같아서 학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향토사학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있는 해석이지만 객관적으로 이 산이 학처럼 생겼다고는 볼 수가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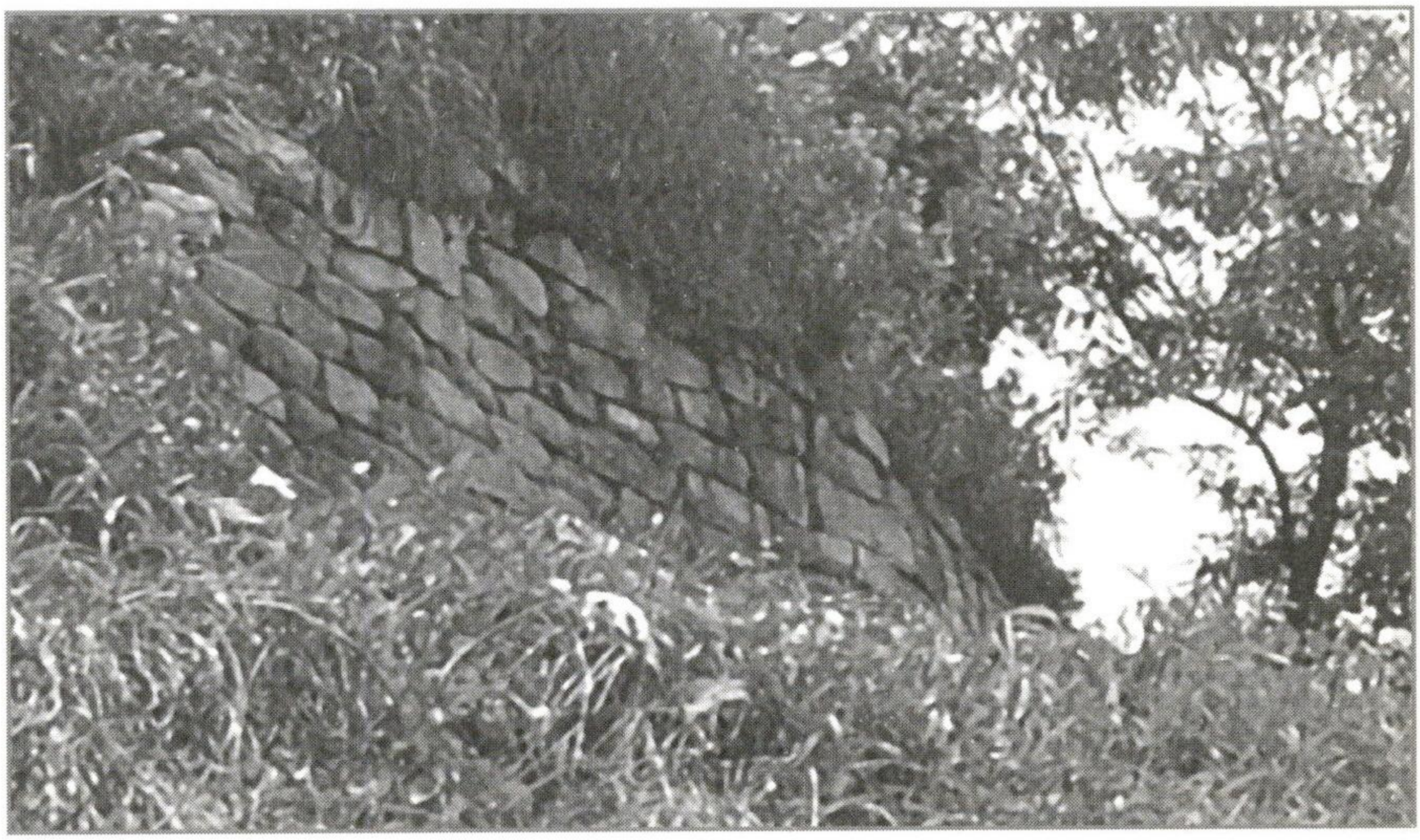
두 번째 주장은 학산과 문학산이 모두 학산서원鶴山書院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문학산 남쪽에 있었던 학산서원은 이 동네에 살던 이정빈李廷賓

이라는 유생儒生이 집안과 동네 어른들로부터 『부제학을 지내고 죽은 이단상李端相이 인천부사로 있을 때 선정을 베풀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도록 해달라고 상소를 올림으로써 생긴 것이라 한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숙종 28년 1월조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며, 임금이 이 상소를 받아들여 시행토록 했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숙종 34년(1708년)에 준공됐는데, 왕이 이름을 지은 현판과 책 등을 내려준 사액서원賜額書院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왕이 지어준 이름 학산서원에서 학산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고, 그래서 1708년에 나온 「인천서원 상량문」에 학산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는 설명이다.



백제가 건국할 무렵 세워졌다는 문학산성. 현재는 220m만이 남아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할 뿐이다.

또한 이곳 서원과 근처에 있던 인천향교가 학문과 관련이 있는 곳이기에 「글월 문文」자가 더해져 문학산이라는 이름이 생긴 뒤 18세기 중엽부터 이 이름이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한다.

그럴듯한 얘기지만 문제는 어째서 숙종이 이곳 서원에 학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내렸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고결한 선비를 추모한다는 뜻에서 기품이 있는 새 학鶴자를 썼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막연한 짐작일 뿐이지 근거는 없다.

이런 면에서 학산은 우리말 「둠」 또는 「두름」에서 생긴 이름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듯하다.

이는 「주변을 빙 둘러싸다」는 「두르다」에서 나온 그 말의 명사형으로, 분지盆地처럼 산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뜻했다. 오늘날 「둥글다」라는 말도 「둠글다」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또 산 속 깊숙한 데 있어 외딴 곳을 말하기도 했고, 때로는 여기서 좀더 뜻이 넓어져 산을 나타낼 때도 쓰였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도로, 도마, 두로, 두르, 두렵, 두마, 두모, 두미, 두무, 두메, 두밀, 두문, 두룸, 둔, 덤, 대마, 대미, 다모, 담방, 더미, 떼미 등의 다양한 변형을 갖고 있어 언뜻 알아채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지금도 두메산골, 두밀리, 둔덕 등에 그 자취가 남아 있다. 「산山 뱀」을 뜻하는 도마뱀의 「도마」도 같은 뜻이다.

또 제주도 한라산의 원 이름인 「두무악」이나 지리산의 옛 이름인 「두류산」, 고려가 망한 뒤 72명의 현자賢者들이 조선 건국세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들어가 숨었다고 하는 「두문동」도 모두 이 말을 뿌리 삼아 생긴 것이다.

문학산은 물론 지리산이나 한라산과는 그 크기 면에서 비교할 수도 없지만 옛 사람들은 흔히 주변의 산들을 이런 단어로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두름」이 「두루미」와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사람들이 산의 이름을 한자로 바꿀 때 이 말을 날아다니는 두루미, 곧 학鶴으로 오해해 학산(두루미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이를 앞서 얘기한 학산서원 이야기와 연결한다면, 당시 남산이나 성산 외에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그냥 두름으로 불리던 것을 조정朝廷에서 두루미로 받아들였거나, 그 어감을 그대로 살려 학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름 학산이 18세기 중반 이후로 문학산이 된 것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향토사학자들은 이 산의 한쪽 기슭에 공자를 모시는 문묘文廟와 후학을 가르치는 학교의 기능을 함께 했던 인천 향교鄕校가 있고, 서원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산 이름에 「문文」자를 집어넣었으리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언어학적인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르면 우리 옛말에서 「크다」는 말의 관형사형 「클」은 「갈」 과 함께 쓰였는데, 때로는 그와 비슷한 형태의 「글」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이 글자가 들어간 땅이름을 한자로 옮길 때 「글」을 글월 문文자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문학은 결국 「큰두름」 정도의 말과 뜻에서 생긴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어떻든 조선 초기 이 문학산 꼭대기에는 전쟁 등의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연기나 불길로 이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봉수대烽燧臺가 생겼다.



문학산성의 동문. 1958년 인천시가 이를 개수하고 '文鶴山城東門' 이라고 조각했다. 글씨는 인천의 서예가 검여 유희강이 썼다.

그 뒤로 산을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의 배꼽처럼 보인다 해서 배꼽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다.

하지만 이 봉수대는 1950년대 말 문학산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그 터마저도 모두 없어졌고 지금은 군사기지가 대신 들어서 있다.

한편 문학산에는 흙과 돌로 쌓은 산성山城의 일부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전설에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아들 비류沸流가 이곳의 흙성을 쌓았다고 한다.

동생 온조溫祚와는 달리 끝내 나라를 일구지 못한 그의 한恨이 서려 에분성이라고도 불렸다는 이 성 때문에 이 일대는 구한말까지 산성말이라 불렸고, 문학산이 있어 학산말이나 남산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그것이 1914년 행정구역 조정 때 문학리가 된 뒤로 지금까지 문학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굳이 비류의 전설이 아니어도 문학산 주변에서는 고인돌과 함께 돌도끼, 돌칼 등이 발견돼 이곳이 선사시대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온 곳임을 알게 해준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주몽이 세운 나라 고구려高句麗는 사실 「고구려」가 아

니라 「고구리」로 읽어야 맞다. 이는 고려高麗를 「고리」로 읽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麗고울 려」라는 글자는 나라 이름을 나타낼 때는 「리」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지금도 커다란 한자 자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고리에서 먼 옛날을 말하는 「고릿 적 (얘기)」 등의 말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나 고려는 조선시대까지도 모두 고구리와 고리로 읽었는데 일제시대에 고구려와 고려로 발음이 잘못 바뀐 것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그냥 이어져 오고 있다.

한글학자 정재도 선생에 따르면 「한서」나 「삼국지」 등의 중국 역사서나 「삼국사기」 「고려사」 같은 우리 역사서에 고구려라는 이름이 高駒麗고구려나 高麗고려, 高離고리, 豪離호리, 句高麗구고려, 句麗구려 등으로 나와있다고 한다.

결국 高고, 句구, 豪호, 高句고구, 高駒고구, 句高구고가 모두 똑같은 뜻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선생은 이들 글자가 「크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빌어 쓴 한자로 보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고리」나 「호리」는 「크리」로, 「고구리」나 「구고리」는 「크크리」라 불러야 하며, 「큰 나라」라는 뜻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또 한가지, 앞서 얘기한 「앞 남 뒤 북」은 우리 선조들이 남쪽을 앞으로 생각하고 북쪽은 뒤로 여겼다는 얘기인데, 이는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 있다.

몽골 계통인 우리 민족이 아시아의 북쪽 지방에서 한반도를 향해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남쪽」하면 앞을 말하게 됐다는 그럴듯한 해석이다.

이 설명 따르면 우리가 지금도 중국 사람을 낮춰 말할 때 쓰는 「뙤놈」 또는

「되놈」이라는 말은 원래 「뒤놈」에서 나온 말로 그들이 우리의 북쪽, 즉 뒤쪽에 있는 오랑캐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학익동: 한때는 속칭 '끽동', 새롭게 날개 펼 날 기다려

학익동鶴翼洞은 문학산의 한 줄기인 학익산 아래 동네다. 구한말까지는 지금의 용현동 일대와 함께 묶여 비랭이 또는 비룡리飛龍里라 불리던 곳이다.

제운리霽雲里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조선 중기에 이 마을에 살았던 부평 이씨 집안의 학자 이세주의 호號를 딴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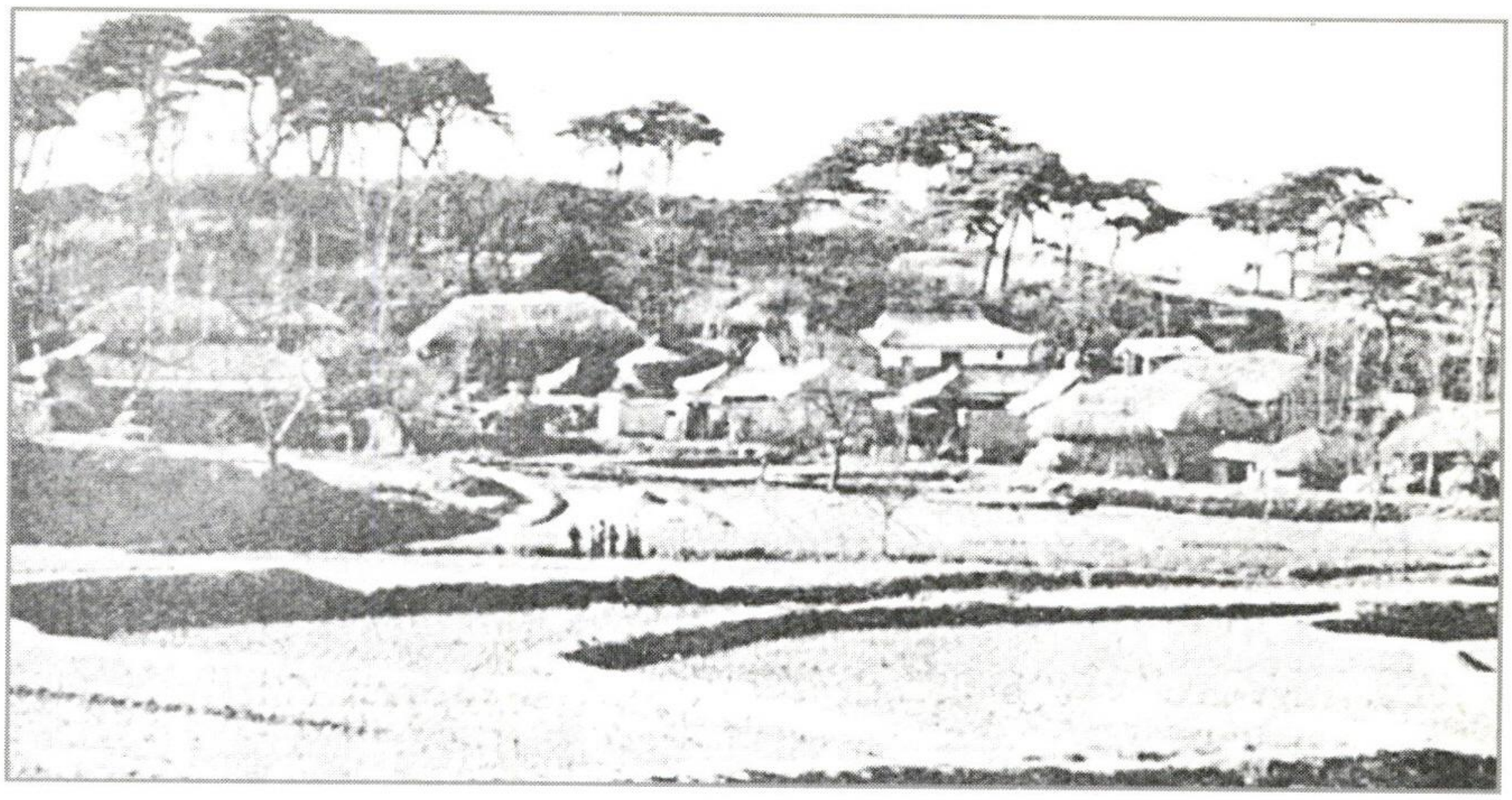
학익리라는 이름은 1910년대에 들어와 처음 쓰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경산衍慶山이라고도 불리는 학익산이 멀리서 보면 「학이 날개를 편 모양」이라 해서 붙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 동네는 학익산과 문학산 주봉主峰이 마치 두 날개처럼 펼쳐 감싸고 있는 모습이라 하며, 그래서 동네 이름도 학골 또는 핵굴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산이나 동네가 정말 그 같은 모양과 형세를 갖고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에서는 이곳이 옛날 바다에서 가까워 조개가 많이 났고, 이 때문에 합蛤골로 불리다 발음이 변해 햇골 또는 핵굴로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해석은 이 일대 바다가 매립된 것이 1894년 청일전쟁 이후이고, 주변



1950년대 학익동의 모습. 문학산 서쪽 기슭의 마을이다.

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듯 오래 전부터 바다에 의지해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점을 근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사실 학익의 「학」은 이 산의 모양에서가 아니라, 우리말 「둠」 또는 「두름」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 언어학적 흐름으로 보아 한결 타당하다.

그러나 산 이름이 일단 두루미산, 곧 학산(문학산)이 돼버리고 나니 시간이 지나면서 『학의 날개와 같다』는 살까지 붙었고, 그것이 결국은 학익산과 학익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 듯 하지만 그 실제 유래를 알고 나면 『학의 날개와 같다』는 이곳처럼 터무니없는 땅 이름 해설이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이곳 학익동에서 문학동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도천이고개 또는 도천현禱天峴이라 불리는 야트막한 고개가 있다. 그 발음이 조금 바뀌어 대천이고개, 도

차니고개로도 불렸는데 이는 모두 옛날 이곳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도천단禱天壇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전한다.

이 고개 아래가 조선시대 인천의 중심지로 도호부都護府가 있었던 관교동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이런 부류의 전설들이 흔히 그렇듯 언제 그것이 있었고 또 언제 없어졌다는 내용은 없이 그저 그랬다는 이야기만 전해온다.

도천이고개 입구에는 예전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없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도천현 반석」이라 불렸던 이 바위에는 전설이 하나 얽혀 있다.

중국에서 명나라를 거쳐 청나라가 들어선 무렵, 그곳 조정에서는 조선의 산세山勢가 좋은데다 서기瑞氣까지 뻗쳐 장차 나라가 크게 강해질 것으로 보고 걱정을 많이 했다. 이에 조선의 산세를 죽이기 위해 이름난 지관地官을 보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산의 혈맥血脈을 끊어버리게 했다. 그렇게 해서 땅의 정기精氣를 누르고 큰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미리 막아보려 했던 것이다.



학산서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학산서원 표지석. 문학산 기슭에 세워진 학산서원은 지금 이 표지석만 남아있다.

그 지관이 이곳 도천이고개에 이르러서는 산세가 좋은 것을 보고 쇠기둥을 땅 속 깊이 박은 뒤 쇳물까지 끓여 붓고, 원래 건너편에 있던 이 바위를 가져

다가 기둥 위에 눌러놓았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7대 어향御鄕」이라 해서 여러 명의 왕비를 배출했고, 그를 통해 대각국사 의천義川 같은 인물을 낳기도 했던 문학산 주변에서 그 뒤로는 이렇다할 인물이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런가 하면 이 반석이 원래는 도천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상석床石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느 쪽도 확인할 길은 없다.

한편 이 산의 기슭에는 조선 숙종 때 학산서원鶴山書院이 생겨 대대적인 사원 혁파 작업이 벌어지는 고종 때까지 자리를 지키기도 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인 고려 때는 현재 학익초교 자리에 학림사鶴林寺라는 큰 절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절이나 서원 등이 서있는 학익산과 바닷물이 넘나드는 학익동의 모습을 상상하면 옛날 이곳은 꽤나 운치가 있었을 것도 같다.

하지만 근대 이후 바다가 매립되면서 1930년대부터는 큰 공장들이 하나 둘씩 들어섰고, 지금도 동양화학 등이 자리를 잡고 있어 옛 정취는 전혀 찾을 길이 없다.

더욱이 일제시대에 중구 선화동과 답동 등지에 있던 사창가가 1960년대 초 이곳으로 옮겨오고, 교도소까지 들어서면서 한때는 「끽동」이라는 비칭卑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학익동은 중국에서도 큰 인물이 날 것을 두려워했다는 도천이고개의 전설이 있는 곳인 만큼 새롭게 날개를 펼 날이 곧 올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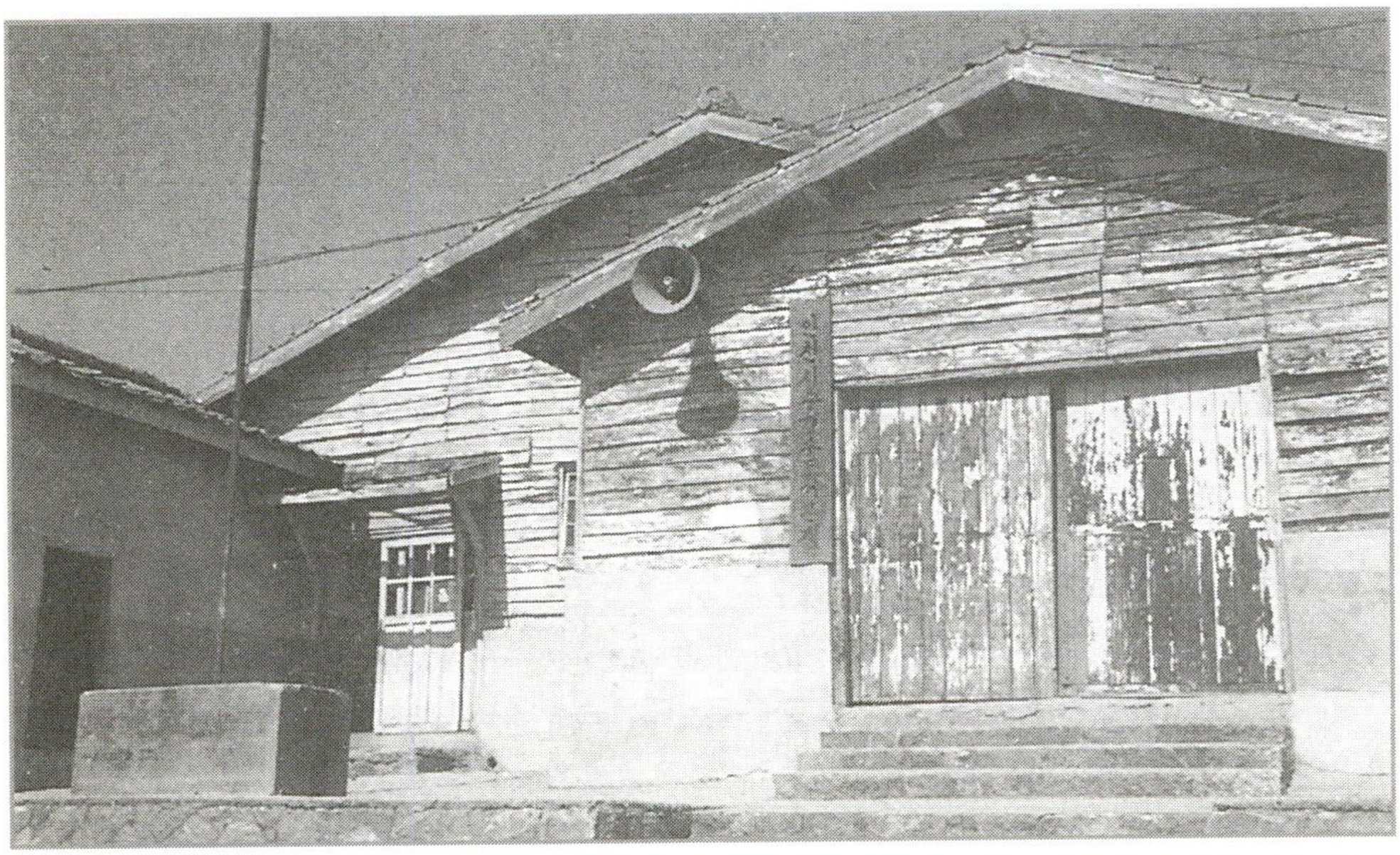
동춘동: 성앞 마을일까, 동쪽 마을일까

동춘동東春洞은 구한말 인천부 시절 먼우금면 자앞마을과 동막東幕마을 등 작은 농어촌 마을들이 모여있던 곳이다.

지금도 이름이 남아있는 자앞마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자〈尺〉의 앞마을」이라는 뜻으로 푸는 것이며, 이는 풍수지리설과 관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동춘동 뒤쪽에 서있는 청량산淸凉山은 원래 척량산尺量山인데 「청량」과 「척량」의 발음이 같아 잘못 바뀐 것으로 본다.



동춘동 사람들중 일부는 아직도 갯벌을 이용한 어로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갯벌이 죽어가 힘겨워 하고 있다. 사진은 1995년초 문을 닫은 한진어촌계 건물.

「척량」은 풍수지리설에서 「금자로 땅을 재는 생김새」를 나타내는 말, 즉 금척량지형金尺量地形의 준말로 청량산의 형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이며, 그 자〈尺〉의 앞에 있는 동네라 해서 자앞마을이 됐다는 해석이다.

이 해석에 따라 자앞마을은 1903년 동네이름이 한자로 바뀔 때 척전리尺前里가 됐는데, 이곳에서 대대로 뿌리박고 살아온 연일延日 정씨鄭氏들이 청량산을 명당으로 쓰며 그 정기를 받았기에 크게 번성했다고도 한다.

한 때 이곳에는 이 집안에서 지은 99간 짜리 큰 집도 있었다 하는데, 지금도 청량산 끝자락에 있는 이 가문의 묘역墓域은 오래 된 소나무 숲과 함께 잔디밭, 비석 등이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어 집안의 역사와 가풍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해석은 「자앞」의 「자」를 「성城」을 뜻하는 우리말 「잣」의 변형으로 본다.

실제로 우리말에서 「잣」은 「자」나 「재」등으로 변화해 쓰인 경우가 무척 많은데, 이곳도 같은 경우로 보아 「성앞 마을」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미 비류沸流 백제의 전설로부터 이어져 온 문학산성과 문학산, 그리고 그 일대 지역이 예로부터 인천의 중심지였으니 이곳은 그 성 앞에 있는 마을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언어학적 해석에서는 척전尺前의 「척尺」자도 우리말 「자(잣)」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의 음만 빌려다 쓴 글자로 본다.

「동막」은 옛날 농사를 짓기 위해 둑을 쌓아 동막이를 한 곳이어서 붙은 이름이라는 등의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1903년 척전리가 생길 때 동막리가 됐다.

이렇게 생긴 척전리와 동막리가 1914년 부천군이 생길 때 한데 합쳐져 동춘리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이것이 광복 뒤인 1946년 동춘동이 된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곳에 터를 잡고 산 연일 정씨 집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기에 이를 활짝 핀 봄꽃에 비유해 동춘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름이 생긴 시점으로만 보아도 타당성은 거의 없다.

한편에서는 동춘이 원래 「동쪽 마을」이라는 뜻의 동촌東村이었다가 발음이 바뀌어 생긴 이름이라는 주장도 하는데, 실제 이곳에는 옛날에 동쪽말(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었으니 그럴 수도 있는 얘기라 하겠다.

봉재산: 야트막한 청량산 줄기… 그 뜻은 오리무중

동춘동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는 높이 103m의 봉재산은 청량산에서 그 줄기가 이어져 내려온 야트막한 산이다.

그 이름의 유래가 분명치 않으나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째는 옛날 이 산에서 자주 하늘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기 때문에 「제사祭를 받든奉 산」이라는 뜻에서 「봉제산」이라 부르던 것이 발음이 바뀌어 봉재산이 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근처의 동막과 자앞마을 등을 중심으로 집성촌을 이뤄 살면서 조선조 중기 이후 크게 가문의 위세를 떨친 연일 정씨 집안에서 「중추동지사」라고 하는 벼슬아치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를 기려 「동지산」이라고 한 것이 와전돼 봉재산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억지로 말을 붙여놓은 느낌이 강해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해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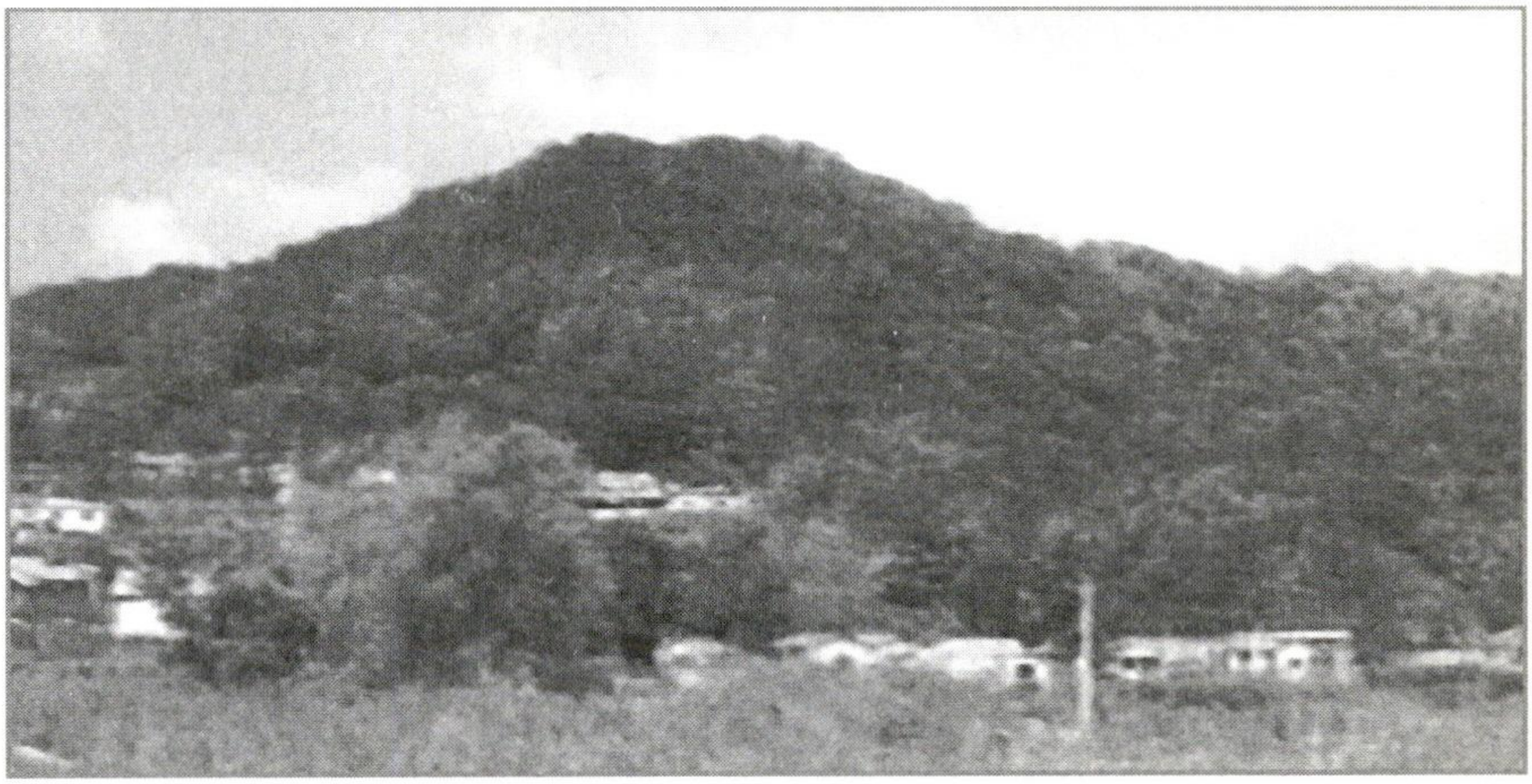
한편에서는 옛날 이 산꼭대기에 봉화대가 있었기 때문에 봉재산이라 불리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사실이 고증되지는 않지만 차라리 앞의 두 가지 해석보다는 좀더 그럴듯한 얘기로 들린다.

어학적 입장에서는 가운데 「재」가 고개峴를 뜻하는 우리 중세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지금도 박달재처럼 여러 이름에 남아있는 글자다.

그런데 이에 맞춰 「봉」자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봉곡, 봉골 등 우리 땅이름의 앞 글자에 흔히 나타나는 「봉」자는 그곳이 새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鳳새 봉자를 쓰거나, 쑥골을 한자로 바꾸면서 蓬쑥봉자를 쓴 경우가 많다.

또는 「벌골」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바꾸며 蜂벌 봉자를 쓰기도 한다.



동춘동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는 봉재산. 높이 103m의 이 산은 청량산에서 그 줄기가 이어져 내려와 야트막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곳 봉재산은 모양이 새를 닮은 것도 아니고, 쑥골이나 벌골로 불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중 어느 쪽도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봉」은 산을 뜻하는 우리말 「뫼」가 「매」로 발음이 바뀐 뒤 다시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매」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매로 잘못 알아 좀 더 좋은 뜻에서 새 봉鳳자를 쓴 것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봉재산은 산고개 정도의 뜻을 가진 뫼재에서 비롯된 뒤 다시 뒤에 산山이 덧붙은 형태가 된다.

이 산이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고개 같은 산이니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한편 청량산에서 봉재산까지 이어지는 능선은 흔히 청룡青龍의 모습에 비유되곤 하며, 봉재산 남쪽에 있는 작은 섬 외암도外岩島는 청룡이 싼 똥에 해당한다고 해서 「똥섬」이라 불리기도 한다.

봉재산 주변에는 동막마을, 능허리, 척전마을, 시드물, 신촌 등의 자연부락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곳 주민들은 상당수가 동막어촌계와 척전어촌계를 중심으로 모이면서 갯벌을 이용한 어업을 생업으로 삼아왔다.

▼ 봉재산에는 지난 1998년 미사일 오발사고를 일으켰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송도신도시 사업으로 갯벌이 크게 줄어든 데다, 조류潮流가 바뀌면서 조개류의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어 주민들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길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한편 봉재산에 오르면 송도 앞바다는 물론 멀리 시흥이나 무의도, 영흥도 일대까지 내다보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군사적으로 큰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지금도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데 지난 1998년 이곳에서 미사일 오발 사고가 일어나 한바탕 소동을 치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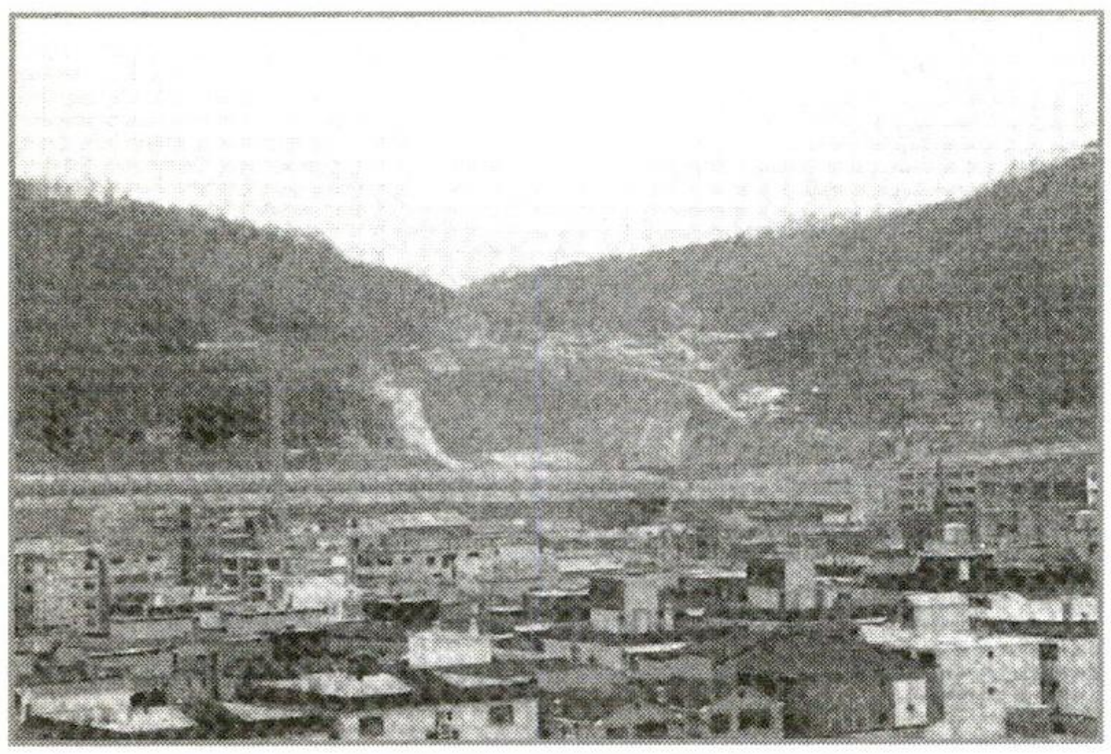
그런데 이곳 앞바다를 매립해 만들고 있는 송도신도시는 이 부대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 추진체가 신도시 안에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송도신도시에 건물을 짓는데 위험이 커 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이 부대를 영종도로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돼 왔지만 영종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이전 문제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삼호현: 백제시대 중국 오가던 사신들이 배를 타기 위해 넘던 고개

문학산과 그 서쪽 줄기인 연경산(일명 노적봉)이 이어지는 곳에 삼호현三呼峴 또는 사모지 고개, 사모재 고개, 삼해주 고개 등으로 불리는 나지막한 고개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인천 읍내에서 문학산 기슭을 넘어 지금의 송도 방면 바다로 갈 때 이용하던 고개인데,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문학동이나 학익동에서


학산서원터와 삼호현의 지금 모습.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이미 백제시대부터 뱃길로 중국을 오가던 사신들이 지금의 송도 능허대凌虛臺 주변 한나루에서 배를 타기 위해 넘어다니던 고개가 바로 삼호현이라 하며, 그 이름도 이 같은 사연에서 생긴 것으로 전해온다.

당시 중국을 오가던 사신들은 수도首都를 떠난 뒤 지금 남동구 만수동의 비리고개별리현 · 別離峴를 거쳐, 다시 삼호현을 넘고 한나루에 도착했다.

이때 그들을 배웅하러 따라온 가족들은 비리고개에서 헤어져야만 했는데, 삼호현에 오른 사신들이 여전히 비리고개에 서있는 가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름을 세 번三 불렀다呼』거나 『잘 다녀오겠다고 세 번을 말했다』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물론 삼三이란 꼭 그 숫자가 아니라 『삼 동서가 모이면 황소도 잡는다』는 속담에서 보듯 여럿 또는 여러 번을 뜻하는 말이다.

사모재 또는 사모지 고개에 대해서는 사신들이 헤어진 가족을 사모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보다는 「삼호」의 발음이 바뀌어 「사모」가 되고, 여기에 「재」나 「지」가 덧붙은 형태로 봄이 더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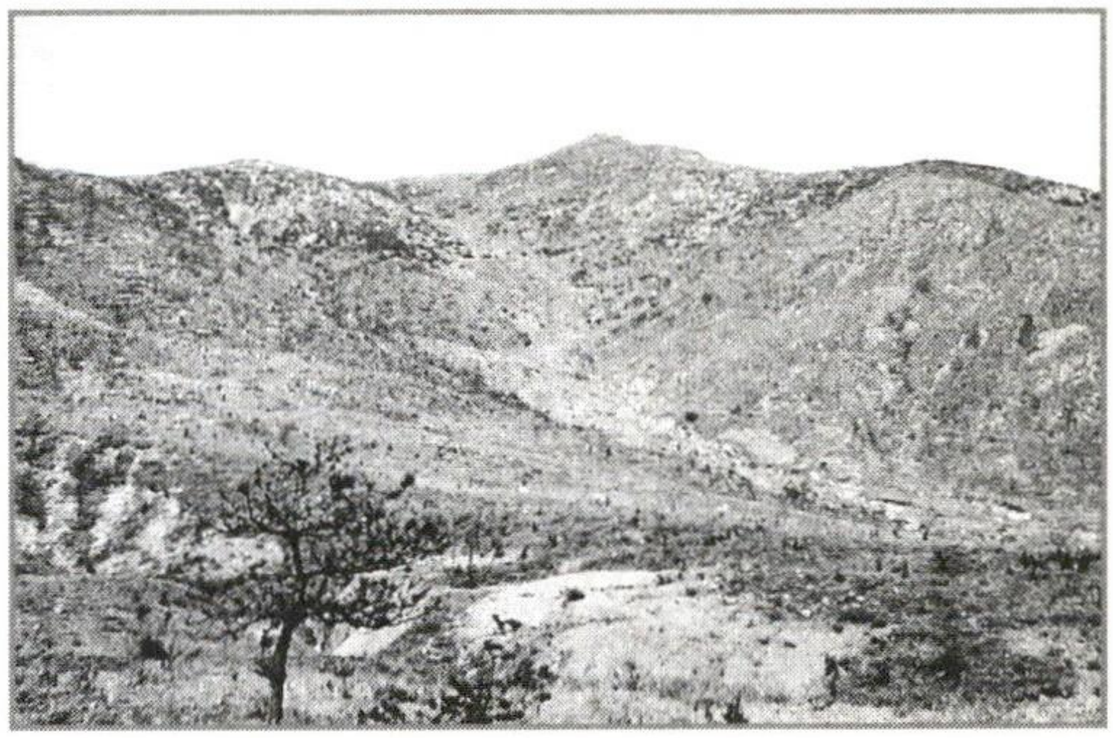
이때 「재」는 고개를 뜻하는 우리말이고, 「지」는 「재」의 발음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삼호재 또는 사모재만으로도 고개라는 뜻이 있으니, 여기에 고

개가 덧붙은 것은 구월동 일대의 주원고개처럼 같은 말이 반복된 것이다.

반면 삼해주고개는 한자로 「삼해주현三海酒峴」이라고 쓰는데 이는 다른 전설에서 나온 이름이다.

이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 고개 위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는 동이처럼 생긴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한다.



청학동에서 본 1970년대 초의 사모지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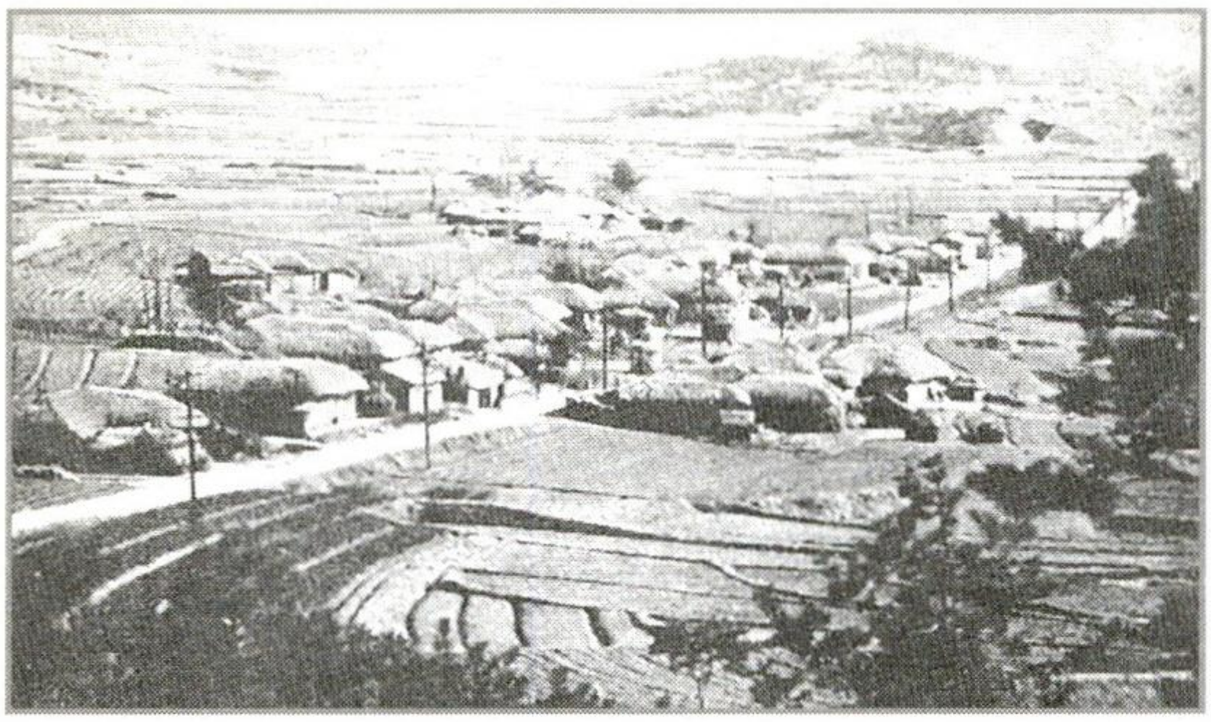
그리고 그 구멍에는 음력 정월의 해일亥日에 빚은 술, 즉 삼해주가 흘러나와 고여 있었기에 이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목이 마르면 이를 떠먹고 갈증을 씻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을 넘던 한 욕심 많은 사람이 한 잔씩만 마셔야 하는 것을 여러 잔 마신 뒤로 술이 말라 더 나오지 않게 됐다는 얘기다.

이 전설은 『세 번 불렀다』는 삼호재 이야기보다 좀더 재미있기는 하지만 땅 이름의 유래를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느낌을 준다.

선학동: 신선이 노닐고 황새가 날아들던 곳

선학동仙鶴洞은 문학산의 동쪽 길마산 주변 지역으로 옛부터 도장마을, 또는



1950년대 선학동 모습.

그 발음이 변한 도정이나 도재 등으로 불리던 곳이다. 구한말 인천부 부내면 도장리였다가 일제 말기인 1940년 무학정舞鶴町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것이 광복 뒤인 1946년 1월 선학동이 됐다.

이 마을의 뒷산 꼭대기를 선유봉仙遊峰이라 부르는데, 선학동은 그 아랫마을이라 해서 선유봉의 「선」자와 문학산의 「학」자를 붙여 새로 만든 이름이다.

원래 동네 이름인 도장마을에 대해서는 한자어 倒葬도장에서 생긴 이름이라는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옛날 이곳에 부평 이씨李氏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 집안에서는 조상들의 묘지를 쓸 때 다른 가문들처럼 항렬行列 순서대로 쓰지 않고 벼슬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묘지 순서를 정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윗대보다 더 높은 벼슬에 오른 자손들의 경우는 그 묘소가 조상들의 묫자리보다 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장례葬의 순서도 뒤바꾸어倒 지내는」 일이 잦았고, 「자손을 조상의 묘지 윗자리에 장사 지낸다」는 뜻의 한자어 倒葬도장이 동네 이름이 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고증되지 않는 내용일 뿐 아니라, 한자의 구성도 무척 억지스러운 느낌만 줄 뿐이다.

더욱이 일제 시대때 나온 지도에 보면 이곳이 「道章里도장리」라는 전혀 다른

글자의 한자 이름으로 나와 있어 倒葬도장이 어거지임을 알려주고 있다.

도장마을은 이보다 중세 국어에서 「안방」이나 「규방閨房」을 뜻하던 순 우리말 「도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훈몽자회訓蒙字會에도 「도장 규閨」 또는 「도장 합閤」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로, 흔히 사방이 산 같은 것에 둘러 쌓여 있어 안방처럼 아늑한 느낌을 주는 마을이나 골짜기를 이르는 말이었다.

이런 땅이 적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곳곳에서 도장곡, 도장동, 도장리, 도장굴 같은 이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자로는 倒葬 외에도 道場, 道藏, 圖藏 등으로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모두가 우리말을 나타내기 위해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소리만 따온 것에 불과하다.

선학동의 도장마을도 문학산 줄기인 선유봉仙遊峰의 바로 아래 동네로서 높지 않은 산에 둘러 쌓여 있으니 도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그만큼 예로부터 터가 좋다는 평을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하중길이라는 이름의 무인이 살고 있던 「중기리」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당시 권세를 갖고 있던 다른 집안 사람들이 터가 좋은 이곳을 억지로 빼앗아 자신들의 조상 묘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그 묏자리가 풍수지리상 암꿩의 목덜미에 해당하는 곳인지라 그곳에 너무 큰 돌을 묘지석으로 세운 것이 오히려 목을 짓누른 꼴이 돼 후손들이 번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마을은 지금도 큰 도장, 작은 도장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잇도장 등 세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터가 좋다는 평가 때문이었는지 지금은 없어진 이곳의 성황당은 신기한 능

력이 있어 말을 타고는 그 앞을 지날 수 없었고, 말을 타고 지나가려 하면 말발굽이 땅에 들러붙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일본군이 이곳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다.

한편 옛날 이곳은 순수한 농촌지역이면서, 동네 앞이 염전이나 바다와 이어져 있어 곳곳에 방죽을 쌓아 두었다고 한다. 여러 이름을 가진 이들 방죽 가운데는 황새가 많이 날아온다 해서 황새방죽이라 불린 곳도 있었다.

「신선이 노닌다」는 선유봉이나 황새가 많이 날아왔다는 황새방죽처럼 그 옛날 선학동에는 꽤 괜찮은 풍경이 많았던 듯한데 이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만 가득 들어차 신선이고 황새고 간 곳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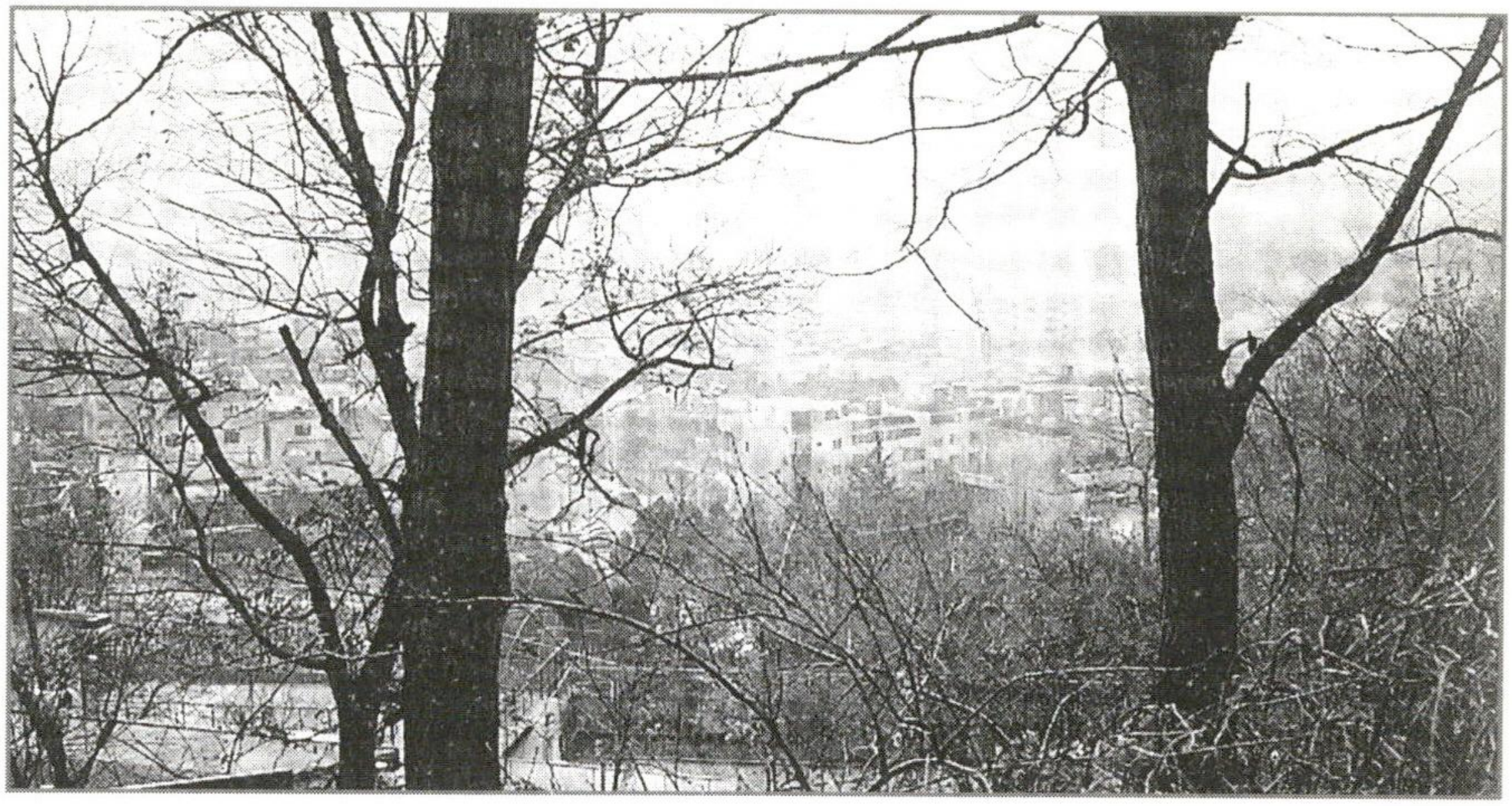
청학동: 청룡마을과 문학산에서 한 글자씩

청학동**青鶴洞**은 구한말 인천부의 먼우금면에 속해 있던 곳이다. 옛날에는 대부분이 바다에 맞닿아 있는 해안지대였고, 아주 오래 전부터 바다에 의지해 사람들이 살았기에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청학동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 이곳에는 청룡마을, 본말, 뒷골, 물푸레골, 안골 등의 여러 마을이 있었다.

그 뒤 1914년 일제가 이들 마을을 모두 합해 청학리를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광복 뒤에 그대로 청학동이 됐다.

청학은 일본인들이 청룡**青陵**마을의 「청」자와 문학산의 「학」자를 따서 새로 만든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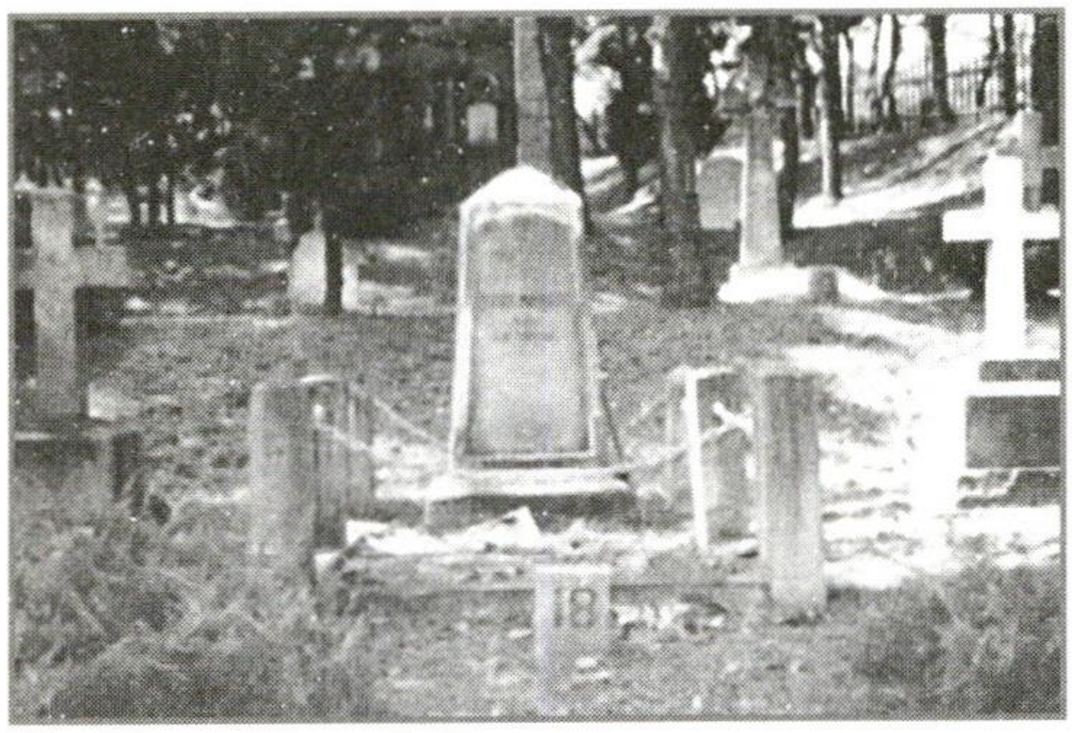
진주 김씨가 모여 살았다고 전해지는 청학동 물푸레골의 현재 모습.

일설에는 「문학산 남서쪽에 위치한 푸른 숲 속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청학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보다는 일제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600년대 초반에 경주 최씨를 비롯해 반남 박씨, 진주 김씨 일족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이중 경주 최씨가 주로 살던 곳이 본말, 반남 박씨가 모여 산 곳이 청룡마을, 진주 김씨가 모여 산 곳이 물푸레골이었다고 전한다. 경주 최씨의 집성촌에는 그 집안의 사당인 「청학사」가 지금도 있어 후손들이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또 이 동네에는 나이가 500여살 정도로 추정돼 시 지정 보호수로 돼있는 느티나무도 남아 있다.



연수구 청학동 53번지에 있는 외국인 묘지.
한국인들을 위한 의술활동으로 오래 기억되고 있는 랜디스(한국 이름 · 남득시) 박사도 묻혀 있다.

한편 현재 청학동에는 인천항의 개항이후 인천에서 활동했던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다. 이는 원래 중구 북성동, 답동 등지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62년에 옮겨 온 것이다.

이곳에는 인천에서 무역상으로 활동하며 많은 이익을 챙긴 세창양행의 헤르만 헹켈, 타운센드 상회의 월터 타운센드, 청국 외교관 출신으로 오늘날 인천세관仁川稅關의 전신인 인천해관에서 일을 했던 오례당吳禮堂 등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묻혀 있다.

이중에 의사로서 한국인에게 봉사하다가 1898년 32세의 젊은 나이에 숨진 미국인 랜디스(Eli Barr Landis) 박사의 묘지도 있다.

한국식 이름이 남득시南得時인 그는 우리의 개항기 시절, 자유공원 아래 홍예문과 성공회 사이 언덕에 「성루카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겸해 진료 활동을 했다.

20대의 젊은 의사였던 그는 환자들에 대한 사랑과 뛰어난 의술 때문에 곧 명성이 높아졌고,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영어 이름대신 「병을 고쳐 주는(약을 주는) 분」이라는 뜻에서 그를 약대인藥大人이라고 부르며 칭송했다.

또 병원이 있던 자리는 약대인산, 또는 발음이 조금 바뀐 약대이산이라 불렀다.

그는 인천 최초의 고아원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고, 영어학교도 운영했으며, 한국에 대한 연구 성과로 불교 문헌을 출간하기까지 했지만 이런 일들이 그 자신을 혹사해 젊은 나이에 과로로 숨지고 말았다.

하지만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타운센트나 랜디스 등 당시 서구인들의 이 같은 활동이 병원이나 학교 운영, 새로운 문물 소개 등을 통해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 문화에 대한 서구 문화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모두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대 담

대담 - 최원식(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우섭(인천광역시남구청장)
진행 - 김창수(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대담〉

문학산과 남구, 향후 문학산은…

대담 - 최원식(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우섭(인천광역시남구청장)

진행 - 김창수(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일 시 : 2005년 11월 15일 오후 4시

■ 장 소 :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실



대담을 준비하고 있는 대담자와 학산문화원 관계자

김창수 문학산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연수구 봉재산 미사일 기지가 영종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전 계획을 들으면서 인천 시민들은 문학산의 미사일기지도 이전하겠구나 잔뜩 기대를 하고 시민공원으로 가꾸어 나갈 꿈들을 키웠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천에선 초미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학산은 인천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전설, 문화유적 등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현재 시민사회 일각에선 문학산을 역사문화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심포지엄을 했고 곧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정들을 염두에 두면서, 남구청장님과 인천문화재단의 최 대표님께서 문학산을 가꾸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인천 안에서 문학산의 가치를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문학산을 주산主山이라고 말하는데 주산은 도읍지의 뒤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문학산은 도읍의 뒤가 아니라 앞쪽에 있죠. 인천의 주산, 소래산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문학산을 남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그렇습니다. 앞산이 남산이에요. 한자를 풀적에 남(南)을 앞 남(南)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민족이 계속 남진했다는 거죠, 태양이 뜨는 곳을 향해서 계속 동진하고, 남진했다는 것을 말풀이에서 보여주는 거죠. 문학산이 인천의 남산이다 라고 얘기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김창수 문학산은 도호부 앞에 위치하면서 바다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일종의 방어 진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다쪽으로 나가는 루트인 사모지 고개를 품고 있죠.

문학산 일대에는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상당한 유물, 유적들이 있습니다. 문학산성이 문학산 정상부근에 있고, 삼국시대 초기 백제 토성의 흔적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배꼽산' 의 어원이기도 한 봉수대, 관교동 쪽에 토성의 흔적, 안관당터, 안관당, 비류물터 등이 있습니다.

또 수리봉에 있는 왜성지, 문학산과 학익동에 지석묘가 있죠. 교육기관으로서 향교와 학산서원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천에서 역사 문화 전통시대 유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산입니다.

잘 가꾸어 나가야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모로 실망스럽습니다.

박우섭 문학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인천 사람이 아니고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인천에 온게 1980년도니까 인천에 20여년이 되긴 합니다만... 사실 문학산이라고 하는 인천이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인천에 산이 있다는 사실을 외지인들은 잘 모르죠. 예를들자면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다, 대구에 팔공산이 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인천에 문학산이 있다 이거는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동안 인천에서는 문학산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시 문학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인천사람들이 이제 뿌

리를 찾아나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사이에 레이더 기지로 변했고, 다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시민들이 다시 문학산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산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한편 문학산을 더 소중한 역사자원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전설이나 설화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나 고증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네. 망각했던 문학산을 다시 제대로 품어 안기 위해서는 전설, 역사 유적에 대한 조사와 발굴은 시급합니다. 문학산을 역사적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할 과제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최원식 대표님께서 문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꿔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최원식 구청장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셨듯이, 시민들이 문학산을 오랫동안 망각했었어요. 문학산 일대가 원래 인천이거든요, 그런데 일제가 문학산에 딸린 포구이며 진지인 제물포에다가 새인천을 건설했죠. 새인천을 건설하면서 구 중심지를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이러니까 문학산과 새인천 사이에 강제적인 분리, 원래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은 토착세력의 근거지를 소외시킵니다.

제물포 일대가 새인천으로 개발되면서 구 인천의 중심지인 문학산이 소외된, 그러니까 망각이 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도 재미난 것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분리가 된 데도 불구하고 새인천 사람들이 문학산을 항상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문학산을 배꼽산이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봉수대에 미군기지



가 들어서면서 봉수대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배꼽이 잘렸다' 는 말이 퍼졌지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배꼽을 잘라가지고 인천이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히려 배꼽이 잘려서 정말 크게 발전할 거라는 그럴싸한 해석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아 다닌것은 문학산은 새인천하고 강제적으로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산이 새인천 사람들에게 무의식으로서 우리가 망각한 그 무엇으로서 개입을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되요. 그런데 요새는 새인천이 다시 몰락하고 소외되었던 문학산 일대가 다시 개발되거든요. 똑같이 부평도 그래요.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부평역 일대가 개발되고 원래 부평의 중심지인 계양산 일대가 분리됐잖아요, 다시 원인천지역이 커지면서 문학산 일대가 부각되고, 또 계양산 일대도 부각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문학산과 계양산이 동시에 귀향하는 느낌이 들어요. 문학산과 계양산을 확고하게 인천의 새로운 문화 구심으로 맞이해야하는데, 너무 복고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복고주의적으로 잃어버린 인천을 다시 찾자 이런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 말이지, 깊이 잠이 든 이 도시와 이 땅을 새롭게, 그리고 전향적으로 건설하자는 운동속에서 되야만 살아나는 거죠. 향토주의적 관점, 또는 전통주의적 관점, 회귀적 관점으로 인천을 계획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원래 새인천이라는 데가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형성된 근대 도시의 실험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 도시

가 해방 후 분단이 되는 바람에 일제시대 번성했던 항구로서의 기능은 정지되고 말았죠. 탈냉전시대와 함께 문학산, 계양산도 부활하는 거거든요, 문학산 문제를 해결하는게 사실은 한국의 분단체제를 치유하는 과정이거든요. 제대로 된 인천을 만드는 작업도 사실은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 한반도 전체의 변화와 맞물려 있어요. 잠깨는 게 어쩌면 더 힘이 듭니다. 문학산을 제대로 다시 안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위론적으로 얘기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박우섭 최대표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문학산을 되살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남구 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학산이 단순히 등산, 운동을 하기위한 공간, 건강을 위한 공간, 그 정도 이상의 의미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산이 인천에서 갖는 의미를 살려내서, 문학산이 갖는 정신이 인천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원식 말하자면 망각된 기억들을 , 억압된 기억들을 귀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중요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문학산의 기억들을 다시 모으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기획이 추가되어야 하죠. 다시 말해 그동안 인천에서 무의식에서만 있었던 문학산을 의식의 차원으로 귀환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로 나가는 터전으로 삼자는 겁니다.

김창수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한편으로 근대 개항도시로서 시민도시

라는 성격을 개항장 쪽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본이 개항 이후에 이쪽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임오군란 때 하나부사 일행이 쫓겨가지고 인천도호부청사에 왔다가 관민들에게 공격당해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것과도 관련이 되겠지요. 당시 일본군이 여럿 죽고 거기서 하나부사가 간신히 도망쳐서 월미도로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사변〉이라고 부르는 사건 중의 한 장면이 문학산 일대에서 벌어진 셈이죠. 그 뒤부턴 아마 인천부청이 있던 문학산 일대는 쳐다보기도 싫었겠죠. 또 인천 관교동 일대의 군중들이 개항장에 있던 감리서를 공격한 '인천민란' 도 두 지역 간의 갈등과 관계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원식 인천에서 민란이 거의 없었는데, 근대초기에 민란이 발생했죠. 민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또 한편으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말하자면 새 인천에 다 뺏겼잖아요. 인천민란은 아전들이 일으킨 거죠. 기득권을 뺏긴데 대한 저항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선왕조를 우리가 비판할 필요도 있어요. 조선왕조는 철저히 바다를 천시하고 철저히 내륙형으로 가는 바람에 폐쇄적으로 흘렀어요. 근대라는 건 바다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일찍이 조선왕조가 말하자면 인천 도읍에 깔린 제물포라는 항구를 스스로 크게 만들었어야지 그걸 못하니까 일본이 오히려 그쪽에다 항구를 만들고 이쪽을 몰락시킨 겁니다. 반성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김창수 학산서원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학산이라는 이름은 문학산을 줄여부르는 것이죠. 남구청 학산문화원이 펼치는 사업들도 문학산정신의 계승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산서원은 인천의 학맥, 학풍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최원식 저도 대학선생이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대학파의 재건의 필요성과, 인천의 학풍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학산서원은 사실은 뭐라그럴까 노론계에요. 집권층의 학풍을 이어받았죠, 인천의 동헌이름이 어질인, 백성민, 집당자인데 민당이에요. 이게 유명한 김창업이 썼어요. 학산서원이 바로 그의 이단상과 그의 아드님인 이시조라는 두 유학자들을 기리는 서원이죠, 그 제자가 농암 김창협이라고 당대 노론계 최고의 학자죠.

인민당기라는 글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학산문화원이 그냥 노론계만 대표한다고만 하면은 또 우리가 크게 기릴 이유가 없는데 이 학맥이 위정척사사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그 후에 한말에 의병전쟁의 중심적인 거점이 되지요. 그래서 인천대학교의 도서관이 학산도서관인데 바로 그런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자는 취지에서 명명한 것이죠.

학산서원이 갖고 있는 정신은 조선시대 유학의 핵이었으며 또 한말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봉기했던 사상들의 거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학산서원터에 대해서, 그리고 인천의 학맥의 재건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선생 학풍이 인천하고 관련이 깊어서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 평창 이씨들이 전부 성호 좌파들로 천주교로 다 갔고 그 사람들이 세도정치 아래서 다산하고 또 관련돼요. 윤동규 그 양반은 성호우파에요. 성호학파가 우파 좌파로 나눠요. 우파는 후남 안정복 같은 분들, 학에 더 중점을 둔다면 좌파들은 체제변혁 쪽으로 가요.

성호 좌파의 최대 학자가 다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인천

은 성호 좌파의 중심학자인 이승훈 부자, 성호 우파의 윤동규라는 거물 우파 학자가 함께 품고 있어요. 인천 천주교의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학풍이 다 모여 있었던 셈이죠. 원래 학파는 서로 다른 사상이지만 서로를 비추고 경쟁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인천은 다 쌓아놔가지고 이런 것을 다시 할 적에 중요한 것이 되죠, 이게 있었다는 것하고 없었다는 것은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는거거든. 윤동규의 문서와 자료가 발굴돼서 지금 시립박물관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인천의 대학교들,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왕년의 학풍을 같이 재평가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보자고 할 때,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있죠.

박우섭 학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밝혀내면서 너무 작의적이고 인위적이면 안되겠지만 인천에 흐르는 정신을 밝혀내고 이 시대에서 어떻게 승화시켜서 미래로 펼쳐나갈 것인가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지요. 인천이 아주 개방적이고 여러 곳에서 와서 도시를 이루고 또 지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인데, 정체성의 문제도 나오고요… 중심이 없는 이런 부분들에 지적이 반복되는데 이제는 인천의 참된 정신이 무엇이고 인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확산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식 이성모 국사편찬위원장이 〈인천의 명가〉 전시회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에서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지분 없이 세계화 없다. 세계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분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역사고 전통이다. 박구

청장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밑천, 지분을 가져야지 세계화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지분이 바로 역사이고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우섭 문학산이 갖는 의미가 있고 인천시민들한테 문학산이 그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김창수 저는 인천문화가 유연성과 포연성 개방성이 제일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성호좌 · 우파를 아우르는 노론, 근대사상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강화학파까지 한 도시가 한 지방에서 공존한 경우는 분명 특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원식 그 학자들이 다 온건주의자입니다. 인천 토박이들이 아니고, 인천이라는 곳은 유동성, 학자들이라는게 강화학파 학자들도 다 서울사람, 다만 인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 조선왕조 시대는 학자 사이에 대화가 없었어요. 학파 사이에 논쟁이 피비린내나는 숙청, 싹쓸이,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말하자면, 학파는 정당의 기원인데, 이게 나중에 가서 정당끼리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먹으면 이쪽 싹쓸이 이런 식으로 간거지, 이제는 그렇게 안 가게 여러 학풍들이 생산적인 긴장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도록 해야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 지금도 여전히 사생결단식이지.

김창수 문학산과 관련하여 남구청장님의 책임이 무거우십니다. 관련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주 구체적이지 않으셔도 좋으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섭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선 문학산성이 유적으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겠다생각합니다. 사실 문학산은 주민들에게 의미가 큰 국보급 산성입니다. 어떠한 역사성을 갖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그것을 고민 받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다 인천시를 통해서 이것이 국가의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적에 그러한 문화재가 있는 곳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올 수는 없겠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유산인데 거기에 미사일기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논리로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지금 소위 남과 북의 평화의 관점 그리고 인천이 평화도시로의 관점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것도 한 축이지만은, 문학산성이 갖는 역사성 속에서 도저히 그거는 우리의 민족적 자존이나 역사성 때문에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학산서원도 말씀하셨고 문학산의 여러 유적도 이야기 했는데 문학산이 단순히 인천시민들, 남구 주민들, 우리집 가까이 있어서 등산하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문학산이 인천을 만들어 왔고 인천의 시민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지탱이 되어줬다, 라고 하는 이거를 각인시켜서 아, 인천하면은 문학산이 같이

연동되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원식 문학산 홍보하는 데는 월드컵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월드컵이 희한하게도 문학산을 전국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기회가 아주 좋거든요, 문학산의 기억들을 좀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찾아갖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아, 여기가 어떤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비류에 대해서 〈백제건국기의 인천〉토론회에서 제기한 바 있듯이,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비류는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지혜로운 온조와 못난 비류 이야기 말입니다. 비류가 인천에 도읍을 정한 바람에 온조에 의해서 흡수되었다는 얘기는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삼국사기 백제사라는 게 온조계 백제하고 비류계 백제가 섞여 있대요. 비류계는 해안세력이고 온조계는 농경세력인 거죠. 나중에 어떤 사람은 백제가 중국의 요서나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비류계 활동을 부정하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비류백제의 역사적 행방을 쫓는 학회가 제대로 된 게 되어야 되요. 고려 때 인천의 역할이 커진 것도 인주 이씨, 연수구에 가면 원인재 있잖아요? 원인재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바다무덤이거든요. 그것은 강력한 해상세력이라는 얘기죠. 수중묘를 썼는데 그게 해상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인주 이씨들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당현종이 몽진할 적에 당나라 사성을 받았거든요. 당나라 사성이 이씨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강력한 해상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려 왕건이 해적 출신이거든요. 고려는 바다를 중시하는 해상세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때는 인천이 부상하게 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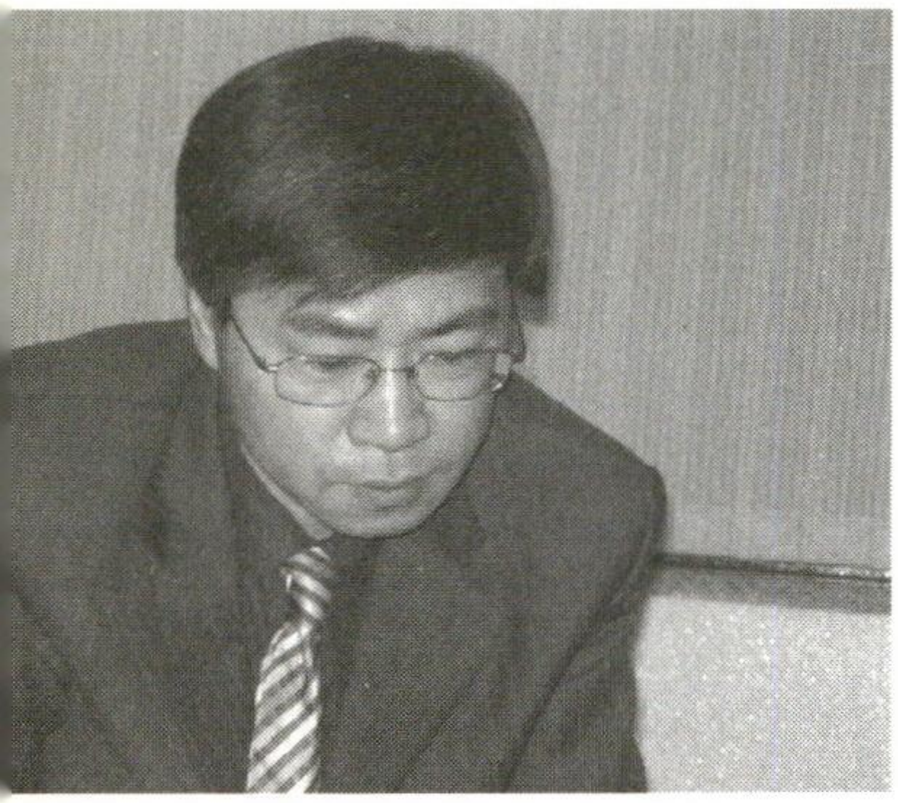
인천은 부평은 분명히 농경세력이고 이쪽은 분명히 해상세력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비류의 계승자가 인주 이씨입니다. 그게 고려때 최대의 귀족가문으로 올라가면서 해상 세력을 대표한 거죠. 조선왕조는 철저히 농경내륙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경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류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야 학자의 얘기지만 비류 백제가 결국은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가의 기원을 이루는데, 그때 백제는 온조가 아니고 이쪽계열이라고 하거든요. 비류가 갖고 있는 해상적 성격을 부각할 필요가 있죠.

문학산성은 임진왜란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임진왜란의 승전지이고 왜군에 점령되지 않은 아주 드믄 땅이거든요. 작은 승리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김준성 부사의 의병적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큰 겁니다. 관군이라기보다 의병적 활동을 통해서 왜란의 세력을 지켜낸 거거든요.

안관당 축제를 복원하고 싶은데 안관당이 바로 김준성 부사의 혼령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관당 축제는 민간축제에요. 18세기쯤 되는 것 같은데, 꿈에 부사 혼령이 나타나서 문학산 그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시작한 거에요. 축제라는 게 가장행렬이거든요. 모의전투도… 민간축제로서 된 거에요. 아까 산신이라 그랬는데 원래 문학산 산신당을 그렇게 바꿨을지도 몰라요.

박우섭 지금 1년에 한 번씩 아직도 문학산에서 안관당제를 올립니다. 축제는 빠지고 유교식 제례만 하고 있습니다.

최원식 원래 민간축제는 탈춤, 그리고 뭐 꿈에 김민성 부사가 목마를 타고 산을 다니고 그랬대요. 그거를 모의하는 거지, 축제라는 게 일종의 모의거든요.



김창수 박구청장님께서 문학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을 더 해야하고 그럴 때 시민들이나 학계의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문학산이 인천의 대표적 명산으로 가꿔나갈 수 있겠죠.

좀 딴 얘긴데, 인천 남구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어서 마치 일반명사 같습니다. 인천 지명 혼란이 여러 군데 지적되고 있는 차제에 남구의 구명을 문학구라고 하면 변치 않는 고유명사가 될텐데요.

박우섭 여러 번 문제제기가 됐던 내용인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실천을 못했습니다. 인천시의 구의 명칭을 바꾸는 일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시민운동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행정적 뒷받침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2-3년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추진을 못했어요. 만약 시민들의 요구가 올라오고 설사 그것이 행정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 남구도 문학산을 역사문화의 중심으로 삼아서 독특한 문화, 어디에서

도 볼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학산을 역사적 · 문학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인천의 명산으로 가꿔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원식 문학구라는 말은 재밌네요. 지명들이 문학처럼 고품격 지명은 없어요.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지요.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인천이 대표적인 학도래지에요. 마지막 학이 80년대인가 왔다가 오염된 물먹고 쓰러진 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근래에 보면 학자 들어간 데가 많아요. 인천의 나무, 꽃, 이런 게 엉터리인데, 시의 새는 잘 만들었어요. 학.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학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 무신은 호랭이, 문신은 학이거든요. 학이라는 건 문, 문화, 문명의 상징에요. 문학이라는 지명은 정말 기가막힌 이름이에요. 문학이라는 지명을 더 선전을 하고 그래서 요샌 비주얼 시대니까 인천에서 학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요. 문학산에 학이 들어간 건 거기가 바로 인천 문화의 보물창고였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거든요. 문학을 잘 살리시면은 남구가 인천문화의 중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인천 전체를 인천 문화로 수렴을 하고 확산시키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창수 구청장님께서도 마무리를 해주시죠.

박우섭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제들, 비류백제의 역사를 다시 한 번 규명을 하는… 또 생태적으로 학의 도래지를 복원 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 안관당축제

를 복원시키는 것이나 이런 것 등. 그런 움직임이 주민들과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행정이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학도래지 프로젝트는 의제 21에서, 안관당은 문화원에서, 비류백제는 인하대 박물관이나 학계에서 맡아준다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재정마련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겠지요. 지금부터 출발해서 학이 돌아오게 하는 십년 계획을 세우고 안관당 계획을 주민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면 남구와 문학산 일대가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도 살고, 문학산도 살고, 남구의 문화도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김창수 문학산 역사문화공간을 가꾸기 위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산문화총서 2

文鶴山 - 문학산 속으로 걸어가기

초판 1쇄 인쇄일 / 2005년 12월 10일
초판 1쇄 발행일 / 2005년 12월 15일

발행인 / 유제환
발행처 / 인천광역시 남구학산문화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58(용현동 81-8)
tel. 032)866-3993, 880-4763
www.haksanculture.or.kr
제작공급 / 다인아트 032+430+0268

값 / 10,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그럴 즈음에 또 하나의 결실로 총서가 나온다니, 여간 반갑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발검을을 향한 디딤돌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문학산을 주제로 정한 것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주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있듯이 문학산은 인천의 뿌리이자 인천문화의 본산입니다. 그 일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물 유적들이 새롭게 발굴될 때마다 우리는 문학산이 지닌 무게감과 함께 인천인의 역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문학산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어가야 할 정신의 그릇인 것입니다.

— 「발간사」 중에서

값 10,000원